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 책임연구원 : 전영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공동연구원 :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유성렬(백석대학교 교수) 김신영(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임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협력 연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위원	김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 특히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재비행(혹은 사회적응)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종단조사이며, 2013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 해당된다. 이번 1차년도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패넌을 구축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2차년도와 3차년도에는 이들의 변화과정, 재비행(혹은 사회적응)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여기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특히 보호관찰대상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업중단이 시작되는 시기인 중학생 연령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개년의 종단적 조사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보호관찰대상자(최장 2년)이면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2014년도 조사에서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사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대상 보호관찰소는 수도권 6개 기관과 그 밖의 주요 지역 5개 기관 등 총 11개 보호관찰소였다. 각 보호관찰소에서 총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폐기부수를 제외한 최종 완료부수는 226부였다. 이 중 설문지 검수과정에서 응답자가 접촉되지 않는 36명을 제외하고, 이 연구보고서에는 본인의 응답사실이 확인된 총 19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시기는 2013년 7~8월이었으며, 9월 초까지 회송을 완료하고, 에디팅 및 코딩과정을 거쳐 9월 말에 데이터틀을 구축하였다. 조사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과 대부분 동일하게 구성하였으며, 보호관찰 관련사항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 면접조사는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파악을 통해서 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2014년도 설문지의 보완을 위해서 실시되었다. 면접조사의 대상은 수도권 4개 보호관찰소에서 각각 3명씩 모두 12명이었다.

2. 조사결과

-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 나타난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는 초·중학교 43.2%, 고등학교 56.8%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초·중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비행을 보면 남학생들은 절도가 여학생들은 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이전에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3회 이상의 처분 경력을 받은 대상자가 약 17%였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으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 보호관찰위반, 교통범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 65%의 대상자들은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범행 동기는 주로 유흥비가 필요해서 저질렀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 밖에 친구의 요청, 호기심, 분노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학업중단의 원인과 실태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학업중단의 이면에는 이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간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보호관찰청소년은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모두 없는 가정의 비율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경제수준도 하층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보호관찰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심층면접을 보면 한부모 혹은 맞벌이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느라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보살핌이 결여된 경우도 많았고, 양부모가 있는 중산층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을 주지 못했으며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질러 자녀에 대한 신뢰와 훈육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둘 간의 불신과 불화가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학업중단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 둘째,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나 보호관찰청소년이나 학업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학업중단을 택한다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결석과 비행을 반복하다가 학업유예로 혹은 학교의 자퇴권고로 인해 떠밀리듯 학교를 나간다. 때문에 설문조사결과 이들이 학업중단을 후회하는 비율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층면접결과를 보면 이러한 후회는 정상성을 이탈한데서 오는 열패감일 뿐 학업중심인 현실학교로의 회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보호관찰청소년의 삼분의 일이 복학경험이 있었다. 즉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이후 재입학 하는 비율도 높지만 재이탈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 셋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므로 학업을 중단할 때까지 부모나 교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지도 못했으며 학업중단 숙려제나 진로 및 직업훈련 등의 정보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결과 대상자의 대부분이 상담을 권고 받은 적도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학교, 직업교육, 재입학 정보 등에 대해 들은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였다.
- 넷째,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마음의 준비나 정보가 부족했으므로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이후 생활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크게 달랐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검정고시준비, 대안학교, 직업훈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하고 보다 생산적인 경험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을 하거나 무위도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유일하게 아르바이트에서만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다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심층면접결과를 보면 저축이나 학원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유흥비로 탕진되었으며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대부분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므로 단기간으로 끝나는 듯했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에게 특히 직업진로와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설문에서도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진로상담이나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주로 일자리 소개라든지 직업기술훈련에 대한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섯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다른 원인에서 기인한다. 설문조사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간에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우울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열한 입시경쟁속에서 한국청소년 일반이 심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그 원인을 달리한다고 한다.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하루 일과, 보호관찰을 받게 된 현재의 상황, 불투명한 미래와 어려운 집안환경 등이 이들로 하여금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 사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나 자살시도경험을 이야기 했으며 알코올 의존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 여섯째,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친구들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들이 보다 비행성향이 높았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는 주변 친구나 형제자매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문제행동을 저지른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비행과 학업복귀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 일곱째,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피해경험과 문제행동을 보면, 집단따돌림(왕따) 피해를 제외하고 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간에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비행경험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흡연, 음주,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등 여러 비행유형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청소년은 물론 일반학업중단청소년도 음주를 제외한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이 줄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서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학업중단이 비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나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편향의 결과일수도 있다. 즉 보호관찰소를 통해 설문을 받는 조사방식의 특성상 대상자들이 솔직하게 답을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으며 근신 중인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일수도 있다.

-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의 경험과 지원을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청소년과 보호관찰관의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소를 통해 상담지원, 학업지원, 원호금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결과 양쪽 모두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의 보호관찰관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소의 지원도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도 보호관찰소에 있는 동안은 최소한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교사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정서적 정보적 지원자로서 인식되었다.

3. 결론

- 이 연구의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방안과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구분하였다.
- 먼저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첫째, 학업중단 이전의 무단결석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학업중단 이전의 무단결석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교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침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이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시 의논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학업중단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더 낮았다. 이를 고려해서 학교차원에서 위기학생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등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업중단 후 학교에 복귀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복학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높았다. 이들이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다음으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은 필요한 지원내용과 지원체제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내용으로는 첫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살시도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연계시켜 주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정적 또래관계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 대안을 찾고 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비행친구의 압력이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가족개입이 필요하다. 가족에 대한 개입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가정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드림스타트와 같은 사업을 확대해서 청소년기이지만, 고위험군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매뉴얼 개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 가해나 피해가능성을 고려해서 비행 가해나 피해예방 방안, 비행 가해나 피해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5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7
II.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 논의	17
1. 학업중단의 원인과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	19
2.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	25
III. 설문조사에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31
1. 조사대상의 특성	33
2. 학업중단관련 실태	35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48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82
5. 학업 중단과 문제행동	103
6. 보호관찰청소년의 범죄경험과 지원 실태	115
7. 소결	135
IV. 심층면접에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139
1. 조사대상의 특성	141
2. 학업중단의 경험과 심리	157
3. 학업중단과 문제행동	182
4. 보호관찰청소년의 희망과 보호관찰의 기능	193
5. 소결	202

V. 요약 및 결론	205
1. 요약	207
2. 결론	210
참 고 문 헌	215
부 록	223
1.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설문지 및 보호관찰관련 조사용 별지	225
2.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심층면접 질문지	249

표 목차

〈표 I-1〉 보호관찰소별 회수현황	9
〈표 I-2〉 설문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	11
〈표 II-1〉 학제별 학업중단률	20
〈표 III-1〉 설문조사대상의 특성	34
〈표 III-2〉 학업중단시기	35
〈표 III-3〉 학업중단이유	36
〈표 III-4〉 학업중단형태	37
〈표 III-5〉 복귀경험 여부	38
〈표 III-6〉 복귀이유	39
〈표 III-7〉 학업 중단 시 고민 상담자 (복수 응답)	40
〈표 III-8〉 학업 중단 시 부모님의 태도	41
〈표 III-9〉 학업 중단 시 교사의 태도	42
〈표 III-10〉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43
〈표 III-11〉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43
〈표 III-12〉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44
〈표 III-13〉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	44
〈표 III-14〉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45
〈표 III-15〉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	45
〈표 III-16〉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 여부	46
〈표 III-17〉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46
〈표 III-18〉 학업 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복수 응답)	47
〈표 III-19〉 자아존중감	48
〈표 III-20〉 자아존중감 문항	49
〈표 III-21〉 자아탄력성	49
〈표 III-22〉 자아탄력성 문항	50
〈표 III-23〉 우울감	50

〈표 Ⅲ-24〉 우울감 문항	51
〈표 Ⅲ-25〉 낮은 자기통제력(충동성)	52
〈표 Ⅲ-26〉 낮은 자기통제력(충동성) 문항	52
〈표 Ⅲ-27〉 게임중독성	53
〈표 Ⅲ-28〉 게임중독성 문항	53
〈표 Ⅲ-29〉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54
〈표 Ⅲ-30〉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문항	54
〈표 Ⅲ-31〉 부모애착	55
〈표 Ⅲ-32〉 부모애착 문항	56
〈표 Ⅲ-33〉 부모의 방임	56
〈표 Ⅲ-34〉 부모의 방임 문항	57
〈표 Ⅲ-35〉 신체적 학대	57
〈표 Ⅲ-36〉 신체적 학대 문항	58
〈표 Ⅲ-37〉 정서적 학대	58
〈표 Ⅲ-38〉 정서적 학대 문항	59
〈표 Ⅲ-39〉 친구의 수	59
〈표 Ⅲ-40〉 또래 애착	60
〈표 Ⅲ-41〉 또래 애착 문항	60
〈표 Ⅲ-42〉 친구 비행성향	61
〈표 Ⅲ-43〉 친구 비행성향 문항	61
〈표 Ⅲ-44〉 교사와의 관계	62
〈표 Ⅲ-45〉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63
〈표 Ⅲ-46〉 학습부적응	63
〈표 Ⅲ-47〉 지각빈도	64
〈표 Ⅲ-48〉 무단결석빈도	65
〈표 Ⅲ-49〉 두발·복장 등 규정 위반빈도	65

〈표 Ⅲ-50〉 숙제를 하지 않은 빈도	66
〈표 Ⅲ-51〉 수업을 무단으로 빠진 횟수	66
〈표 Ⅲ-52〉 선생님에게 반항한 빈도	67
〈표 Ⅲ-53〉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67
〈표 Ⅲ-54〉 지역사회 유대	68
〈표 Ⅲ-55〉 지역사회 유대 문항	68
〈표 Ⅲ-56〉 비공식 통제	69
〈표 Ⅲ-57〉 비공식 통제 문항	69
〈표 Ⅲ-58〉 물리적 무질서	70
〈표 Ⅲ-59〉 물리적 무질서 문항	70
〈표 Ⅲ-60〉 사회적 무질서	71
〈표 Ⅲ-61〉 사회적 무질서 문항	71
〈표 Ⅲ-62〉 친아버지가 돌아가심	72
〈표 Ⅲ-63〉 친어머니가 돌아가심	72
〈표 Ⅲ-64〉 친부모님의 별거	73
〈표 Ⅲ-65〉 친부모님의 이혼	73
〈표 Ⅲ-66〉 친아버지의 재혼 (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심)	74
〈표 Ⅲ-67〉 친어머니의 재혼 (또는 새아버지가 들어오심)	74
〈표 Ⅲ-68〉 친아버지의 가출	75
〈표 Ⅲ-69〉 친어머니의 가출	75
〈표 Ⅲ-70〉 친아버지의 사업실패	76
〈표 Ⅲ-71〉 친어머니의 사업실패	76
〈표 Ⅲ-72〉 친아버지의 실직	77
〈표 Ⅲ-73〉 친어머니의 실직	77
〈표 Ⅲ-74〉 친아버지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78
〈표 Ⅲ-75〉 친어머니의 오랜 병상생활 (질병, 교통사고 등)	78

〈표 Ⅲ-76〉 기억에 남을 만한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	79
〈표 Ⅲ-77〉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79
〈표 Ⅲ-78〉 친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음	80
〈표 Ⅲ-79〉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80
〈표 Ⅲ-80〉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81
〈표 Ⅲ-81〉 이사 등으로 전학함	81
〈표 Ⅲ-82〉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82
〈표 Ⅲ-83〉 대안학교에 다님	82
〈표 Ⅲ-84〉 검정고시를 공부를 함	83
〈표 Ⅲ-85〉 직업기술을 배움	83
〈표 Ⅲ-86〉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84
〈표 Ⅲ-87〉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	84
〈표 Ⅲ-88〉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85
〈표 Ⅲ-89〉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85
〈표 Ⅲ-90〉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86
〈표 Ⅲ-91〉 가출하여 친구 집이나 PC방에서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86
〈표 Ⅲ-9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87
〈표 Ⅲ-93〉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87
〈표 Ⅲ-94〉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의 수	88
〈표 Ⅲ-95〉 학업 중단 이후 진로 상담자 (복수응답)	89
〈표 Ⅲ-96〉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90
〈표 Ⅲ-97〉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90
〈표 Ⅲ-98〉 공공기관 (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91
〈표 Ⅲ-99〉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다님	92
〈표 Ⅲ-100〉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평균시간 ...	93

〈표 Ⅲ-101〉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하여 일함	93
〈표 Ⅲ-102〉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면서 지내는 평균시간	94
〈표 Ⅲ-103〉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개인공부	94
〈표 Ⅲ-104〉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평균시간	95
〈표 Ⅲ-105〉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냄	95
〈표 Ⅲ-106〉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평균시간	96
〈표 Ⅲ-107〉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을 다님	96
〈표 Ⅲ-108〉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할애하는 평균 시간	97
〈표 Ⅲ-109〉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님	97
〈표 Ⅲ-110〉 내가 하루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평균시간	98
〈표 Ⅲ-111〉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아침식사를 함	98
〈표 Ⅲ-112〉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점심식사를 함	99
〈표 Ⅲ-113〉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저녁식사를 함	99
〈표 Ⅲ-11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3회 이상 먹었다.	100
〈표 Ⅲ-115〉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100
〈표 Ⅲ-116〉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 다.	101
〈표 Ⅲ-117〉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101
〈표 Ⅲ-118〉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102
〈표 Ⅲ-119〉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102
〈표 Ⅲ-120〉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103
〈표 Ⅲ-121〉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104

〈표 Ⅲ-122〉 성적인 놀림 당하기	104
〈표 Ⅲ-123〉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105
〈표 Ⅲ-12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기 (상납)	106
〈표 Ⅲ-125〉 심하게 얻어맞기 (폭행)	107
〈표 Ⅲ-126〉 성폭력 당하기	107
〈표 Ⅲ-127〉 담배 피우기	108
〈표 Ⅲ-128〉 술 마시기	109
〈표 Ⅲ-129〉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110
〈표 Ⅲ-130〉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110
〈표 Ⅲ-131〉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뺑 뜯기)	111
〈표 Ⅲ-132〉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보기	112
〈표 Ⅲ-133〉 돈 내기 · 도박해 보기 (인터넷 포함)	113
〈표 Ⅲ-134〉 자살 시도	113
〈표 Ⅲ-135〉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114
〈표 Ⅲ-136〉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 유무	115
〈표 Ⅲ-137〉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횟수	116
〈표 Ⅲ-138〉 성별 이전의 처분경험 유무	116
〈표 Ⅲ-139〉 연령별 이전 처분경험 유무	117
〈표 Ⅲ-140〉 이번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복수 응답)	117
〈표 Ⅲ-141〉 성별 이번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복수 응답)	118
〈표 Ⅲ-142〉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이번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복수 응답)	118
〈표 Ⅲ-143〉 연령별 이번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복수 응답)	119
〈표 Ⅲ-144〉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119
〈표 Ⅲ-145〉 성별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120
〈표 Ⅲ-146〉 이전 처분경험유무별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120

〈표 Ⅲ-147〉 연령별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121
〈표 Ⅲ-148〉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122
〈표 Ⅲ-149〉 성별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122
〈표 Ⅲ-150〉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123
〈표 Ⅲ-151〉 연령별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123
〈표 Ⅲ-152〉 공범자들 간의 관계	124
〈표 Ⅲ-153〉 성별 공범자들 간의 관계	124
〈표 Ⅲ-154〉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공범자들 간의 관계	125
〈표 Ⅲ-155〉 연령별 공범자들 간의 관계	125
〈표 Ⅲ-156〉 보호관찰을 받게 된 행위의 가장 주된 이유	126
〈표 Ⅲ-157〉 성별 보호관찰을 받게 된 행위의 가장 주된 이유	127
〈표 Ⅲ-158〉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보호관찰을 받게 된 행위의 가장 주된 이유	128
〈표 Ⅲ-159〉 연령별 보호관찰을 받게 된 행위의 가장 주된 이유	128
〈표 Ⅲ-160〉 보호처분을 받을 행위를 할 당시의 거주지	129
〈표 Ⅲ-161〉 성별 보호처분을 받을 행위를 할 당시의 거주지	130
〈표 Ⅲ-162〉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보호처분을 받을 행위를 할 당시의 거주지	130
〈표 Ⅲ-163〉 보호처분을 받을 행위를 할 당시의 거주지	131
〈표 Ⅲ-164〉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	131
〈표 Ⅲ-165〉 성별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복수 응답)	132
〈표 Ⅲ-166〉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복수 응답)	132
〈표 Ⅲ-167〉 연령별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복수 응답)	133
〈표 Ⅲ-168〉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134
〈표 IV-1〉 심층면접 조사대상자의 특성	141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5
【그림 III-1】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향후 진로계획	91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소년범죄자 수는 최근 5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1년에는 83,068명에 이르고 있다(법무연수원, 2013: 108). 그러나 소년범죄자 중 전과가 없는 비율은 2007년 68.5%에서 2011년에는 59.5%로 감소한 반면, 전과가 있는 비율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과 4범 이상인 비율은 같은 기간에 6.9%에서 12.0%로 증가하였다(법무연수원, 2013: 126). 이는 소년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범죄자의 전과예방을 위해서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비행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학교요인들이 없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활동(unstructured activity)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이는 재비행 가능성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¹⁾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보면 양종국과 김충기(2002)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최초결석시작 학년이 재비행과 관련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송순용과 양철호(2009)는 비행에 노출되었지만 재적응하게 된 청소년들은 무엇보다 학교에 남아있음으로써 재사회화가 용이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생활에의 적응이 재사회화와 관련되는 반면, 학교생활 부적응, 더 나아가 학업중단이 재비행과 관련됨을 시사해 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비행청소년 중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들의 재적응 및 재비행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드문 편이다.²⁾

1) 참고로 McHale, Crouter and Tucker(2001)는 실외에서 노는데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문제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가 성인에 의해 감시되지 않는 환경에서 동료와 어울리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2) 참고로 김범구(2012)는 최근 10년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에 관련되는 요인을 연구한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 특히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학업중단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특성,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재비행(혹은 사회 적응) 및 관련 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중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상이라는 점, 시설 내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변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 연구는 3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종단조사이며, 2013년도에는 1차년도 연구에 해당된다. 이번 1차년도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패널을 구축하고, 이들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며, 이차년도와 삼차년도에는 이들의 변화과정, 재비행(혹은 사회 적응) 및 관련요인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2013년도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학업중단실태 및 경험 등에 파악해 보고자하며, 이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비교해 봄으로써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구축한 패널 자료이다. 이들의 학업중단 관련실태와 학업중단 전후의 생활, 개인적·환경적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비교해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구체화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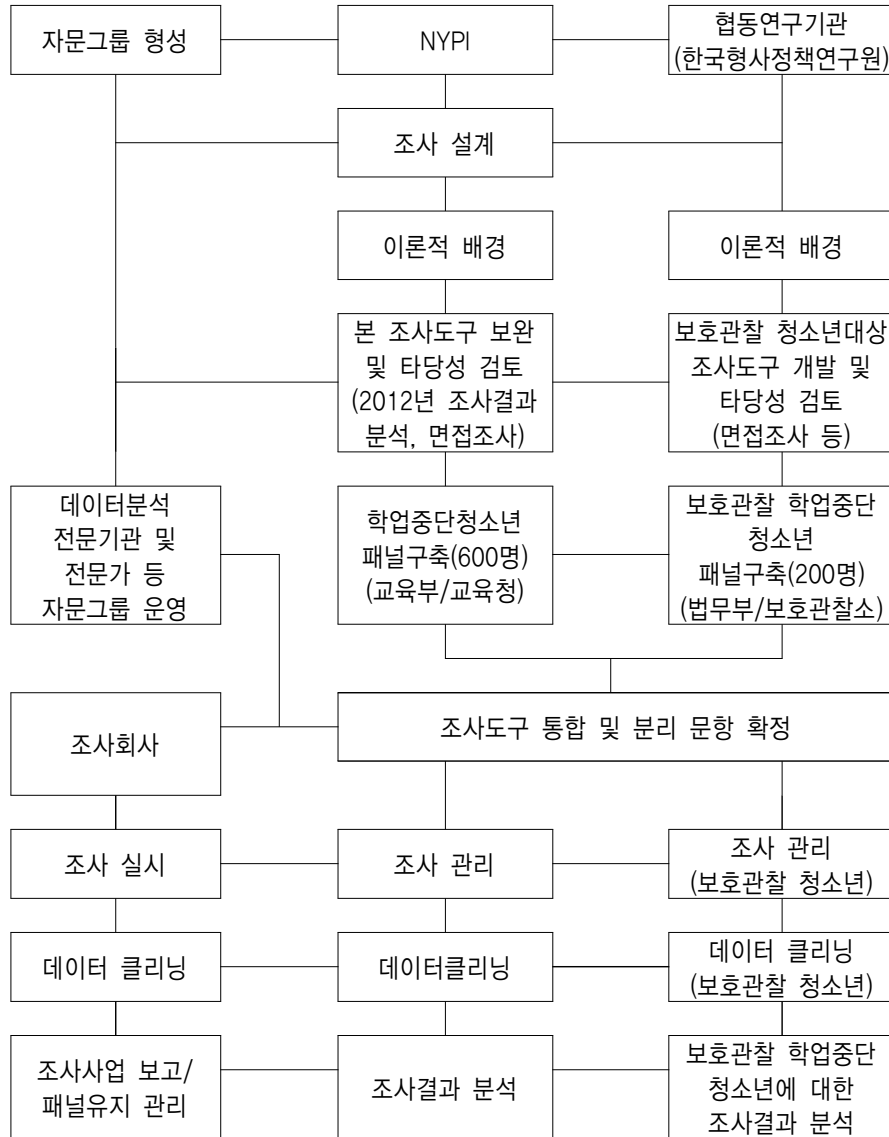
둘째,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피해와 가해경험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피해, 가해 경험을 비교해 봄으로써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변화 양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횡단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긴 하지만, 학업중단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재비행이나 피해 실태는 2014, 2015년도 조사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셋째, 학업중단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들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2차년도 설문지 개발을 위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학업중단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적응을 돕는 지원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60%대이며,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응에 관련되는 요인을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 연구추진체계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보호관찰대상 소년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법적 비행청소년 중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된 청소년은 조사가 실시되는 3개년 동안 변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사대상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한정하였다. 여기서의 조사는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대상 설문조사에서 사용되는 문항 중 상당수를 공통문항으로 사용하며, 이 외에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상황을 고려한 질문들을 추가로 구성하였다([그림 I-1] 참고).

3. 연구내용

1)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패널구축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3개년에 걸쳐 패널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이후 삶의 경로를 분석해 봄으로써 이들의 재적응을 돕고 재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관련 자료 검토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학업중단의 원인 등에 대해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에 대해 기존 범죄학 이론들을 통해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파악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현황 및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생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심리적 특성, 가족·친구·지역사회 특성, 일상 활동, 생애사건 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비교해 봄으로써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특성 등에 대해 파악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보고, 이를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게 된 비행특성, 보호관찰 관련 사항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의 비행특성, 지원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들의 필요에 맞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5)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 제시

기존의 선행연구검토와 설문, 면접조사 자료를 토대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사회 재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반적 실태 및 특성을 다룬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또한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의 범죄학이론을 통해 논의를 정리해 보았으며,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2)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

이 연구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종단조사이므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2013년도 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첫 번째 조사이며,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13년도 연구에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조사는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을 통해서 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2014년도 설문지 보완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조사는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인천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등 4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각각 3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연구자가 해당 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면접대상자와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3) 보호관찰 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중고생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참고로 소년법상 비행소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지만, 현실적으로 학업중단이 시작되는 시기인 중학생 연령대 이상을 대상으로 함)으로 하였다. 또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개년의 종단적 조사를 위해서는 패널 확보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보호관찰대상자(최대 2년)이면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2014년도 조사에서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조사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나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내용 등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13년도에 조사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2014년도 조사시점에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일 것이므로 2014년도 조사에서도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2015년도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종단조사를 수행하는 한국리서치에서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패널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그래서 조사대상자들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시기가 되는 2015년도에도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촉 및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연구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일반 학업중단청소년의 조사대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이 발생하는 학교에서 조사대상자 명부를 확보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조사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비확률표집이었다.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발생한 정규 중고등학교 학업중단자를 대상으로 확보한 명단 수는 총 938개였으며, 이 중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발생하여서 목표표본수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노우볼링, 웹 홍보,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이번 보고서에 분석대상이 된 조사대상자수는 474명이었다.

표 I -1 보호관찰소별 회수현황

보호관찰소명	회수부수	폐기부수	최종부수	회수일
인천보호관찰소	24	4	20	7월 24일
대전보호관찰소	24	1	23	7월 26일
전주보호관찰소	24	7	17	7월 29일
의정부보호관찰소	24	4	20	7월 29일
광주보호관찰소	24	2	22	7월 30일
부산보호관찰소	24	7	17	8월 1일
대구보호관찰소	24	5	19	8월 6일
서울보호관찰소	24	8	16	8월 26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24	4	20	8월 26일
수원보호관찰소	24	2	22	9월 2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	30	0	30	9월 9일
전체	270	44	226	-

조사대상지역은 수도권에 보호관찰청소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도권에서 6곳을 선정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 규모가 비교적 큰 보호관찰소 5곳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인천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와 그 밖의 주요 지역에 해당하는 대전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등 11개 기관이다. 애초에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제외한 10개 기관에서 각각 24명씩 총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애초 목표는 200명이었지만 폐기될 부수가 있을 것을 고려해서 총 2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폐기부수가 예상보다 많아져서 추가로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3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총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폐기부수를 제외한 최종완료부수는 226부였다. 데이터 입력 및 패널의 관리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였으며, 한국리서치에서 설문지 검수 과정에서 응답자와 접촉되지 않는 36명을 제외하여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총 1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향후에는 응답자가 접촉되지 않는 36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가능한 사례들을 패널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9월초까지 회송을 완료하였다.

조사방법을 보면, 해당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패널의 관리 및 성실한 조사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조사전문기관에서 직접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보호관찰소 입장에서 보호소년을 외부에 노출시키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관찰 담당직원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보호관찰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의 취지 및 설문지에 대한 내용, 설문조사에서의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교육시켰으며, 조사대상자에게 패널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입장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 죄명 및 관련 사항을 적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러한 사항을 기입할 경우 다른 설문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비행관련 내용은 보호관찰 담당직원이 적도록 한다는 것을 알린 후 보호관찰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담당직원이 기록을 보고 해당내용을 기입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조사대상자가 설문지를 작성한 후 바로 본인이 A4봉투에 담아 밀봉하도록 하였으며, 겉봉투에 이름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보호관찰관이 해당 청소년의 보호관찰 내용 등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A3봉투에 넣도록 하였다. 각 보호관찰소별로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우편으로 회수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지 구성을 보면,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부모·친구관계·지역사회 특성, 일상 활동 및 미래에 대한 태도, 생애사건 경험, 문제행동, 배경요인, 보호관찰 관련 사항 등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보호관찰 관련 사항을 제외한 9개 영역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수행하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단조사와 동일한 영역이다. 다만 구체적인 문항에서 일부 제외된 것이 있으며, 보호관찰 관련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 및 출처는 다음 <표 I-2>와 같다.

표 I-2 설문조사영역 및 주요 내용

대 요 요	세부 영역	조사내용	문항 분류 3)	문항번호		출처	조사 연도	본 패널과 비교집단
				A형	B형			
학 업 중 단 관 련 실 태	현재 신분 상태	중단/복교상태	□	1	-	신규	계속	-
	학 업 중 단 실 태	학업중단 시점	●	2,2-1	1,1-1	윤철경외(2010) 문 4-1 수정	1차 년도	비행
		학업중단 기간	●	3	2	윤철경외(2010) 문 6		
		학업중단 이유	●	4	3	윤철경외(2010) 문 8 수정		
		학업중단 행정처리 형태	●	5	4	윤철경외(2013) 문 4 수정		
		학교성적수준	●	6	5	윤철경외(2013) 문 10 척도 수정		
		학업중단 횟수	●	7	6	윤철경외(2013) 문 5		
	복 교 관 련 실 태	최초 학업중단	●	8	7	신규	1차 년도	비행
		최초 학업중단 시점	●	8-1	7-1	윤철경외(2013) 문 5-1	1차 년도	비행
		최초 중단 후 복교 소요기간	●	8-2	7-2	윤철경외(2013) 문 5-2		
		최초 중단 후 학교 복귀 이유	●	8-3	7-3	윤철경외(2013) 문 5-3 수정		
		복교 학교 유형	●	8-4	7-4	신규		
		종전 학교로 복교 하지 않은 이유	●	8-5	7-5	신규		
		복교학교 유형 및 소재지	●	8-6	7-6	신규	1차 년도	비행
	학 업 중 단 시 지 원 실 태	학업중단 시 상담자	●	9	8	윤철경외(2010) 문 9 수정	1차 년도	비행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	10	9	민인철외(2011) 문 10/학업중단 숙려 제 추가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	11	10	신규		
		학업중단 시 부모님 태도	●	12	11	신규		
		학업중단 시 선생님 태도	●	13	12	신규		

3) ●: A, B 공통, □: A형 설문(일반학업중단 청소년대상, △: B형 설문(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	14	13	윤철경외(2013) 문 8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	14-1	13-1	윤철경외(2013) 문 8-1			
개인적 특성	심리 정서	자아존중감	●	28-1) ~5)	24-1) ~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2) 문8	계속	학생/ 비행	
		자아탄력성	●	28-6) ~10)	24-6) ~10)	KCYPS(2010) 중1 패널 1차년도 문19 ②, ③, ⑥, ⑧, ⑫ 번 선정	계속	학생/비행	
		우울	●	29-1) ~10)	25-1) ~10)	KCYPS(2011) 중1 패널 2차년도 문18 ⑦~⑩번 선정	계속	학생/비행	
		충동성	●	29-11) ~15)	25-11) ~15)	Grasmick 등 (1993) 척도, 이희길(2006)	계속	비행	
	문제 행동 가· 피해 경험	피해경험(학업 중단전후)	●	41	36	KCYPS(2012) 중1 패널 3차년도 문23 수정	수정 계속	비행	
		문제행동 가해경험 (학업 중단전후)	●	42	3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2) 문6 수정	수정 계속	학생/비행	
		게임중독	●	30	2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2) 문3 ⑤~⑬	수정 계속	학생/비행	
	환경적 특성	부모 관계	부모 애착 (부모 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	●	31	27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2012) 문10 ②~⑥, ⑪, ⑫, ⑭ 수정	계속	학생/비행
			부모의 방임	●	32-1) ~5)	28-1) ~5)	허모연(2000) 방임만을 취하여 수정	계속	비행
부모의 학대(신체적, 정서적 학대)			●	32-6) ~9)	28-6) ~9)	KCYPS(2012) 중1 패널 3차년도 문25 ⑤~⑧번 수정	계속	학생/비행	
친구 관계		친한 친구 수	●	33	29	KYPS(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37-1	수정 계속	비행	
		학업중단 후 사귀 친구 수	●	33-1	29-1	윤철경외(2013) 문 19	계속	비행	
		학업중단 친구 수	●	33-2	29-2	신규	계속	비행	
		또래 애착	●	34-1) ~3)	30-1) ~3)	KCYPS(2012) 중1 패널 3차년도 문26 ④~⑥번 선정	수정 계속	학생/비행	

		친구의 비행성향	●	34-4) ~6)	30-4) ~6)	전 영 실 · 신 동 중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피 해 및 가해 연구. 15-4, 15-5, 15-6	수정 계속	학생/비행
	학교 및 학교 생활	중단 학교 현황 (유형/규모/지역)	□	명부 / 학교 정보				
		교사관계	●	16-1) ~3)	15-1) ~3)	아동청소년 정신건 강 증진을 위한 지 원방안 연구(2012) 문13 ④~⑥	1차 년도	학생/비행
		친구관계	●	16-4) ~7)	15-4) ~7)	아동청소년 정신건 강 증진을 위한 지 원방안 연구(2012) 문13 ⑦~⑨		
		학습 부적응 (수업참여)	●	16-8) ~ 10)	15-8) ~ 10)	한국교육종단연구 2008. 문36 ① ~ ③ 선정, 수정		
		훈육적 학교풍토	□	17-1) ~2)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10번 ③, ④번 선정 - 척도수정		-
		참여적 학교풍토	□	17-3) ~4)	-	신규		-
		학교규범 위반경험	●	18-1) ~7)	16-1) ~7)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문9. ①, ②, ③, ⑥, ⑨ 번 선정 - 신규 추가 '선생 님에게 대들었 음', '부모님 이 학교에 불려감' - 척도수정		학생/비행
	지역 사회	지역사회사회통합 (유대와 통제)	●	35-1) ~4)	31-1) ~4)	김 지 선 · 홍 영 오 (2011)	수정 계속	비행
		지역사회무질서 (물리적, 사회적)	●	35-5) ~8)	31-5) ~8)	김 지 선 · 홍 영 오 (2011)		
		지역사회유익환경	●	35-9) ~10)	31-9) ~10)	신규추가		
학업중 단 이후 경험과	중단 이후 경험	중단 후 경험실태	●	19-1) ~9)	17-1) ~9)	윤철경외(2013) 문 17 수정	계속	비행
		중단 후 주거 및 비행 경험	●	20-1) ~4)	18-1) ~4)	윤철경외(2013) 문 18 수정	계속	비행

인식		아르바이트 경험, 업종, 시간, 임금	●	21, 21-1,2	19, 29-1,2	KYPS(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25, 25-1의 ③, ④번	계속	비행
	사회 관계	중단이후 성인 멘토(만난 어른 유무, 만난 시설)	●	22	20	윤철경외(2013) 문 20-1 수정	계속	비행
	진로 계획	진로정보의 탐색	●	23	21	신규	계속	비행
		향후 진로 계획	●	24	22	KYPS(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 11-1, 수정	계속	-
		진로 계획 달성 예측	□	25	-	윤철경외(2013) 문 24	계속	-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	26	-	KYPS(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3.	계속	학생
	학업 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 관련 심리·정서	●	27-1) ~6)	23-1) ~6)	윤철경외(2013) 문 27의 ①,③,⑥,⑧, ⑨번 선정/ 5)신규	계속	비행
일상 생활 및 가치관	생활 시간	수면, 학습 및 일, 여가 시간	●	36	32	KCYPs (2012) 중 1패널 3차년도 문1 수정,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문33 참조	계속	학생/비행
	식생활	식사 습관, 인스턴트식품노출	●	37	33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문 5, 6, 7, 11 수정	계속	학생/비행
	가치관	학력에 대한 생각	□	38	-	KYPS(2007) 중2패널 5차년도 문12 ⑤, ⑥, ⑪번 선정 수정	계속	학생/비행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	●	39	34	전영실·신동준(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피해 및 가해 연구, 문2.	계속	비행
생애 사건 경험	최초 무단 결석 경험	무단 결석 여부	●	15	14	신규	1차년도	비행
		최초 결석 시작일	●	15-1	14-1	신규		
		최초 결석 이유	●	15-2	14-2	신규		
	20개 생애 사건	발생여부 및 처음 일어난 시기	●	40-1) ~ 20)	35-1) ~ 20)	KYPS(2005) 중2패널 3차년도 evt. 수정 - 20번으로 '이사 등으로 전학' 신규 추가		

보호관찰관 과 의 관계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	-	38	신규		-	
	이전 처분	이전 처분 유무 및 처분내용	△	-	별지 1, 1-1	신규	최근 1 년 간 처분유 무 처분내 용 조 사	-
	본범 특성 및 처우 현황	죄명, 처분내용, 부 가처분, 보호관찰 소에서 받는 지원, 공범유무 및 공범 자간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시 거주 상태, 보호관찰종료일, 보호관찰사건번호, 보호관찰 담당선생 님	△	-	별 지 2,3,4,5, 6, 6-1,78, 9, 10,11	신규	최 근 1 년 간 처분경 험있는 우 관 련 내 용 조 사	-
배경 문항	배경 문항	성별, 연령, 지역	●	설문지 표지	설 문 지 표지		지 역 , 가 족 구 성, 이 희 만 계 속	-
		가족구성, 부모 결 혼상태, 다문화가 정 여부, 부모학력, 이사 횟수, 가정경 제수준, 지역(시도 별, 도시규모별)	●	43,44, 45,46, 47,48	39,40,4 1,42,43 ,44			
총 문항수				2 6 3	2 6 7			

제 2 장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 논의

1. 학업중단의 원인과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
2.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

제 2 장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 논의

1. 학업중단의 원인과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학교’가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면서도 물리적 장소라는 의미가 강조된다면 ‘학업’은 시간이나 공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서의 의미 곧 공부라는 의미를 갖는다. 학교를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검정고시라든지, 대안시설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는 학교중단이지 학업중단은 아닌 것이다(금명자, 2008: 301). 실제 학교중도탈락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김혜영(2002)의 연구에서 면접대상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검정고시나 애니메이션 학원 등을 다니고 있었으며, 학교를 여전히 다니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이병환(2002: 175)은 ‘학업중단학생’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정규학교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에 대한 총칭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여타의 연구에서도 ‘학업중단자’는 학교의 정규과정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일컫는 말로 통용되고 있다.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검정고시학원, 쉼터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시기는 고등학교 1학년(35.4%), 중학교 1학년(17.5%), 고등학교 2학년(14.2%), 중학교 2학년(14.2%), 중학교 3학년(9.0%), 초등학교(5.2%),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상급학교에 진학한 직후 중도탈락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고등학교 입학 직후가 결정적인 시기임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기본통계에 나타난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05년에서 2012년까지 학업중단자 비율은 증가와 감소를 오가고 있어 딱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2005년에서 2011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던 학업중단자의 비율이 2012년에 0.1% 감소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 2005년과 2009년에 증가하던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2010년에 감소하고 다시 2011년에 증가했다가 2012년에 감소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II-1 학제별 학업중단률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 률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 률	재적 학생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 률
2012	3,132,477	19,163 (10,771)	0.6 (0.3)	1,910,572	17,811 (15,337)	0.9 (0.8)	1,943,798	37,391 (33,057)	1.9 (1.7)
2011	3,299,094	18,836 (10,404) →10,181 (사망자수 제외)	0.6 (0.3)	1,974,798	18,866 (16,509) →16,320 (사망자수 제외)	1.0 (0.8)	1,962,356	38,887 (34,091)	2.0 (1.7)
2010	3,474,395	11,634	0.3	2,006,972	15,736	0.8	1,965,792	34,540	1.8
2009	3,672,207	17,644	0.5	2,038,611	19,675	1.0	1,906,978	34,450	1.8
2008	3,829,998	20,450	0.5	2,063,159	20,101	1.0	1,841,374	32,943	1.8
2007	3,925,043	23,898	0.6	2,075,311	18,968	0.9	1,775,857	27,930	1.6
2006	4,022,801	18,403	0.5	2,010,704	15,669	0.8	1,762,896	23,076	1.3
2005	4,116,195	16,793	0.4	1,933,543	14,165	0.7	1,746,560	24,037	1.4

*출처: 2012년 「교육기본통계」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2013.11. 교육부(2013년 윤철경 연구에서 재인용)

주: 1) 학업중단률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X 100

2) 구분의 연도는 조사년도임(2012년도에 조사된 학업중단자는 2011. 3. 1 ~ 2012. 2. 29 기준이며 재적 학생수는 2011. 4. 1 기준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질병, 부적응, 품행, 가사, 기타임

5) 학업중단자에서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6)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2011 ~ 2012년의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임

통계를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증가일로에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앞서도 언급했듯이 학교를 중단하는 것이 반드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학력과 정규교육과정을 중시하면서 대안 교육이나

대안적 진로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비행의 길로 빠지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과 이수림(2004: 32)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는데,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을 중단한 이후 1년 동안 청소년은 급격히 비행화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처음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일없이 친구들과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았고, 고등학생은 주유소나 PC방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후, 중학생들은 초기 5.5%에 지나지 않던 보호관찰 청소년이 1년 후에는 10.8%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생활은 초기 2.6%에서 1년 후에는 5.0%로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초기에 5.4%였던 보호관찰이 13.4%로, 유흥업소 아르바이트가 2.6%에서 10.7%로 증가하였다. 문제를 안은 채 학교를 나간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학업중퇴는 청소년들에게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진로개척에 장애가 될 수 있고, 당장의 직장을 구하거나 미래의 직장을 구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데, 학업을 중퇴한 청소년이 비행에 연루되거나 조기에 교육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사회 복지 비용이나 범죄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킨다(Dryfoos, 1990: 김승규 2002에서 재인용: 26).

이숙영과 남상인(1997: 66-75)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분류하고 정착형을 다시 진학형, 취업형, 직업훈련생으로 비정착형을 시설수용형, 방치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착형이란 가족이나 학교에서 내면화한 가치관을 회복하여 인생을 설계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소년들이다. 진학형은 일정기간 방황하다가 학교에 복교하거나 검정고시학원,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대안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이들 중에 일부는 적응을 잘하고 있으나, 일부는 여전히 학업중퇴 당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직장취업형은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생활을 꾸려나가거나, 진로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사설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는 청소년들을 가리킨다. 한편 비정착형에 속하는 청소년들은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말한다. 이들 중에는 소년원, 보호관찰소, 병원 등에 수용되어 관리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들은 시설수용형으로 분류된다.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는 법에 따라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죠평년이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 등을 수용하거나,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청소년들, 소년원에서 가퇴원된 청소년, 소년교도소에서 가석방된

소년이 보호관찰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약물오남용,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으로 인하여 수용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방치형 청소년들이 있는데, 방치형에는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종사청소년, 가출청소년, 정신질환청소년 등이 속한다. 이들 중 특히 가출청소년은 학교중퇴에 이은 가출 또는 가출로 인한 학교중퇴로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의 청소년들이며 정신질환청소년들은 각종 정신질환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다(이숙영, 남상인, 1997: 73-74).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일부 청소년에게는 학업중단이 새로운 진로와 세계를 향한 도전일 수 있으나, 다수의 청소년들에서는 가정과 사회, 학교로부터 방치되는 원인이 되거나 거꾸로 이미 방치되어진 결과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학업중단의 원인

청소년의 학업중단 원인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연구에는 윤여각, 박창남, 잔병유와 진미석(2002: 금명자 2008에서 재인용: 305)의 연구가 있다. 윤여각 외(2002)는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정에 대한 불만, 둘째, 경제적 빈곤 유형, 셋째, 학교 인간관계의 불만족, 넷째, 교과공부에 대한 어려움, 다섯째, 교칙위반 등의 비행유형, 여섯째 건강 악화, 일곱째, 조기 유학·이민 등이다. 이러한 학업중단의 원인들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과 관련될 수 있는 특정 요인을 보여준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공격성이 학업중단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Kokko, Lacourse, Nagin과 Vitaro(2006: 410-411)은 6-12세의 남자아동 1,025명을 대상으로 공격성(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것,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 등)을 측정하고, 이들이 17세가 되었을 때 학업중단 여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아동기의 공격성이 청소년기의 학업중단과 관련됨을 발견하였다. 즉, 아동기에 공격성이 강할수록 학업중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는 공격성이 강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이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괴롭힘이 학업중단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수행되었다. Alike(2012: 528)는 미국 델타주에서 괴롭힘과 학업중단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보습교육시설에 재등록한 200명(남녀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를 보면 괴롭힘과 학업중단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에서의

괴롭힘 가해나 피해학생에 대한 카운슬링 등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학업중단의 이러한 원인들이 비교적 장기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데 반해 즉각적이고 표출적인 변인으로는 가출이 있다. 전경숙(2006: 7-9)의 연구에 의하면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입시와 학력위주의 학교환경에 부적응하게 되고 유사한 생활조건을 지닌 친구관계망 등이 이들을 가출로 유인하게 되는데, 가출후의 생활을 위해 일을 하게 되면서 학교를 규칙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된다고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부정적으로 보고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성취동기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갑수, 1993: 140). 또한 지적·신체적 능력에 결함이 있는 경우가 많고, 여성보다는 남성의 중퇴율이 높으며, 소수민족의 학업중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Janosz, LeBlanc, Boulerice, & Tremblay, 1997: 740-746).

또한 결손, 이혼, 별거, 재혼과 같은 가족의 구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며(Janosz, LeBlanc, Boulerice, & Tremblay, 1997: 738), 중퇴를 경험한 가족구성원 존재, 부모의 음주나 폭력 등의 문제행동과 잦은 이사문제가 중퇴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며,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이나 가정의 경제적 문제(Ensminger, & Slusarcick, 1992: 101)도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성적이 낮고, 교칙을 위반하여 근신, 정학을 받거나 학교 내 또래들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지각, 무단결석을 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ranklin, 1992: 340-341).

한편 한국적 상황에서는 학업중단을 입시제도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안현의, 2002).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의 중도탈락 연구 결과나 관점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부적절하고,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서구의 이론들이 비행과 병리적 관점으로 중도탈락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병리적 관점이 우리 나라의 중도탈락 청소년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중도탈락하는 청소년들 가운데는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미국 등지에서 이루어진 중도탈락 연구들이 우리 사회에는 없는 인종별 사회경제적 계층화라는 사회구조적 문제 위에 이루어지듯이,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의 중도탈락 연구에는 입시제도와 같은 요인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26-27). 안현의 외(2002: 25)의 연구에서 실제로 중도탈락한 청소년과 재학생의 심리상태 조사에서 두 집단 간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정도에도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며, 진로의식에도 차이가 없었다. 그 외에도 슬픔, 죽고 싶음, 만족, 외로움, 평온, 화남, 즐거움,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상태 또한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무기력한 상태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중도탈락한 청소년의 무기력감이 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앞의 문항 결과에서 나온 대로 중도탈락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 계획을 실행시키는데 지체되는 기간이 길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즉, 다니던 학교를 나온 이후에 자신이 계획했던 바가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안현의 외, 2002: 25).

끝으로 학업중단의 원인에 있어 사회적, 시대적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시대 변화에 따라 학업중단의 원인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2005: 13-14).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욕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를 떠나 그들이 성취하고 싶은 것은 '원하는 직업이나 진로선택'(33.5%), '경제적 자립'(12.3%), '원하는 학교의 진학'(10.4%), '새로운 인간관계'(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가장 필요했던 도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안학교'(25.9%), '진로상담'(20.5%), '심리상담'(20.5%) '중퇴이후 실생활에 대한 정보제공'(15.2%), '부모상담'(8.9%)의 순으로 나타났다(안현의 외, 2002: 20). 즉 이들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자신의 진로와 장래에 관해 일정한 계획과 열망이 있는 것이다. 금명자 등(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29-35)의 연구에서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26.9%), '검정고시 준비'(13.4%), '기술을 배워 사회에 빨리 진출하고 싶다'(13.4%), '내가 원하는 분야의 전문성 배양'(13.4%)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이 받고 싶은 도움으로는 '검정고시 준비'(22.8%), '복학 절차의 안내'(19.3%)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에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타인의 지지'(친구, 교사, 친척) (21.7%),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17.4%), '가족지지'(14.5%), '미래낙관적 믿음'(13.8%), '구체적인 진학, 취업준비'(11.6%), '경제적 자립'(8.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은 상대로는 친구 (39.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 (19.1%), 상담선생님 (15.7%), 형제자매 (6.7%), 친척 (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담가로부터의 도움을 받는다면 진로문제 (23.3%), 학업문제 (15.1%), 가족문제 (13.7%), 심리적 문제 (13.7%), 금전문제 (11.6%)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안현의 외, 2002: 21-22).

2.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

1) 학업중단과 비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범죄학 이론을 통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학업중단 이후 비행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사회통제이론이 있다.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학교는 효율적인 사회통제기관 중의 하나이나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은 더 이상 학교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게 되므로 중퇴생은 학교에 남아 있는 다른 청소년들보다 비행발생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준호, 이동원, 박미성, 1993: 36). 사회통제이론에 의하면, 학교는 교사나 다른 학생들과의 유대를 통하여 긍정적 가치와 목표를 전하는 중요한 사회제도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중퇴자는 이러한 유대들이 끊어져서 범죄를 더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Rumberger, 2012: 98). 사회통제이론은 애착, 관여, 참여가 비행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Akers and Sellers, 2004: 182).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학업중단을 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친구에 대한 애착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면서 사회통제가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 교육을 위한 노력이 관여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볼 때(Akers and Sellers, 2004: 184-185) 학업중단은 이러한 관여가 없어짐으로 인해 사회통제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가 통상적 활동에 열중하는 것이라고 볼 때(Akers and Sellers, 2004: 185), 학업중단은 학교생활에의 참여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그만큼 사회통제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통제이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학업중단으로 학교와 관련된 유대가 단절됨으로써 비행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업중단 이후 비행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이론으로 아노미/긴장이론이 있다. “긴장이론의 논리는,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은 중간계층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학교에 적응하거나 중간계층의 학생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며 자신이 살고 싶은 문화환경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므로 비행유발동기가 감소되어 비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김준호 외, 1993: 36). 긴장이론 입장에서 볼 때, 학교에서 학업, 사회적 실패를 경험하는 중퇴위험에 처한 학생들은 학교를 떠날 경우 긴장의 근원이 사라지므로 범죄를 덜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Rumberger, 2012: 98). 그러나 아노미/긴장이론의 입장에서 볼 때 학업중단으로 학교생활에서의 긴장은 감소할 수 있지만, 학업중단이 가져오는 긴장발생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준호 등(1993)도 우리나라의 현상에 보다 더 적절한 것은 긴장이론보다는 통제이론의 가설이라고

제시하고 있다(김준호 외, 1993: 38). 이렇게 본다면 학업중단은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중단과 피해와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범죄학이론 중 범죄피해를 설명하는 일상활동이론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상활동이론에 의하면 범행동기를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적절한 대상이나 잠재적 피해자가 있고, 잠재적 범법자를 억제할 수 있는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감시가 없을 때 범죄가능성은 증가한다는 것이다(Akers and Sellers, 2004: 67). 학업중단 청소년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공식적, 비공식적 감시가 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범죄피해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학업중단과 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가해 및 피해를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살펴 본 연구가 있다. Beauvais, Chavez, Oetting, Deffenbacher와 Cornell(1996)은 멕시코계 미국인, 아메리카 인디언, 백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중퇴자,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 학업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의 약물사용, 폭력가해 및 피해를 비교하였다. 이들은 2,015명(멕시코계 미국인 남자 654명, 여자 398명/아메리카 인디언 남자 202명, 여자 302명/백인 미국인 남자 240명, 여자 21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세 집단 각각을 보면 1/3은 중퇴자, 1/3은 학교를 다니지만 심각한 학업문제를 가진 학생, 1/3은 학업성적이 좋은 학생으로 구성하였다(Beauvais, Chavez, Oetting, Deffenbacher and Cornell, 1996: 293).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중퇴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약물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퇴자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폭력가해와 피해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사용, 폭력가해와 피해가 중퇴자 다음으로 많은 집단은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집단이었으며, 학업성적이 좋은 집단은 약물사용, 폭력가해와 피해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퇴자와 학생간의 차이는 세 민족집단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들은 이 연구결과를 통하여 중퇴자에 대한 개입은 민족집단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중퇴자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약물사용, 폭력가해와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다차원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Beauvais, Chavez, Oetting, Deffenbacher and Cornell, 1996: 298).

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재적응이나 비행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여기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적응에 대한 연구, 비행청소년의 재적응이나 재비행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에 속한 연구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적응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적응을 돕기 위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후자에 속한 연구들은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들을 구분하여 다룬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관련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에 속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희, 이현진과 황수진(2011)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 복학한 청소년들의 학교 재적응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36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의 학업중단 시기를 거쳐 학교로 복귀한 18-19세 전문계 고등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학교 재적응 과정 전반에 부모, 친구, 교사, 전문가의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내었다. 또한 학교 재적응으로 나타난 결과는 학교규칙에의 순응, 교사와의 관계 호전, 공부에 흥미 가짐 등 학교생활에의 적응뿐만 아니라 비행중단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도 학교복귀, 주변의 지원이 재적응 및 재비행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후자에 속한 연구들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이나 재적응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학교생활의 부적응이나 학업성취가 중퇴, 비행, 재비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다. Katsiyannis, Ryan, Zhang, and Spann(2008)은 기존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년비행과 재범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학업성취도와 비행(혹은 재범)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세우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불충분한 학업수행이 아동의 행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초기 문제행동은 불충분한 학업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재범율이 낮은 학업성취와 상관관계가 높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학업성취가 높고, 학교생활에 성공적인 것이 비행과 재범을 막는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Henry, Knight and Thornberry(2012)는 학교 이탈(school disengagement)과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중퇴, 비행, 약물남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에서 학교이탈 경고지표는 표준화된 시험점수(하나 이상의 과목에서 충분하지 않은 점수), 출석(20% 이상 결석하는 것), 하나 이상의 주요 과목에서의 낙제, 한 번 이상의 정학, 유급(grade retention)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의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기 중기, 청소년기 후기, 초기 성인기 중퇴, 심각한 비행, 범죄에 대한 8, 9학년의 학교이탈 경고지표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이탈 경고지표는 중퇴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행동과 강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중퇴 더 나아가 이후 비행이나 성인기의 범죄에까지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Ryan 외(2008), Henry 외(2012)의 연구는 학교생활의 성공 혹은 부적응이 중퇴뿐만 아니라 비행, 재비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재적응, 재비행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성공적인 재적응이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요인들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송순용과 양철호(2009)는 보호관찰 종료 후 2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청소년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비행소년의 재적응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행에 노출되었지만 사회에 재적응한 소년들은 무엇보다도 학교에 남아 있음으로써 재사회화가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라는 틀 내에서 재사회화가 보다 용이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에서 활동하며, 도움을 주는 외부 사람들에 대해 편안하게 접근하며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비행소년의 재적응을 위해서는 사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옥채와 이정미(2006)는 소년원에 2회 이상 입원한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재비행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재비행 청소년들은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살아갈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나와서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비행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좋지 못한 부모와의 관계, 주변으로부터의 유혹이나 낙인찍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친 부류로는 기능이 약한 가족, 도움이 안 되는 친구, 낙인찍는 학교, 도움받을 수 없는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이나 학교, 그 밖의 지역사회로부터의 지지 등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와 관련해서 보면, 학업중단이 비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학교생활에서의 부정적 낙인 역시 재비행으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김성곤(2005)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재비행과 관련될 수 있는 가정, 학교, 사회환경, 개인 심리적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7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한 5,3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51.4%에 해당하는 2,730명이 재비행을 한 소년들이었다. 재비행과 관련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가정적 요인 중에서는 부의 훈육방식(방임일 때 재비행이 가장 많았음)이 재비행과 관련되었다. 학교관련 요인을 보면, 학업에 대한 희망이 재비행과 관련되었다. 즉 학업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는 동기가 강할수록 재비행이 적은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퇴학의 경우 재비행이 높게 나타나서 학업중단으로 인한 좌절이나 소외감 등이 재비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종국과 김충기(2002)는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있는 청소년 872명을 대상으로 하여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연구에서 위험요인을 보면, 개인적 요인으로는 반사회적인 성향, 공격성, 우울증,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정 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학교 및 지역사회 위험요인으로는 지역사회의 낮은 지지와 위험 환경, 학업 실패 등이 포함되었다. 보호요인을 보면,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개념, 자기통제, 가족적 요인으로 부모자녀간의 애착, 지지, 학교/지역사회 보호요인으로 교사나 이웃의 지지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를 보면, 위험요인 중에서 최초 결석시작, 학년, 가출횟수, 약물경험, 우울증, 반사회적 성향이 재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 중에서는 자아존중감, 가족의 지지, 교사의 지지가 재비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보면, 재비행과 관련되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비행과 관련되는 요인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초 결석 시작이 재비행과 관련되어서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의 결과들을 보면, 학업을 지속하는 것 혹은 학업을 계속하려는 의지 등이 재비행을 막는데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학업중단 뿐만 아니라 비행, 재비행, 성인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업중단 뿐만 아니라 비행, 재비행 예방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중단이 비행 가해나 피해와 관련될 수 있다는 기존 논의를 고려한다면,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되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재비행이나 피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의 변화과정을 다루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종단적 연구는 이들의 특성과 변화과정, 특히 이들의 적응이나 재비행 및 관련요인들을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 및 적응을 돕고, 궁극적으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될 것이다.

제 3 장

설문조사에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1. 조사대상의 특성
2. 학업중단관련 실태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 · 환경적 특성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5. 학업 중단과 문제행동
6. 보호관찰청소년의 범죄경험과
 지원 실태
7. 소결

제 3 장

설문조사에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1. 조사대상의 특성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패널연구로서, 1차년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 474명,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보호관찰청소년)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에 나타난 조사대상의 인구사회적 특성, 가정 및 학교특성, 학업중단관련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남학생 57.8%, 여학생 42.2%로 남학생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남녀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남학생 75.8%, 여학생 24.2%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연령별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만 13세부터 15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령보다 만 16세부터 18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학령의 비율이 각각 88.6%, 88.9%로 가장 높았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19세 이상 학생도 일부 조사에 포함되었다.

셋째, 가족구성의 측면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양부모 가정 60.3%, 한부모 가정 28.1%,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 11.6%인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양부모 가정 46.3%, 한부모 가정 38.9%,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 14.7%로 나타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 모두 안 계신 가정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넷째, 가정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수준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상 28.3%, 중 39.5%, 하 32.3%로 나타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상 12.1%, 중 42.1%, 하 45.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정경제수준이 중하의 수준이 높은 편이며, 보호관찰청소년의 가정경제수준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상 23.0%, 중 24.5%, 하 52.5%인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상 5.8%, 중 13.7%, 하 80.5%로 나타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성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1 설문조사대상의 특성

(단위: 명, %)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보호관찰 청소년		계	
		명	%	명	%	명	%
전 체		(474)	71.4	(190)	28.6	(664)	100.0
성별	남학생	(274)	57.8	(144)	75.8	(418)	63.0
	여학생	(200)	42.2	(46)	24.2	(246)	37.0
연령대	중등학령(13-15세)	(42)	8.9	(21)	11.1	(63)	9.5
	고등학령(16-18세)	(420)	88.6	(169)	88.9	(589)	88.7
	19세이상	(12)	2.5	(0)	0.0	(12)	1.8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286)	60.3	(88)	46.3	(374)	56.3
	한부모가정	(133)	28.1	(74)	38.9	(207)	31.2
	모두안계심	(55)	11.6	(28)	14.7	(83)	12.5
주관적 경제수준	상	(134)	28.3	(23)	12.1	(157)	23.6
	중	(187)	39.5	(80)	42.1	(267)	40.2
	하	(153)	32.3	(87)	45.8	(240)	36.1
주관적 학업성적	상	(109)	23.0	(11)	5.8	(120)	18.1
	중	(116)	24.5	(26)	13.7	(142)	21.4
	하	(249)	52.5	(153)	80.5	(402)	60.5
학업중단 시점	초중학교때	(109)	23.0	(82)	43.2	(191)	28.8
	고등학교때	(365)	77.0	(108)	56.8	(473)	71.2
학업중단 기간	1년미만	(258)	54.4	(62)	32.6	(320)	48.2
	1년이상~2년미만	(161)	34.0	(74)	38.9	(235)	35.4
	2년이상	(55)	11.6	(54)	28.4	(109)	16.4
학업중단 사유	어려운 가정형편	(86)	18.1	(32)	16.8	(118)	17.8
	학교부적응	(273)	57.6	(133)	70.0	(406)	61.1
	대안교육 희망	(115)	24.3	(25)	13.2	(140)	21.1

여섯째, 학업중단의 시점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초·중학교 때라는 응답이 23.0%, 고등학교 때라는 응답이 77.0%이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초·중학교 때라는 응답이 43.2%, 고등학교 때라는 응답이 56.8%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이 학업중단 시기가 좀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업중단의 기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1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54.4%로 절반 이상인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업중단 기간에 있어서도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다소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학업중단의 사유에 있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57.6%)과 일반보호관찰청소년(70.0%) 모두 학교부적응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에는 대안교육을 위해서 그만두었다는 응답(24.3%)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2. 학업중단관련 실태

1) 학업중단시기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시기를 비교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일반계 고등학교 때(42.6%)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보호관찰대상자인 학생은 중학교 때(43.2%)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Ⅲ-2 학업중단시기 (단위: 명, %)

학업중단시기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중학교 때	109 (23.0)	82 (43.2)	191 (28.8)
일반계 고등학교 때	202 (42.6)	62 (32.6)	264 (39.8)
전문계 고등학교 (현행 특성화고) 때	163 (34.4)	46 (24.2)	209 (31.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7.032^{***}$ ($df=2$), $p<0.1$ ** $p<0.05$ *** $p<0.01$

2) 학업중단이유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이유를 비교해본 결과, 학업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7.7%), ‘공부하기 싫어서’(14.6%),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1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공부하기 싫어서’(17.4%)가 가장 많았고,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13.7%), ‘검정고시를 하려고’(11.1%)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3 학업중단이유

(단위: 명, %)

1순위 기준	일반	보호관찰	복수 응답 기준	일반	보호관찰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84 (17.7)	26 (13.7)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224 (47.3)	78 (41.1)
공부하기 싫어서	69 (14.6)	33 (17.4)	검정고시를 하려고	155 (32.7)	69 (36.3)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50 (10.5)	5 (2.6)	공부하기 싫어서	141 (29.7)	90 (47.4)
검정고시를 하려고	43 (9.1)	21 (11.1)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127 (26.8)	20 (10.5)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41 (8.6)	16 (8.4)	선생님이 싫어서	94 (19.8)	56 (29.5)
건강상의 이유로	31 (6.5)	2 (1.1)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71 (15.0)	31 (16.3)
선생님이 싫어서	27 (5.7)	17 (8.9)	심리적 /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60 (12.7)	9 (4.7)
친구들이 싫어서	20 (4.2)	7 (3.7)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55 (11.6)	32 (16.8)
심리적 /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17 (3.6)	5 (2.6)	친구들이 싫어서	54 (11.4)	13 (6.8)

이어 학업을 중단한 이유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47.3%), ‘검정고시를 하려고’(32.7%)로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공부하기 싫어서’(47.4%),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41.1%)로 응답해 학업중단이유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였다.

3) 학업 중단 행정처리 형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형태를 비교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자발적 자퇴’의 형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각각 79.5%, 57.4%로 가장 높았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유예’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도 22.6%나 있었다.

표 III-4 학업중단형태 (단위: 명, %)

학업중단형태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자발적 자퇴 (내가 그만 둔 것)	377 (79.5)	109 (57.4)	486 (73.2)
권고 자퇴 (학교의 권고로 자퇴)	32 (6.8)	15 (7.9)	47 (7.1)
징계로서의 퇴학	13 (2.7)	14 (7.4)	27 (4.1)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	25 (5.3)	8 (4.2)	33 (5.0)
유예	25 (5.3)	43 (22.6)	68 (10.2)
기타	2 (0.4)	1 (0.5)	3 (0.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56.737^{***}$ ($df=5$), $p<0.1$ $p<0.05$ $p<0.01$

4) 학교복귀경험/이유

(1) 학교복귀경험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복학경험여부를 비교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복학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각각 83.8%, 65.8%로 많았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10.3%정도만 복학한 경험이 있었으나,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30.8%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 3배정도 복학한 경험이 높게 나타나, 복학과 자퇴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자주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5 복귀경험 여부

(단위: 명, %)

복귀경험여부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복학한 경험이 있다	49 (10.3)	58 (30.5)	107 (16.1)
현재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다	28 (5.9)	7 (3.7)	35 (5.3)
복학한 경험이 없다	397 (83.8)	125 (65.8)	522 (78.6)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41.146^{***}$ ($df=2$), * $p<0.1$ ** $p<0.05$ *** $p<0.01$

(2) 학교복귀이유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복학이유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53.2%), ‘부모님이 원해서’(20.8%), ‘집에 있기 심심해서’(11.7%) 순으로 복학의 이유를 들었다. 보호관찰청소년도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53.2%)가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원해서’(20.0%), ‘집에 있기 심심해서’(7.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6

복귀이유

(단위: 명, %)

복학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학교를 졸업하고 싶어서	41 (53.2)	38 (58.5)	79 (55.6)
부모님이 원해서	16 (20.8)	13 (20.0)	29 (20.4)
집에 있기 심심해서 (다른 할 일이 없어서)	9 (11.7)	5 (7.7)	14 (9.9)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어서	8 (10.4)	0 (0.0)	8 (5.6)
검정고시를 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어서	2 (2.6)	2 (3.1)	4 (2.8)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0 (0.0)	2 (3.1)	2 (1.4)
기타	1 (1.3)	5 (7.7)	6 (4.2)
전체	77 (100.0)	65 (100.0)	142 (100.0)

 $\chi^2 = 13.315^{**}$ ($df=6$), $p < 0.1$ $^{**} p < 0.05$ $^{***} p < 0.01$

5) 학업 중단 시 고민 상담 경험 및 주변 반응

(1) 학업 중단 시 고민 상담자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시 고민 상담자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부모님'과 상담한 경우가 각각 79.3%, 63.2%로 가장 높았다. 그 외의 고민상담자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친구나 선후배'(48.1%)와 '학교교사'(36.3%) 순서를 꼽은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인 경우에는 '친구나 선후배'(47.4%), '아무도 없었다'(17.4%), '형제자매'(13.2%)를 꼽았다.

표 III-7 학업 중단 시 고민 상담자 (복수 응답)

(단위: 명, %)

학업중단 시 고민 상담자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부모님	376 (79.3)	120 (63.2)	496 (74.7)
친구나 선후배	228 (48.1)	90 (47.4)	318 (47.9)
학교교사	172 (36.3)	20 (10.5)	192 (28.9)
학교 내 상담교사	69 (14.6)	17 (8.9)	86 (13.0)
형제자매	60 (12.7)	25 (13.2)	85 (12.8)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37 (7.8)	6 (3.2)	43 (6.5)
아무도 없었다	37 (7.8)	33 (17.4)	70 (10.5)
기타	17 (3.6)	6 (3.2)	23 (3.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2) 학업 중단 시 부모님과 교사 태도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시 부모님의 태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부모님이 반대한 경우가 47.5%, 63.7%로 높았다. 하지만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38.8%는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서는 학업중단에 긍정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실을 모른다는 응답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8 학업 중단 시 부모님의 태도 (단위: 명, %)

학업 중단 시 부모님의 태도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학업중단을 반대함	225 (47.5)	121 (63.7)	346 (52.1)
학업중단에 찬성함	184 (38.8)	35 (18.4)	219 (33.0)
별 다른 반응이 없음	45 (9.5)	18 (9.5)	63 (9.5)
학업중단사실을 모름	11 (2.3)	12 (6.3)	23 (3.5)
기타	9 (1.9)	4 (2.1)	13 (2.0)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30.233^{***}$ ($df=4$), * $p<0.1$ ** $p<0.05$ *** $p<0.01$

학업 중단 시 교사의 태도에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반대한 경우는 54.6%인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그보다 낮은 39.5%로 나타났다.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 18.6%, 보호관찰청소년 29.5%로 나타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교사의 반응이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여겨진다.

표 Ⅲ-9 학업 중단 시 교사의 태도

(단위: 명, %)

학업 중단 시 교사의 태도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학업중단을 반대함	259 (54.6)	75 (39.5)	334 (50.3)
학업중단에 찬성함	93 (19.6)	38 (20.0)	131 (19.7)
별 다른 반응이 없음	88 (18.6)	56 (29.5)	145 (21.7)
학업중단사실을 모름	23 (4.8)	14 (7.4)	37 (5.6)
기타	11 (2.3)	7 (3.7)	18 (2.7)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6.126^{***}$ ($df=4$), * $p<0.1$ ** $p<0.05$ *** $p<0.01$

6) 학업중단 관련 정보제공 여부

학업중단 관련 정보제공 여부 중 먼저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69.0%가,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64.2%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0 학교에 복학하는 절차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다	147 (31.0)	68 (35.8)	215 (32.4)
없다	327 (69.0)	122 (64.2)	449 (67.6)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413$ ($df=1$), * $p<0.1$ ** $p<0.05$ *** $p<0.01$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77.0%가,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77.9%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복학절차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Ⅲ-11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다	109 (23.0)	42 (22.1)	151 (22.7)
없다	365 (77.0)	148 (77.9)	513 (77.3)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061$ ($df=1$), * $p<0.1$ ** $p<0.05$ *** $p<0.01$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62.7%가,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57.9%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2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다	177 (37.3)	80 (42.1)	257 (38.7)
없다	297 (62.7)	110 (57.9)	407 (61.3)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297$ ($df=1$), * $p<0.1$ ** $p<0.05$ *** $p<0.01$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에 관한 정보제공의 경우에도,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76.4%, 보호관찰청소년의 85.8%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3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다	112 (23.6)	27 (14.2)	139 (20.9)
없다	362 (76.4)	163 (85.8)	525 (79.1)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7.269^*$ ($df=1$), * $p<0.1$ ** $p<0.05$ *** $p<0.01$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84.2%, 보호관찰청소년의 87.4%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4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다	75 (15.8)	24 (12.6)	99 (14.9)
없다	399 (84.2)	166 (87.4)	565 (85.1)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089$ ($df=1$), * $p<0.1$ ** $p<0.05$ *** $p<0.01$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설명을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22.2%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5.8%만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보호관찰중 학업중단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5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한 설명 (단위: 명, %)

정보제공여부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다	105 (22.2)	11 (5.8)	116 (17.5)
없다	369 (77.8)	179 (94.2)	548 (82.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5.186$ *** ($df=1$), * $p<0.1$ ** $p<0.05$ *** $p<0.01$

7)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

(1) 경험여부

학업중단 숙려제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24.5%가 이용경험이 있었으나,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단 4명(2.1%)만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I-16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 경험 여부 (단위: 명, %)

학업중단 숙려제 이용경험여부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116 (24.5)	4 (2.1)	120 (18.1)
경험없음	358 (75.5)	186 (97.9)	545 (81.9)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45.830^{***}$ ($df=1$), * $p<0.1$ ** $p<0.05$ *** $p<0.01$

(2) 유용성

이어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3.1%인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4명 모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7 학업중단 숙려제의 유용성 (단위:명,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도움 안된다	도움 된다	전체
일반	19 (16.4)	47 (40.5)	35 (30.2)	15 (12.9)	66 (56.0)	50 (43.1)	116 (100.0)
보호관찰	0 (0.0)	4 (100.0)	0 (0.0)	0 (0.0)	4 (100.)	0 (0.0)	4 (100.0)
전체	19 15.8%	51 42.5%	35 29.2%	15 12.5%	70 (58.3)	50 (41.7)	120 (100.0)

※ 보호관찰청소년의 수가 너무 적어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지 않음

8) 학업 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진로상담’(48.3%)을 필요로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35.7%), ‘심리상담’(22.2%), ‘일자리 소개’(21.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상당하였다. 보호관찰청소년은 ‘일자리 소개’(38.6%)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진로상담’(36.5%),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27.0%), ‘직업기술훈련’(22.2%) 순으로 필요를 응답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직업 및 일자리에 관한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Ⅲ-18 학업 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복수 응답) (단위: 명, %)

학업 중단 시 필요했던 도움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진로상담	229 (48.3)	69 (36.5)	298 (44.9)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174 (35.7)	51 (27.0)	225 (33.9)
심리상담	105 (22.2)	37 (19.6)	142 (21.4)
일자리 소개	104 (21.9)	73 (38.6)	177 (26.7)
직업기술훈련	74 (15.6)	42 (22.2)	116 (17.5)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74 (15.6)	39 (20.6)	113 (17.0)
경제적 지원	71 (15.0)	22 (11.6)	93 (14.0)
대안교육	28 (5.9)	13 (6.9)	41 (6.2)
기타	60 (12.7)	22 (11.6)	82 (12.4)
전체	474 (100.0)	189 (100.0)	663 (100.0)

3.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 · 환경적 특성

1) 개인적 · 심리적 특성

(1) 자아존중감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자아존중감⁴⁾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2.98)과 보호관찰청소년(2.98)간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자아존중감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아존중감	일반	474	2.98	.550	.004
	보호관찰	190	2.98	.562	

* p<0.1 ** p<0.05 *** p<0.01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의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는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평균이 보호관찰청소년보다 약간 높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4) 자아존중감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5개 문항을 합산한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자아탄력성, 우울감, 자기통제력, 게임중독성,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표 Ⅲ-20 자아존중감 문항

자아존중감 문항		평균값	t값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3.05	1.530
	보호관찰	2.96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일반	2.91	.433
	보호관찰	2.88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 가 있다.	일반	3.14	.084
	보호관찰	3.1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	2.94	-1.370
	보호관찰	3.03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일반	2.88	-.427
	보호관찰	2.91	

*p<0.1 **p<0.05 ***p<0.01

(2) 자아탄력성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평균값(2.95)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값(2.87)보다 다소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자아탄력성

		N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아탄력성	일반	474	2.87	.544	-1.870*
	보호관찰	190	2.95	.523	

*p<0.1 **p<0.05 ***p<0.01

자아탄력성 문항은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Ⅲ-22 자아탄력성 문항

자아탄력성 문항		평균값	t값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일반	2.88	-.679
	보호관찰	2.91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일반	2.86	.696
	보호관찰	2.91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일반	2.98	-3.451***
	보호관찰	2.94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일반	2.60	-2.048***
	보호관찰	2.84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일반	3.06	-1.048**
	보호관찰	3.19	

* p<0.1 ** p<0.05 *** p<0.01

(3) 우울감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우울감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생의 우울감 2.05, 보호관찰 청소년의 우울감 2.02로,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우울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우울감

		N	평균	표준편차	t값
우울감	일반	474	2.05	.593	.628
	보호관찰	190	2.02	.615	

* p<0.1 ** p<0.05 *** p<0.01

우울감 문항 중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외롭다’, ‘모든 일이 힘들다’의 문항에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이 다소 높았으나, 반대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 한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의 문항에서는 보호관찰청소년의 우울감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걱정이 많다’라는 문항에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우울감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우울감 문항

우울감 문항		평균값	t값
기운이 별로 없다	일반	2.15	1.359
	보호관찰	2.05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일반	2.03	.059
	보호관찰	2.02	
걱정이 많다.	일반	2.66	2.417**
	보호관찰	2.48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일반	1.72	-1.037
	보호관찰	1.79	
울기를 잘 한다.	일반	1.84	-.046
	보호관찰	1.85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일반	2.18	.799
	보호관찰	2.12	
외롭다.	일반	2.12	.776
	보호관찰	2.05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일반	1.80	-.596
	보호관찰	1.84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일반	1.95	-.249
	보호관찰	1.97	
모든 일이 힘들다.	일반	2.04	.740
	보호관찰	1.98	

*p<0.1 **p<0.05 ***p<0.01

(4) 낮은 자기통제력(충동성)

여기서의 항목은 점수가 높을수록 낮은 자기통제력을 의미한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

소년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1.97, 보호관찰중인 학생이 1.93으로 나타나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이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Ⅲ-25 낮은 자기통제력(충동성)

		N	평균	표준편차	t값
낮은 자기통제력	일반	474	1.97	.580	.778
	보호관찰	190	1.93	.611	

* p<0.1 ** p<0.05 *** p<0.01

구체적으로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와 같은 자기통제력을 측정하는 문항 모두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값이 보호관찰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표 Ⅲ-26 낮은 자기통제력(충동성) 문항

낮은 자기통제력 문항		평균값	t값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일반	1.67	-.332
	보호관찰	1.69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일반	2.05	.945
	보호관찰	1.98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일반	2.13	1.612
	보호관찰	2.01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일반	1.74	-.059
	보호관찰	1.7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일반	2.27	.372
	보호관찰	2.24	

* p<0.1 ** p<0.05 *** p<0.01

(5) 게임중독성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게임중독성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게임중독성(1.44)이 보호관찰청소년의 게임중독성(1.37)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다.

표 III-27 게임중독성

		N	평균	표준편차	t값
게임중독성	일반	474	1.44	.027	1.432
	보호관찰	190	1.37	.565	

*p<0.1 **p<0.05 ***p<0.01

게임중독성 문항 중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게임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게임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게임생각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문항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의 문항에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8 게임중독성 문항

게임중독성 문항		평균값	t값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일반	1.68	-.070
	보호관찰	1.68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일반	1.54	1.906*
	보호관찰	1.42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일반	1.45	.664
	보호관찰	1.41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일반	1.32	.764
	보호관찰	1.28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일반	1.37	1.710*
	보호관찰	1.27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일반	1.32	1.210
	보호관찰	1.26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일반	1.48	1.929*
	보호관찰	1.36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일반	1.37	1.705*
	보호관찰	1.27	

*p<0.1 **p<0.05 ***p<0.01

(6)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비교한 결과, 심리적 특성 중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평균은 3.11이고, 보호관찰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평균은 2.95으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미래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N	평균	표준편차	t값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일반	474	3.11	.636	2.688***
	보호관찰	190	2.95	.715	

* p<0.1 ** p<0.05 *** p<0.01

구체적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의 문항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점수가 보호관찰중인 청소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Ⅲ-30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문항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문항		평균값	t값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반	2.93	3.765***
	보호관찰	2.64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3.25	2.388***
	보호관찰	3.09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일반	3.16	.302
	보호관찰	3.14	

* p<0.1 ** p<0.05 *** p<0.01

2) 문제행동 경험

(1) 환경적 특성

① 부모와의 관계

가. 부모애착(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부모애착을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부모애착도(3.02)가 보호관찰청소년의 부모애착(2.99)보다 근소하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31 부모애착

		N	평균	표준편차	t값
부모 애착	일반	474	3.02	.624	.601
	보호관찰	190	2.99	.628	

* p<0.1 ** p<0.05 *** p<0.01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문항 중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신다’,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신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주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의 평균값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보다 근소하게 높았다. 반면에 ‘고민을 들어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보호관찰청소년의 평균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Ⅲ-32 부모애착 문항

부모 애착 문항		평균값	t값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시다.	일반	3.03	.575
	보호관찰	2.99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다.	일반	3.11	.293
	보호관찰	3.09	
고민을 들어 주신다.	일반	2.95	-.403
	보호관찰	2.98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다.	일반	3.06	-.751
	보호관찰	3.11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주시다.	일반	2.92	.073
	보호관찰	2.91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일반	3.01	.525
	보호관찰	2.97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일반	3.16	1.554
	보호관찰	3.06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일반	2.93	1.276
	보호관찰	2.83	

* p<0.1 ** p<0.05 *** p<0.01

나. 부모의 방임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부모의 방임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보호관찰청소년(1.93)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1.82)보다 높게 나타나, 방임 정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33 부모의 방임

		N	평균	표준편차	t값
방임	일반	474	1.82	.587	-2.097**
	보호관찰	190	1.93	.584	

* p<0.1 ** p<0.05 *** p<0.01

부모의 방임을 측정하는 문항은 ‘부모님께서서는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이 가운데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좀 더 방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부모의 방임 문항

부모의 방임 문항		평균값	t값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 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¹⁾	일반	2.87	-.922
	보호관찰	2.81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일반	1.74	-2.580**
	보호관찰	1.92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일반	1.87	-1.042
	보호관찰	1.95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일반	1.82	-1.318
	보호관찰	1.93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일반	1.53	-1.827*
	보호관찰	1.65	

*p<0.1 **p<0.05 ***p<0.01

1) 본 문항은 점수가 낮을수록 방임도가 높은 문항으로, 본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값과 t값, 변수값은 모두 변수를 역코딩하여 산출된 값임.

다. 신체적 학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신체적 학대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신체적 학대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신체적 학대

		N	평균	표준편차	t값
신체적 학대	일반	474	1.74	.786	-2.205**
	보호관찰	190	1.88	.730	

*p<0.1 **p<0.05 ***p<0.01

신체적 학대를 구성하는 문항 중에서 특히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와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는 통계적인 수준에서 유의미할 정도로 보호관찰청소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Ⅲ-36 신체적 학대 문항

신체적 학대 문항		평균값	t값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일반	1.71	-1.066
	보호관찰	1.79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일반	1.86	-2.257**
	보호관찰	2.03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일반	1.64	-2.422**
	보호관찰	1.82	

* p<0.1 ** p<0.05 *** p<0.01

라. 정서적 학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정서적 학대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1.90, 보호관찰청소년 2.00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Ⅲ-37 정서적 학대

		N	평균	표준편차	t값
정서적 학대	일반	474	1.90	.992	-1.193
	보호관찰	190	2.00	.981	

* p<0.1 ** p<0.05 *** p<0.01

정서적 학대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라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정서적 학대에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Ⅲ-38 정서적 학대 문항

정서적 학대 문항		평균값	t값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일반	1.90	-1.193
	보호관찰	2.00	

* p<0.1 ** p<0.05 *** p<0.01

② 친구와의 관계

가. 친구의 수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구의 수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 학생의 경우 친구가 6명~10명 이하(36.3%)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1명~5명 이하(43.4%)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Ⅲ-39 친구의 수

친구의 수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없음	8 (1.7)	8 (4.2)	16 (2.4)
1~5명이하	146 (30.8)	82 (43.4)	228 (34.4)
6~10명이하	172 (36.3)	59 (31.2)	231 (34.8)
11명이상	148 (31.2)	40 (21.2)	188 (28.4)
전체	474 (100.0)	189 (100.0)	663 (100.0)

$\chi^2 = 15.668^{***}$ ($df=3$), * p<0.1 ** p<0.05 *** p<0.01

나. 또래애착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애착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친구애착은 3.16,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애착은 3.18로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표 III-40 또래 애착

		N	평균	표준편차	t값
또래애착	일반	474	3.16	.592	-.376
	보호관찰	190	3.18	.535	

* p<0.1 ** p<0.05 *** p<0.01

또래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은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 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문항에서 보호관찰청소년들이 다소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41 또래 애착 문항

		평균값	t값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일반	3.13	-.287
	보호관찰	3.15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일반	3.18	-.572
	보호관찰	3.21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일반	3.18	-.140
	보호관찰	3.19	

* p<0.1 ** p<0.05 *** p<0.01

다. 친구비행 성향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비행을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비행(1.75명)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친구비행(1.64명)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들이 좀 더 비행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42 친구 비행성향

		N	평균	표준편차	t값
친구비행	일반	474	1.64	.647	-2.047**
	보호관찰	190	1.75	.611	

* p<0.1 ** p<0.05 *** p<0.01

친구 비행을 측정하는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의 3가지 문항 중에서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Ⅲ-43 친구 비행성향 문항

		평균값	t값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일반	1.78	-2.087***
	보호관찰	1.91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일반	1.67	-1.971**
	보호관찰	1.80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일반	1.46	-1.213
	보호관찰	1.53	

* p<0.1 ** p<0.05 *** p<0.01

③ 학교생활

가. 교사와의 관계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 교사와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가 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특히 도움을 준 교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4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일반	474	2.75	.922	1.738 [*]
	보호관찰	190	2.62	.917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일반	474	2.45	.946	1.701 [*]
	보호관찰	190	2.31	.961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일반	474	2.56	.938	2.011 ^{**}
	보호관찰	190	2.40	.964	

^{*} p<0.1 ^{**} p<0.05 ^{***} p<0.01

나.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 친구와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 보다 평균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5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N	평균	표준편차	t값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일반	474	3.18	.845	1.498
	보호관찰	190	3.07	.903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일반	474	2.96	.918	.622
	보호관찰	190	2.92	.875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일반	474	3.20	.794	.338
	보호관찰	190	3.18	.854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일반	474	3.06	.814	.510
	보호관찰	190	3.02	.835	

*p<0.1 **p<0.05 ***p<0.01

다. 학습부적응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의 학습부적응 비교한 결과,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와 학업수업내용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청소년의 평균값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높게 나타나, 보호관찰청소년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좀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46 학습부적응

학습부적응		N	평균	표준편차	t값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일반	474	2.82	.873	-1.237
	보호관찰	190	2.91	.847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일반	474	2.52	.892	-.096
	보호관찰	190	2.53	.877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것은 참 힘든 일 이었다	일반	474	2.33	.975	-3.474**
	보호관찰	190	2.62	.939	

*p<0.1 **p<0.05 ***p<0.01

라. 규정위반 경험

학업 중단 이전의 학교규정위반 경험을 살펴보면 지각횟수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 지각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9.1%이고, ‘주 1-2회’ 지각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21.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24.1%로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 이라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지각했다고 한 경우는 31.1%로 나타나 지각횟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7 지각빈도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전체
일반	114 (24.1)	59 (12.4)	63 (13.3)	100 (21.1)	138 (29.1)	474 (100.0)
보호관찰	20 (10.5)	16 (8.4)	18 (9.5)	60 (31.6)	76 (40.0)	190 (100.0)
전체	134 (20.2)	75 (11.3)	81 (12.2)	160 (24.1)	214 (32.2)	664 (100.0)

$\chi^2 = 27.031^{***}$ ($df=4$), * $p<0.1$ ** $p<0.05$ *** $p<0.01$

무단결석 횟수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전혀 없었다’가 40.1%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와 ‘거의 매일’로 응답한 청소년은 각각 18.1%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주 1-2회’가 35.3%로 가장 많았고, ‘거의 매일’ 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2.1%나 되어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Ⅲ-48 무단결석빈도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전체
일반	190 (40.1)	51 (10.8)	59 (12.4)	88 (18.6)	86 (18.1)	474 (100.0)
보호관찰	17 (8.9)	13 (6.8)	32 (16.8)	67 (35.3)	61 (32.1)	190 (100.0)
전체	207 (31.2)	64 (9.6)	91 (13.7)	155 (23.3)	147 (22.1)	664 (100.0)

$\chi^2 = 74.394^{***}$ ($df=4$), * $p<0.1$ ** $p<0.05$ *** $p<0.01$

학업중단 이전의 문제행동 중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횟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중인 청소년 모두 ‘전혀 없었다’가 각각 40.5%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로 응답한 학생이 18.1%에 그친 반면,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집단의 경우 ‘거의 매일’ 위반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이 31.6%에 육박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Ⅲ-49 두발·복장 등 규정 위반빈도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전체
일반	192 (40.5)	60 (12.7)	80 (16.9)	56 (11.8)	86 (18.1)	474 (100.0)
보호관찰	61 (32.1)	14 (7.4)	27 (14.2)	28 (14.7)	60 (31.6)	190 (100.0)
전체	253 (38.1)	74 (11.1)	107 (16.1)	84 (12.7)	146 (22.0)	664 (100.0)

$\chi^2 = 18.567^{***}$ ($df=4$), * $p<0.1$ ** $p<0.05$ *** $p<0.01$

학업중단 이전의 문제행동 중 숙제를 하지 않은 횟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전혀 없었다’가 34.4%로 가장 높은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응답한 경우가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표 Ⅲ-50 숙제를 하지 않은 빈도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전체
일반	163 (34.4)	44 (9.3)	62 (13.1)	71 (15.0)	134 (28.3)	474 (100.0)
보호관찰	42 (22.1)	7 (3.7)	22 (11.6)	28 (14.7)	91 (47.9)	190 (100.0)
전체	205 (30.9)	51 (7.7)	84 (12.7)	99 (14.9)	225 (33.9)	664 (100.0)

$\chi^2 = 27.825^{***}$ ($df=4$), * $p<0.1$ ** $p<0.05$ *** $p<0.01$

학업중단 이전의 문제행동 중 수업을 무단으로 빠진 횟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에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1 수업을 무단으로 빠진 횟수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전체
일반	249 (52.5)	42 (8.9)	55 (11.6)	59 (12.4)	69 (14.6)	474 (100.0)
보호관찰	37 (19.5)	13 (6.8)	26 (13.7)	53 (27.9)	61 (32.1)	190 (100.0)
전체	286 (43.1)	55 (8.3)	81 (12.2)	112 (16.9)	130 (19.6)	664 (100.0)

$\chi^2 = 76.083^{***}$ ($df=4$), * $p<0.1$ ** $p<0.05$ *** $p<0.01$

선생님에게 반항한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61.6%, 42.6%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7.4%, ‘주 1-2’회라고 응답한 학생도 15.3%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표 Ⅲ-52 선생님에게 반항한 빈도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전체
일반	292 (61.6)	67 (14.1)	45 (9.5)	38 (8.0)	32 (6.8)	474 (100.0)
보호관찰	81 (42.6)	25 (13.2)	22 (11.6)	29 (15.3)	33 (17.4)	190 (100.0)
전체	373 (56.2)	92 (13.9)	67 (10.1)	67 (10.1)	65 (9.8)	664 (100.0)

$\chi^2 = 32.045^{***}$ ($df=4$), * $p<0.1$ ** $p<0.05$ *** $p<0.01$

학업중단 이전의 문제행동 중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간 횟수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6.0% 이고, ‘연1-2회’인 경우가 19.0%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38.9%가 ‘전혀 없었다’라고 응답하였고, 28.9%는 ‘연 1-2회’로 나타났다.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3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전체
일반	313 (66.0)	90 (19.0)	36 (7.6)	19 (4.0)	16 (3.4)	474 (100.0)
보호관찰	74 (38.9)	55 (28.9)	33 (17.4)	14 (7.4)	14 (7.4)	190 (100.0)
전체	387 (58.3)	145 (21.8)	69 (10.4)	33 (5.0)	30 (4.5)	664 (100.0)

$\chi^2 = 43.570^{***}$ ($df=4$), * $p<0.1$ ** $p<0.05$ *** $p<0.01$

④ 지역사회 특성

가. 지역사회 유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지역사회유대를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청소년이 사는 지역의 유대(2.44)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사는 지역의 유대(2.21) 보다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4 지역사회 유대

		N	평균	표준편차	t값
지역사회 유대	일반	474	2.21	.788	-3.355***
	보호관찰	190	2.44	.767	

* p<0.1 ** p<0.05 *** p<0.01

지역사회 유대를 측정하는 문항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관찰청소년의 평균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Ⅲ-55 지역사회 유대 문항

		평균값	t값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	일반	2.35	-2.884***
	보호관찰	2.57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일반	2.07	-3.304***
	보호관찰	2.30	

* p<0.1 ** p<0.05 *** p<0.01

나. 비공식통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지역사회의 비공식통제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의 평균(2.61)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2.3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56 비공식 통제

		N	평균	표준편차	t값
비공식통제	일반	474	2.37	.793	-3.473 ^{***}
	보호관찰	190	2.61	.763	

* p<0.1 ** p<0.05 *** p<0.01

비공식 통제를 측정하는 문항은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보호관찰중인 학업청소년이 자신의 지역사회의 비공식통제를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57 비공식 통제 문항

		평균값	t값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	일반	2.30	-3.046 ^{***}
	보호관찰	2.5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	일반	2.44	-3.300 ^{***}
	보호관찰	2.67	

* p<0.1 ** p<0.05 *** p<0.01

다. 물리적 무질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물리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평균(2.11)이 보호관찰청소년의 평균(2.08)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Ⅲ-58 물리적 무질서

		N	평균	표준편차	t값
물리적 무질서	일반	474	2.11	.750	.380
	보호관찰	190	2.08	.747	

* p<0.1 ** p<0.05 *** p<0.01

물리적 무질서는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았다’,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두 문항 모두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청소년 간의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Ⅲ-59 물리적 무질서 문항

		평균값	t값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집이나 공터가 많았다.	일반	1.98	.590
	보호관찰	1.94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일반	2.24	.116
	보호관찰	2.23	

* p<0.1 ** p<0.05 *** p<0.01

라. 사회적 무질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인식을 비교한 결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평균(2.41)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평균(2.30)보다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Ⅲ-60 사회적 무질서

		N	평균	표준편차	t값
사회적 무질서	일반	474	2.30	.812	-1.585
	보호관찰	190	2.41	.795	

* p<0.1 ** p<0.05 *** p<0.01

사회적 무질서 문항은 ‘우리 동네는 밤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 다녔다’,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의 두 문항으로 측정되었는데, ‘우리 동네는 밤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 다녔다’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는 보호관찰청소년에서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Ⅲ-61 사회적 무질서 문항

		평균값	t값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일반	2.20	-2.108**
	보호관찰	2.36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반	2.40	-.691
	보호관찰	2.46	

* p<0.1 ** p<0.05 *** p<0.01

3) 생애사건 경험 특성

(1) 가족구성 변화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생애사건 경험을 살펴보기 위하여 친아버지의 생존여부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94.3%)와 보호관찰청소년(93.2%) 대부분 친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것으로 밝혀졌다.

표 Ⅲ-62 친아버지가 돌아가심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27 (5.7)	13 (6.8)	40 (6.0)
없음	447 (94.3)	177 (93.2)	624 (94.0)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315$ ($df=1$), * $p<0.1$ ** $p<0.05$ *** $p<0.01$

친어머니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학업중단청소년(98.5%)과 보호관찰청소년(97.9%)의 친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3 친어머니가 돌아가심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7 (1.5)	4 (2.1)	11 (1.7)
없음	467 (98.5)	186 (97.9)	653 (98.3)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329$ ($df=1$), * $p<0.1$ ** $p<0.05$ *** $p<0.01$

친부모님의 별거여부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24.5%, 보호관찰청소년의 37.4%가 별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4 친부모님의 별거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116 (24.5)	71 (37.4)	187 (28.2)
없음	358 (75.5)	119 (62.6)	477 (71.8)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1.149^{***}$ ($df=1$), * $p<0.1$ ** $p<0.05$ *** $p<0.01$

친부모님의 이혼여부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29.3% 보호관찰청소년의 49.5%는 친부모님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표 Ⅲ-65 친부모님의 이혼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139 (29.3)	94 (49.5)	233 (35.1)
없음	335 (70.7)	96 (50.5)	431 (64.9)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4.175^{***}$ ($df=1$), * $p<0.1$ ** $p<0.05$ *** $p<0.01$

친아버지의 재혼이나 새어머니가 들어오신 경우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6.1%, 보호관찰청소년은 11.6%가 친아버지의 재혼이나 새어머니를 맞이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 그 비율이 높았다.

표 Ⅲ-66 친아버지의 재혼 (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심)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29 (6.1)	22 (11.6)	51 (7.7)
없음	445 (93.9)	168 (88.4)	613 (92.3)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5.704^{***}$ ($df=1$), * $p<0.1$ ** $p<0.05$ *** $p<0.01$

친어머니의 재혼 또는 새아버지가 들어오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8.2%, 보호관찰청소년은 10.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친어머니의 재혼보다는 친아버지의 재혼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67 친어머니의 재혼 (또는 새아버지가 들어오심)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39 (8.2)	20 (10.5)	59 (8.9)
없음	435 (91.8)	170 (89.5)	605 (91.1)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885$ ($df=1$), * $p<0.1$ ** $p<0.05$ *** $p<0.01$

친아버지의 가출경험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6.3%, 보호관찰청소년 5.3%가 아버지의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8 친아버지의 가출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30 (6.3)	10 (5.3)	40 (6.0)
없음	444 (93.7)	180 (94.7)	624 (94.0)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72$ ($df=1$), * $p<0.1$ ** $p<0.05$ *** $p<0.01$

친어머니의 가출 경험은 설문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8.9%, 보호관찰청소년 11.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친아버지 보다는 친어머니의 가출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9 친어머니의 가출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42 (8.9)	21 (11.1)	63 (9.5)
없음	432 (91.1)	169 (88.9)	601 (90.5)
전체	(88.9)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759$ ($df=1$), * $p<0.1$ ** $p<0.05$ *** $p<0.01$

(2) 가정경제 악화

친아버지의 사업실패 경험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17.5%, 보호관찰청소년의 18.4%가 친아버지의 사업실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0 친아버지의 사업실패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83 (17.5)	35 (18.4)	118 (17.8)
없음	391 (82.5)	155 (81.6)	547 (82.2)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077$ ($df=1$), * $p<0.1$ ** $p<0.05$ *** $p<0.01$

친어머니의 사업실패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2.5%와 보호관찰청소년의 2.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아버지의 사업실패경험과 비교하여 볼 때 두 집단 모두 경험비율이 낮게 보고되었다.

표 Ⅲ-71 친어머니의 사업실패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12 (2.5)	5 (2.6)	17 (2.6)
없음	462 (97.5)	185 (97.4)	647 (97.4)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005$ ($df=1$), * $p<0.1$ ** $p<0.05$ *** $p<0.01$

친아버지의 실직경험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16.5%, 보호관찰청소년의 14.7%가 친아

버지의 실직을 경험하나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2 친아버지의 실직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78 (16.5)	28 (14.7)	106 (16.0)
없음	396 (83.5)	162 (85.3)	558 (84.0)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99$ ($df=1$), * $p<0.1$ ** $p<0.05$ *** $p<0.01$

친어머니의 실직경험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2.7%, 보호관찰청소년의 4.7%가 친어머니의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친아버지의 실직과 비교할 때 어머니의 실직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73 친어머니의 실직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13 (2.7)	9 (4.7)	22 (3.3)
없음	461 (97.3)	181 (95.3)	642 (96.7)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684$ ($df=1$), * $p<0.1$ ** $p<0.05$ *** $p<0.01$

친아버지가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랜 병상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일반학업중단

학생의 11.4%와 보호관찰중인 학업중단학생의 14.7%가 병상생활을 하고 계신 친아버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4 친아버지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54 (11.4)	28 (14.7)	82 (12.3)
없음	420 (88.6)	162 (85.3)	582 (87.7)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402$ ($df=1$), * $p<0.1$ ** $p<0.05$ *** $p<0.01$

친어머니가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랜 병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일반학업 중단학생의 6.3%와 보호관찰중인 학업중단학생의 7.4%이 병상에 계신 친어머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Ⅲ-75 친어머니의 오랜 병상생활 (질병, 교통사고 등)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30 (6.3)	14 (7.4)	44 (6.6)
없음	444 (93.7)	176 (92.6)	620 (93.4)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37$ ($df=1$), * $p<0.1$ ** $p<0.05$ *** $p<0.01$

(3) 가정불화

기억에 남을 만큼 심하게 친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43.0%, 보호관찰청소년은 39.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76 기억에 남을 만한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204 (43.0)	75 (39.5)	279 (42.0)
없음	270 (57.0)	115 (60.5)	385 (58.0)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707$ ($df=1$), * $p<0.1$ ** $p<0.05$ *** $p<0.01$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16.0%, 보호관찰청소년은 20.5%가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77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76 (16.0)	39 (20.5)	115 (17.3)
없음	398 (84.0)	151 (79.5)	549 (82.7)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912$ ($df=1$), * $p<0.1$ ** $p<0.05$ *** $p<0.01$

친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은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22.8%와 보호관찰청소년은 22.1%가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78

친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음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108 (22.8)	42 (22.1)	150 (22.6)
없음	366 (77.2)	148 (77.9)	514 (77.4)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036 (df=1), * p<0.1 \quad ** p<0.05 \quad *** p<0.01$$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은 경험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 10.3%, 보호관찰청소년 7.9%로 나타났다. 친아버지에게 맞은 경험과 비교하여 볼 때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I-79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49 (10.3)	15 (7.9)	64 (9.6)
없음	425 (89.7)	175 (92.1)	600 (90.4)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929 (df=1), * p<0.1 \quad ** p<0.05 \quad *** p<0.01$$

(4) 교사폭력 및 전학 경험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17.7%, 보호관찰청소년의 11.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80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84 (17.7)	21 (11.1)	105 (15.8)
없음	390 (82.3)	169 (88.9)	559 (84.2)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4.531^{**}$ ($df=1$), * $p<0.1$ ** $p<0.05$ *** $p<0.01$

이사 등의 이유로 전학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50.4%, 보호관찰청소년은 40.0%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III-81 이사 등으로 전학함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있음	239 (50.4)	76 (40.0)	315 (47.4)
없음	235 (49.6)	114 (60.0)	349 (52.6)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5.908^{***}$ ($df=1$), * $p<0.1$ ** $p<0.05$ *** $p<0.01$

4. 학업중단 이후의 삶

1)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9.5%와 보호관찰청소년의 17.9%는 복학하여 학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2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45 (9.5)	34 (17.9)	79 (11.9)
경험없음	429 (90.5)	156 (82.1)	585 (88.1)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9.132^{***} (df=1), * p<0.1 \quad ** p<0.05 \quad *** p<0.01$$

이어 대안학교에 다닌 경험을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8.4%가 대안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었고, 이보다는 낮은 비율인 6.3%의 보호관찰청소년이 대안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3 대안학교에 다님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40 (8.4)	12 (6.3)	52 (7.8)
경험없음	434 (91.6)	178 (93.7)	612 (92.2)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847 (df=1), * p<0.1 \quad ** p<0.05 \quad *** p<0.01$$

검정고시 공부경험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67.9%가 검정고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는 절반에 못 미치는 45.3%만이 검정고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표 Ⅲ-84 **검정고시를 공부를 함**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322 (67.9)	86 (45.3)	408 (61.4)
경험없음	152 (32.1)	104 (54.7)	256 (38.6)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9.422^{***}$ ($df=1$), * $p<0.1$ ** $p<0.05$ *** $p<0.01$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19.2%와 보호관찰청소년의 5.8%가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직업기술을 배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5 **직업기술을 배움**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91 (19.2)	11 (5.8)	102 (15.4)
경험없음	383 (80.8)	179 (94.2)	562 (84.6)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8.756^{***}$ ($df=1$), * $p<0.1$ ** $p<0.05$ *** $p<0.01$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한 경험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41.8%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54.7%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이 아르바이트나 취업경험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Ⅲ-86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198 (41.8)	104 (54.7)	302 (45.5)
경험없음	276 (58.2)	86 (45.3)	362 (54.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9.194^{***} (df=1), *p<0.1 \quad **p<0.05 \quad ***p<0.01$$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았던 경험에 대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63.7%, 보호관찰청소년은 91.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보호관찰청소년의 대다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노는 것이 일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87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302 (63.7)	173 (91.1)	475 (71.5)
경험없음	172 (36.3)	17 (8.9)	189 (28.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49.788^{***} (df=1), *p<0.1 \quad **p<0.05 \quad ***p<0.01$$

취미나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15.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는 단지 6.3%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Ⅲ-88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74 (15.6)	12 (6.3)	85 (13.0)
경험없음	400 (84.4)	178 (93.7)	578 (87.0)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0.396^{***}$ ($df=1$), * $p<0.1$ ** $p<0.05$ *** $p<0.01$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14.3%가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9.5%가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보호관찰청소년 보다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9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68 (14.3)	18 (9.5)	86 (13.0)
경험없음	406 (85.7)	172 (90.5)	578 (87.0)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856^*$ ($df=1$), * $p<0.1$ ** $p<0.05$ *** $p<0.01$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한 경험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8.6%)보다 보호관찰청소년(11.1%)의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0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41 (8.6)	21 (11.1)	62 (9.3)
경험없음	433 (91.4)	169 (88.9)	602 (90.7)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925$ ($df=1$), * $p<0.1$ ** $p<0.05$ *** $p<0.01$

가출하여 친구 집이나 PC방 같은 곳에서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한 경험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 (9.7%)보다 보호관찰청소년(22.1%)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표 Ⅲ-91 가출하여 친구 집이나 PC방에서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46 (9.7)	42 (22.1)	88 (13.3)
경험없음	428 (90.3)	148 (77.9)	576 (86.7)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8.142$ *** ($df=1$), * $p<0.1$ ** $p<0.05$ *** $p<0.01$

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경험을 설문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3.0%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12.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Ⅲ-9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14 (3.0)	24 (12.6)	38 (5.7)
경험없음	460 (97.0)	166 (87.4)	626 (94.3)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3.546^{***}$ ($df=1$), * $p<0.1$ ** $p<0.05$ *** $p<0.01$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2.1%만이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무려 45.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Ⅲ-93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경험있음	10 (2.1)	86 (45.3)	96 (14.5)
경험없음	464 (97.9)	104 (54.7)	574 (85.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04.226^{***}$ ($df=1$), * $p<0.1$ ** $p<0.05$ *** $p<0.01$

2) 학업 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

학업중단 이후 친구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새롭게 사귀 친구의 수를 살펴보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평균 4.25명으로 보호관찰청소년(3.87)명에 비해 새로이 사귀 친구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94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의 수 (단위: 명)

친구의 수		N	평균	표준편차	t값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의 수	일반	474	4.25	8.340	.497
	보호관찰	190	3.87	9.667	

* p<0.1 ** p<0.05 *** p<0.01

학업중단 이후 멘토로써 학교 선생님을 대신할 줄 있는 성인을 만나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

학업중단 이후 진로 상담자의 경우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원’에서 상담한 경우가 15.4%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상담소와 같은 상담기관을 방문한 경우도 14.8%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서 상담한 경우가 61.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5 학업 중단 이후 진로 상담자 (복수응답) (단위: 명)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학원	73 (15.4)	6 (3.2)	79 (12.0)
상담기관 (청소년상담소등)	70 (14.8)	18 (9.7)	83 (13.3)
종교기관	43 (9.1)	11 (5.9)	54 (8.2)
청소년시설	39 (8.2)	10 (5.4)	49 (7.4)
직업훈련기관	36 (7.6)	8 (4.3)	44 (6.7)
대안교육기관	29 (6.1)	4 (2.2)	33 (5.0)
보호관찰소	27 (5.7)	114 (61.3)	141 (6.7)
병원 등 치료시설	19 (4.0)	4 (2.2)	23 (3.5)
복지시설	16 (3.4)	13 (7.0)	29 (4.4)
보호시설	11 (2.3)	14 (7.5)	25 (3.8)
기타	199 (42.0)	48 (25.8)	247 (37.4)
전체	474 (100.0)	186 (100.0)	660 (100.0)

3) 학업 중단 이후 진로계획

(1) 진로정보의 탐색

학교를 그만 둔 후 진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무슨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후 진로정보 획득을 위하여 진로에 대해 부모님이나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지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7.5%로 나타나고,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도 80.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96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일반	25 (5.3)	34 (7.2)	240 (50.6)	175 (36.9)	59 (12.5)	415 (87.5)	474 (100.0)
보호관찰	16 (8.4)	21 (11.1)	113 (59.5)	40 (21.1)	37 (19.5)	153 (80.6)	190 (100.0)
전체	41 (6.2)	55 (8.3)	353 (53.2)	215 (32.4)	96 (14.5)	568 (85.6)	664 (100.0)

$\chi^2 = 17.180^{***}$ ($df=3$), * $p<0.1$ ** $p<0.05$ *** $p<0.01$

학업중단 이후 진로 정보획득을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실시하였는지 알아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69.2%, 보호관찰청소년은 57.9%가 인터넷으로 진로정보를 검색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97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일반	67 (14.1)	79 (16.7)	210 (44.3)	118 (24.9)	146 (30.8)	328 (69.2)	474 (100.0)
보호관찰	39 (20.5)	41 (21.6)	82 (43.2)	28 (14.7)	80 (42.1)	110 (57.9)	190 (100.0)
전체	106 (16.0)	120 (18.1)	292 (44.0)	146 (22.0)	226 (34.1)	438 (66.0)	664 (100.0)

$\chi^2 = 11.687^{***}$ ($df=3$), * $p<0.1$ ** $p<0.05$ *** $p<0.01$

학업중단 이후 진로 정보획득을 위하여 교육기관, 복지기관, 고용관련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22.6%, 보호관찰청소년의 15.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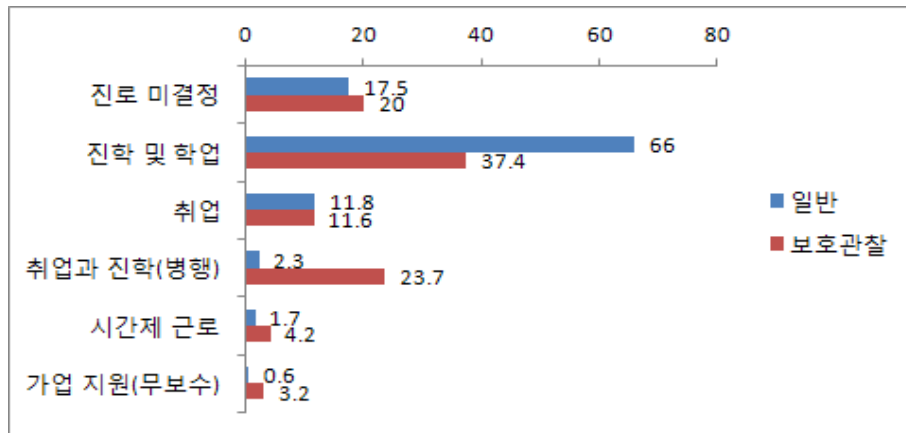
표 III-98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일반	255 (53.8)	112 (23.6)	79 (16.7%)	28 (5.9)	367 (77.4)	107 (22.6)	474 (100.0)
보호관찰	88 (46.3)	72 (37.9)	23 (12.1)	7 (3.7)	160 (84.2)	30 (15.8)	190 (100.0)
전체	343 (51.7)	184 (27.7)	102 (15.4)	35 (5.3)	527 (79.)	137 (20.7)	664 (100.0)

$\chi^2 = 14.540^{***}$ ($df=3$), * $p<0.1$ ** $p<0.05$ *** $p<0.01$

(2) 향후 진로계획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후 진로계획에 대한 조사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진학/학업'이 6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진로미결정' 17.5%, '취업' 11.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관찰청소년은 '진학/학업'이 37.4%의 비중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취업/진학 병행' 23.7%, '진로 미결정' 2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학업중단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 보다 향후 진로에 대해 더 다양하게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1】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향후 진로계획(% , 기타제외)

4) 학업중단 후 일상생활

(1) 일상시간

① 학업 및 근무시간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중인 청소년의 학업 및 근무시간을 살펴본 결과, 학교,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등을 다니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60.1%이고 보호관찰청소년의 13.7%만 이러한 기관을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9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다님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해당있음	285 (60.1)	26 (13.7)	311 (46.8)
해당없음	189 (39.9)	164 (86.3)	353 (53.2)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17.488^{***} (df=1), * p<0.1 \quad ** p<0.05 \quad *** p<0.01$

이러한 기관에서 머무는 시간의 평균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 기준 평일 하루 5.68시간, 휴일 하루 1.16시간이었으며, 보호관찰청소년 기준 평일 5.08시간, 휴일 1.35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Ⅲ-100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평균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값
평일	일반	285	5.68	2.924	1.027
	보호관찰	26	5.08	2.348	
휴일	일반	285	1.16	2.487	-.358
	보호관찰	26	1.35	2.855	

* p<0.1 ** p<0.05 *** p<0.01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일을 하며 지내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20.0%와 보호관찰청소년의 28.4%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며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1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하여 일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해당있음	95	54	149
	(20.0)	(28.4)	(22.4)
해당없음	379	136	515
	(80.0)	(71.6)	(77.6)
전체	474	190	664
	(100.0)	(100.0)	(100.0)

$\chi^2 = 5.471^{**}$ (df=1), * p<0.1 ** p<0.05 *** p<0.01

아르바이트나 근무시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 기준 평일 6.54시간, 휴일 4.42시간이며, 보호관찰

청소년 기준 평일 8.41시간, 휴일 6.67시간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하여 더 많은 시간을 경제활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2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면서 지내는 평균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값
평일	일반	95	6.54	3.527	-3.347 **
	보호관찰	54	8.41	2.784	
휴일	일반	94	4.42	4.494	-3.003 **
	보호관찰	54	6.67	4.202	

* p<0.1 ** p<0.05 *** p<0.01

② 여가시간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여가시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경우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58.2%)이 보호관찰청소년(24.7%)보다 많았다.

표 Ⅲ-103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한 개인공부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해당있음	276 (58.2)	47 (24.7)	323 (48.6)
해당없음	198 (41.8)	143 (75.3)	341 (51.4)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60.898$ *** ($df=1$), * p<0.1 ** p<0.05 *** p<0.01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 기준 평일 3.45시간, 휴일 3.19시간이며 보호관찰청소년 기준 평일 2.77시간, 휴일 2.38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I-104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평균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값
평일	일반	276	3.45	2.208	2.013**
	보호관찰	47	2.77	1.820	
휴일	일반	276	3.19	3.071	2.248**
	보호관찰	47	2.38	2.090	

* p<0.1 ** p<0.05 *** p<0.01

여가시간에 휴대전화, 컴퓨터, 게임,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경우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89.7%가,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75.3%로 나타났다.

표 III-105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냄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해당있음	425 (89.7)	143 (75.3)	568 (85.5)
해당없음	49 (10.3)	47 (24.7)	96 (14.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2.739^{***} (df=1)$, * p<0.1 ** p<0.05 *** p<0.01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평균시간은 일반학업중단학생 기준 평일 4.34시간,

휴일 4.81시간이며 보호관찰중인 학업중단학생 기준 평일 3.83시간 과 휴일 3.84시간으로 보고되었다.

표 III-106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매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평균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값
평일	일반	425	4.34	3.185	1.919*
	보호관찰	143	3.83	2.596	
휴일	일반	425	4.81	3.288	3.109**
	보호관찰	143	3.84	2.976	

* p<0.1 ** p<0.05 *** p<0.01

여가시간에 운동, 취미, 동아리, 종교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52.1%, 보호관찰청소년의 35.8%가 이러한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107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을 다님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해당있음	247 (52.1)	68 (35.8)	315 (47.4)
해당없음	227 (47.9)	122 (64.2)	349 (52.6)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4.488$ *** (df=1), * p<0.1 ** p<0.05 *** p<0.01

이러한 취미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 기준 평일 1.8시간, 휴일 2.28시간이고 보호관찰청소년 기준 평일 1.83시간, 휴일 1.78시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평일에 운동이나 취미 등의 활동을 하는 시간에서는 일반학생과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없었으

나, 휴일의 경우에는 일반학생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에 보내는 시간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8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할애하는 평균 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값
평일	일반	247	1.80	1.454	-.157
	보호관찰	68	1.83	1.452	
휴일	일반	247	2.28	1.762	2.452**
	보호관찰	68	1.78	1.404	

* p<0.1 ** p<0.05 *** p<0.01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닌다는 응답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 81.2%, 보호관찰청소년 80.0%로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9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님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해당있음	385 (81.2)	152 (80.0)	537 (80.9)
해당없음	89 (18.8)	38 (20.0)	127 (19.1)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31 (df=1)$, * p<0.1 ** p<0.05 *** p<0.01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평균시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평일 3.32시간, 휴일 5.13시간이고,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평일 4.53시간, 휴일 5.35시간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이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휴일에는 두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Ⅲ-110 내가 하루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평균시간 (단위:시간)

평균시간		N	평균	표준편차	t값
평일	일반	385	3.32	2.818	-4.478***
	보호관찰	152	4.53	2.821	
휴일	일반	385	5.13	3.321	-.785
	보호관찰	152	5.35	2.831	

* p<0.1 ** p<0.05 *** p<0.01

(2) 식생활 습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식생활 습관을 분석한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아침식사를 2번 이하로 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39.2%인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58.9%로 나타났다.

표 Ⅲ-111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아침식사를 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그렇다	186 (39.2)	112 (58.9)	298 (44.9)
아니다	288 (60.8)	78 (41.1)	366 (55.1)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1.2932^{***}$ (df=1), * p<0.1 ** p<0.05 *** p<0.01

최근 일주일간 점심식사를 한 2회 이하로 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18.4%인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는 무려 64.2%가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12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점심식사를 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그렇다	87 (18.4)	122 (64.2)	210 (31.5)
아니다	387 (81.6)	68 (35.8)	455 (68.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32.232^{***}$ ($df=1$), * $p<0.1$ ** $p<0.05$ *** $p<0.01$

저녁식사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16.2%가 2번 이하로 저녁식사를 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68.4%가 2번 이하 저녁식사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13 일주일 동안 2번 이하 저녁식사를 함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그렇다	77 (16.2%)	130 (68.4)	207 (31.2)
아니다	397 (83.8)	60 (31.6)	457 (68.8)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72.092^{***}$ ($df=1$), * $p<0.1$ ** $p<0.05$ *** $p<0.01$

최근 일주일간 라면과 컵라면을 섭취한 횟수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26.6%가 일주일에 3회 이상 라면이나 컵라면을 먹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66.3%가 3회 이상 라면이나 컵라면을 먹었다고 응답하였다. 생활화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보다 비교적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반면, 보호관찰 청소년은 불규칙한 식사와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음식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1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3회 이상 먹었다. (단위: 명, %)

	대상자 구분		전체
	일반	보호관찰	
그렇다	126 (26.6)	126 (66.3)	252 (38.0)
아니다	348 (73.4)	64 (33.7)	412 (62.0)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90.932^{***} (df=1), *p<0.1 \quad **p<0.05 \quad ***p<0.01$

5) 학업 중단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에 다니는 것을 친구나 친척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48.9%인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69.5%가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응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표 III-115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일반	80 (16.9)	162 (34.2)	168 (35.4)	64 (13.5)	242 (51.1)	232 (48.9)	474 (100.0)
보호관찰	18 (9.5)	40 (21.1)	87 (45.8)	45 (23.7)	58 (30.6)	132 (69.5)	190 (100.0)
전체	98 (14.8)	202 (30.4)	255 (38.4)	109 (16.4)	300 (45.2)	364 (54.8)	664 (100.0)

 $\chi^2 = 25.064^{***} (df=3), *p<0.1 \quad **p<0.05 \quad ***p<0.01$

학업중단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아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58.4%와 보호관찰청소년의 66.3%가 문제아 취급을 받는다고 응답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는 보호관찰청소년이 좀 더 주위사람의 낙인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6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일반	63 (13.3)	134 (28.3)	193 (40.7)	84 (17.7)	197 (41.6)	277 (58.4)	474 (100.0)
보호관찰	17 (8.9)	47 (24.7)	88 (46.3)	38 (20.0)	64 (33.6)	126 (66.3)	190 (100.0)
전체	80 (12.0)	181 (27.3)	281 (42.3)	122 (18.4)	261 (39.3)	403 (60.7)	664 (100.0)

$\chi^2 = 4.133$ ($df=3$), * $p<0.1$ ** $p<0.05$ *** $p<0.01$

학업중단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는지를 질문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27.1%가 불안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37.4%가 불안하다고 응답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는 보호관찰청소년이 소속감이 없는데 대한 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17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였)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일반	156 (32.9)	190 (40.1)	105 (22.2)	23 (4.9)	346 (73.0)	128 (27.1)	474 (100.0)
보호관찰	42 (22.1)	77 (40.5)	56 (29.5)	15 (7.9)	119 (62.6)	72 (37.4)	190 (100.0)
전체	198 (29.8)	267 (40.2)	161 (24.2)	38 (5.7)	465 (70.)	199 (29.9)	664 (100.0)

$\chi^2 = 10.510$ ** ($df=3$), * $p<0.1$ ** $p<0.05$ *** $p<0.01$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0.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9%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118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일반	19 (4.0)	74 (15.6)	241 (50.8)	140 (29.5)	93 (19.6)	381 (80.3)	474 (100.0)
보호관찰	24 (12.6)	75 (39.5)	72 (37.9)	19 (10.0)	99 (52.1)	91 (47.9)	190 (100.0)
전체	43 (6.5)	149 (22.4)	313 (47.1)	159 (23.9)	192 (28.9)	472 (71.0)	664 (100.0)

 $\chi^2 = 76.431^{***}$ ($df=3$), $p<0.1$ $p<0.05$ $p<0.01$

이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을 후회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59.7%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는 72.1%가 후회한다고 응답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덜 후회하는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오히려 후회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9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일반	125 (26.4)	158 (33.3)	126 (26.6)	65 (13.7)	283 (59.7)	191 (40.3)	474 (100.0)
보호관찰	17 (8.9)	36 (18.9)	68 (35.8)	69 (36.3)	53 (27.8)	137 (72.1)	190 (100.0)
전체	142 (21.4)	194 (29.2)	194 (29.2)	134 (20.2)	336 (50.6)	328 (49.4)	664 (100.0)

 $\chi^2 = 67.133^{***}$ ($df=3$), $p<0.1$ $p<0.05$ $p<0.01$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는지를 비교한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74.3%가 행복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42.6%만이 행복하다고 응답해 학업 중단 이후의 행복감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표 Ⅲ-120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

(단위: 명,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정	긍정	전체
일반	27 (5.7)	95 (20.0)	236 (49.8)	116 (24.5)	122 (25.7)	247 (74.3)	474 (100.0)
보호관찰	28 (14.7)	81 (42.6)	69 (36.3)	12 (6.3)	109 (57.5)	81 (42.6)	190 (100.0)
전체	55 (8.3)	176 (26.5)	305 (45.9)	128 (19.3)	231 (34.8)	433 (65.2)	664 (100.0)

$\chi^2 = 68.050^{***}$ ($df=3$), * $p<0.1$ ** $p<0.05$ *** $p<0.01$

5. 학업 중단과 문제행동

1)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피해경험

(1) 집단따돌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피해경험을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집단따돌림’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17.5%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4.7%만 집단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집단따돌림의 피해경험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1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83 (17.5)	9 (4.7)	92 (13.9)	3 (0.6)	0 (0.0)	3 (0.5)
없다	391 (82.5)	181 (95.3)	572 (86.1)	471 (99.4)	190 (100.0)	661 (99.5)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18.542^{***} (df=1)$			$\chi^2 = 1.208 (df=1)$			

* p<0.1 ** p<0.05 *** p<0.01

(2) 성적인 놀림당하기

‘성적인 놀림당하기’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4.6%가, 보호관찰청소년은 4.2%가 성적인 놀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성적인 놀림에 있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1.3%,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1.1%가 성적인 놀림을 당했다고 응답해 학업중단 이전과 비교할 때 성적인 놀림을 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2 성적인 놀림 당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22 (4.6)	8 (4.2)	30 (4.5)	6 (1.3)	2 (1.1)	8 (1.2)
없다	452 (95.4)	182 (95.8)	634 (95.5)	468 (98.7)	188 (98.9)	656 (98.8)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058\ (df=1)$			$\chi^2=.052\ (df=1)$			

* p<0.1 ** p<0.05 *** p<0.01

(3)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학업중단 이전에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3.4%, 보호관찰청소년은 2.1%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 2.5%, 보호관찰청소년 1.1%가 음란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일방적인 음란물을 받은 경험이 다소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며, 학업중단 이전과 비교해 학업중단 이후 음란물을 받은 경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Ⅲ-123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16 (3.4)	4 (2.1)	20 (3.0)	13 (2.5)	2 (1.1)	14 (2.1)
없다	458 (96.6)	186 (97.9)	644 (97.0)	462 (97.5)	188 (98.9)	650 (97.9)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749\ (df=1)$			$\chi^2=1.437\ (df=1)$			

* p<0.1 ** p<0.05 *** p<0.01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기 혹은 상납’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에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6.8%, 보호관찰청소년은 5.8%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 0.4%, 보호관찰청소년 1.6%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간에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긴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기기 (상납)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32 (6.8)	11 (5.8)	43 (6.5)	2 (0.4)	3 (1.6)	5 (0.8)
없다	442 (93.2)	179 (94.2)	621 (93.5)	472 (99.6)	187 (98.4)	659 (99.2)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207 (df=1)$			$\chi^2 = 2.429 (df=1)$		

* p<0.1 ** p<0.05 *** p<0.01

(5) 심하게 얻어맞기

‘심하게 얻어맞기 혹은 폭행’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에는 7.8%가 피해를 당한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피해율이 1.1%로 현저히 줄었고,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에도 학업중단 이전에는 8.4%가 폭행피해를 경험한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피해율이 0.5%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학업중단 이전의 폭행피해의 경험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Ⅲ-125 심하게 얻어맞기 (폭행)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37 (7.8)	16 (8.4)	53 (8.0)	5 (1.1)	1 (0.5)	6 (0.9)
없다	437 (92.2)	174 (91.6)	611 (92.0)	469 (98.9)	189 (99.5)	658 (99.1)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070\ (df=1)$			$\chi^2=.423\ (df=1)$		

* p<0.1 ** p<0.05 *** p<0.01

(6) 성폭력 당하기

‘성폭력 당하기’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에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2.5%, 보호관찰청소년은 2.1%가 피해를 당한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 0.6%, 보호관찰청소년 0.5%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성폭력 피해경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26 성폭력 당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12 (2.5)	4 (2.1)	16 (2.4)	3 (0.6)	1 (0.5)	4 (0.6)
없다	462 (97.5)	186 (97.9)	648 (97.6)	471 (99.4)	189 (99.5)	660 (99.4)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105\ (df=1)$			$\chi^2=.026\ (df=1)$			

* p<0.1 ** p<0.05 *** p<0.01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피해경험에 있어 차이는 학업중단 이전이나 이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비행경험

(1) 담배 피우기

다음으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경험을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로 비교해 보았다. 먼저 ‘담배 피우기’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58.9%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무려 91.6%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나타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흡연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흡연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54.4%, 보호관찰청소년은 87.4%가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하였다. 비록 학업중단 이후 흡연율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보호관찰청소년의 흡연율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높았고,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Ⅲ-127 담배 피우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279 (58.9)	174 (91.6)	453 (68.2)	258 (54.4)	166 (87.4)	424 (63.9)
없다	195 (41.1)	16 (8.4)	211 (31.8)	216 (45.6)	24 (12.6)	240 (36.1)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66.973^{***} (df=1)$			$\chi^2 = 63.756^{***} (df=1)$		

* p<0.1 ** p<0.05 *** p<0.01

(2) 술 마시기

‘술 마시기’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57.8%가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그 비율이 60.5%로 오히려 증가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는 77.9%가 술을 마신다고 응답한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그 비율이 77.4%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 모두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음주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에 비해 학업중단 이후 음주가 다소 증가한 것은 흡연과는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표 Ⅲ-128

술 마시기

(단위: 명,%)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274 (57.8)	148 (77.9)	422 (63.6)	287 (60.5)	147 (77.4)	434 (65.4)
없다	200 (42.2)	42 (22.1)	242 (36.4)	187 (39.5)	43 (22.6)	230 (34.6)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3.631^{***} (df=1)$			$\chi^2 = 16.948^{***} (df=1)$		

*p<0.1 **p<0.05 ***p<0.01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에 대해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에 14.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에 44.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3배가량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4.6%,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26.8%로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크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은 여전히 남의 돈이 물건을 훔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29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69 (14.6)	85 (44.7)	154 (23.2)	22 (4.6)	51 (26.8)	73 (11.0)
없다	405 (85.4)	105 (55.3)	510 (76.8)	452 (95.4)	139 (73.2)	591 (89.0)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69.350^{***} (df=1)$			$\chi^2 = 68.316^{***} (df=1)$		

*p<0.1 **p<0.05 ***p<0.01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18.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35.3%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그 비율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Ⅲ-130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88 (18.6)	67 (35.3)	155 (23.3)	34 (7.2)	35 (18.4)	69 (10.4)
없다	386 (81.4)	123 (64.7)	509 (76.7)	440 (92.8)	155 (81.6)	595 (89.6)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21.133^{***} \text{ (df=1)}$			$\chi^2 = 18.428^{***} \text{ (df=1)}$			

*p<0.1 **p<0.05 ***p<0.01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7.2%,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18.4%가 다른 사람을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해 학업중단 이전에 비해서는 비율이 상당부분 줄었으나, 여전히 보호관찰청소년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비율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서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17.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39.5%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에는 그 비율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4.0%,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18.9%로 각각 크게 줄어들었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간의 경험차이는 학업이전과 이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II-131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뺨 뜯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83 (17.5)	75 (39.5)	158 (23.8)	19 (4.0)	36 (18.9)	55 (8.3)
없다	391 (82.5)	115 (60.5)	506 (76.2)	455 (96.0)	154 (81.1)	609 (91.7)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36.081^{***} (df=1)$			$\chi^2 = 39.844^{***} (df=1)$		

* p<0.1 ** p<0.05 *** p<0.01

(6) 음란물 보기

‘음란물 보기’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에 일반학업중단청소년 25.1%, 보호관찰 25.3%가 음란물을 보았다고 응답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18.6%가 음란물을 보았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15.8%가 음란물을 보았다고 응답해 학업중단 이전과 비교해 음란물을 보는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는 보호관찰청소년에서 음란물을 보는 비율이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132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보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119 (25.1)	48 (25.3)	167 (25.2)	88 (18.6)	30 (15.8)	118 (17.8)
없다	355 (74.9)	142 (74.7)	497 (74.8)	386 (81.4)	160 (84.2)	546 (82.2)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002 (df=1)$			$\chi^2 = .715 (df=1)$		

* p<0.1 ** p<0.05 *** p<0.01

(7) 돈 내기 또는 도박

‘돈 내기 · 도박해 보기’의 경우 학업중단 이전에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16.7%가, 보호관찰청소년은 18.4%가 돈내거나 도박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이 11.6%,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10.5%로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돈 내거나 도박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이나 이후 모두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았고, 학업중단 이후의 감소비율도 다른 비행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133 돈 내기·도박해 보기 (인터넷 포함)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79 (16.7)	35 (18.4)	114 (17.2)	55 (11.6)	20 (10.5)	75 (11.3)
없다	395 (83.3)	155 (81.6)	550 (82.8)	419 (88.4)	170 (89.5)	589 (88.7)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294 \ (df=1)$			$\chi^2 =.157 \ (df=1)$			

*p<0.1 **p<0.05 ***p<0.01

(8) 자살 시도

‘자살 시도’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1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8.9%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보다 자살 시도의 비율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134 자살 시도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78 (16.5)	17 (8.9)	95 (14.3)	34 (7.2)	13 (6.8)	47 (7.1)
없다	396 (83.5)	173 (91.1)	569 (85.7)	440 (92.8)	177 (93.2)	617 (92.9)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6.237^{**} \text{ (} df=1 \text{)}$			$\chi^2 = .023 \text{ (} df=1 \text{)}$			

*p<0.1 **p<0.05 ***p<0.01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7.2%로 절반가까이 자살 시도가 줄어드는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의 자살 시도 경험은 6.8%로 나타나 학업중단 이전에 비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만큼 크게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18.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26.3%가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을 파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 공공기물의 파손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8.9%)과 보호관찰청소년(16.8%) 모두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을 파손한 경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여전히 보호관찰청소년의 공공기물 파손경험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III-135 공공장소의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단위: 명, %)

	학업중단이전		전체	학업중단이후		전체
	일반	보호관찰		일반	보호관찰	
있다	88 (18.6)	50 (26.3)	138 (20.8)	42 (8.9)	32 (16.8)	74 (11.1)
없다	386 (81.4)	140 (73.7)	526 (79.2)	432 (91.1)	158 (83.2)	590 (88.9)
전체	474 (100.0)	190 (100.0)	664 (100.0)	474 (100.0)	190 (100.0)	664 (100.0)
	$\chi^2 = 4.949^{**}$ ($df=1$)			$\chi^2 = 8.725^{**}$ ($df=1$)		

*p<0.1 **p<0.05 ***p<0.01

6. 보호관찰청소년의 범죄경험과 지원 실태

여기서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범죄관련 특성과 이들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호처분의 내용

(1) 이번 보호관찰받기 이전의 처분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이번 보호관찰을 받기 이전에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80.5%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이 장기보호관찰대상이었던 점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재비행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보호관찰 이전에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19.5%로 나타났다.

표 Ⅲ-136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 유무 (단위: 명, %)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		전체
있다	없다	
153	37	190
(80.5)	(19.5)	(100.0)

이번 보호관찰을 받기 이전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전 처분횟수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전 처분횟수가 1회인 경우가 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2회가 22.9%, 3회가 10.5%, 4회가 6.5%, 5회가 0.7%의 순이었다.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이전 처분횟수를 보면, 1회가 절반 이상이고 1, 2회를 합한 비율이 82.4%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이번 보호관찰을 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횟수의 평균은 1.66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7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횟수

(단위: 명, %)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횟수					전체	평균
1회	2회	3회	4회	5회		
91 (59.5)	35 (22.9)	16 (10.5)	10 (6.5)	1 (0.7)	153 (100.0)	1.66

한편 성별로 보호관찰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표Ⅲ-138>과 같다. 남자의 경우 보호관찰받기 이전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비율이 80.6%, 처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19.4%로 나타났다. 여자도 남자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서 처분 받은 적이 있다고 없다는 비율이 각각 80.4%, 19.6%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8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38 성별 이전의 처분경험 유무

(단위: 명, %)

나이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받은 경험 유무		전체
	있다	없다	
남자	116 (80.6)	28 (19.4)	144 (100.0)
여자	37 (80.4)	9 (19.6)	46 (100.0)

$$\chi^2 = .000 (df=1), * p<0.1 \quad ** p<0.05 \quad *** p<0.01$$

연령별로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유무를 분석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15세-17세 이하, 19세 이상의 경우 이전 처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80%대였으며, 없다는 비율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의 경우는 이전 처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70%대였으며, 이전 처분경험이 없는 비율이 20%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서 이전 처분경험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39 연령별 이전 처분경험 유무

(단위: 명, %)

연령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받은 경험 유무		전체
	있다	없다	
15세~17세 이하	46 (83.6)	9 (16.4)	55 (100.0)
18세	50 (74.6)	17 (25.4)	67 (100.0)
19세이상	57 (85.1)	10 (14.9)	67 (100.0)

$\chi^2 = 2.734$ ($df=2$), * $p<0.1$ ** $p<0.05$ *** $p<0.01$

(2) 보호관찰 내용

먼저 이번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절도가 32.6%였으며, 폭력이 21.1%, 교통범죄가 6.8%, 약물범죄가 3.2%, 강도가 2.1%, 기타가 42.6%였다.

표 III-140 이번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복수 응답)

(단위: 명, %)

	폭력	절도	강도	약물	교통범죄	기타	전체
전체	40 (21.1)	62 (32.6)	4 (2.1)	6 (3.2)	13 (6.8)	81 (42.6)	190 (100.0)

죄명을 성별로 보면 남자의 경우 절도가 3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폭력이 19.4%, 교통범죄가 9.0% 등의 순이었다. 여자의 경우 폭력과 절도가 각각 26.1%, 21.7%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절도가 많은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폭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41 성별 이번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복수 응답)

(단위: 명, %)

성별	폭력	절도	강도	약물	교통범죄
남자	28 (19.4)	52 (36.1)	3 (2.1)	4 (2.8)	13 (9.0)
여자	12 (26.1)	10 (21.7)	1 (2.2)	2 (4.3)	0 (0.0)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로 이번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 보호관찰을 받기 이전에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가 45.1%, 절도가 31.4%, 폭력이 20.3%, 교통범죄가 7.8%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호관찰이전에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절도가 37.8%, 기타가 32.4%, 폭력이 24.3%, 강도가 5.4% 등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에 해당하는 비율이 많은 편인데, 이는 기타에 보호관찰위반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절도와 폭력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는 이러한 범죄유형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Ⅲ-142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이번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복수 응답) (단위: 명, %)

이전 처분받은 경험유무	폭력	절도	강도	약물	교통범죄
있다	31 (20.3)	48 (31.4)	2 (1.3)	5 (3.3)	12 (7.8)
없다	9 (24.3)	14 (37.8)	2 (5.4)	1 (2.7)	1 (2.7)

연령별로 이번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을 살펴보면, 연령대에 관계없이 절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절도의 비율은 15-17세 이하에서 36.4%였으며, 18세는 35.8%, 19세 이상은 25.4%를 차지하였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절도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그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어린 연령층에서 절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의 비율은 15-17세에서 23.6%였으며, 19세 이상에서는 22.4%, 18세에서는 1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대에 관계없이 절도 다음으로는 폭력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43 연령별 이번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복수 응답) (단위: 명, %)

연령	폭력	절도	강도	약물	교통범죄
15세~17세 이하	13 (23.6)	20 (36.4)	0 (0.0)	2 (3.6)	5 (9.1)
18세	12 (17.9)	24 (35.8)	1 (1.5)	1 (1.5)	4 (6.0)
19세 이상	15 (22.4)	17 (25.4)	3 (4.5)	3 (4.5)	4 (6.0)

다음으로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장기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경우가 5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보호자교육은 16.5%, 상담교육은 8.5% 등이었다. 부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는 29.8%였다. 전체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장기보호관찰 이외에 부가처분을 받는 경우가 70% 대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44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단위: 명, %)

	부가처분 없음	야간외출 제한명령	상담교육	보호자교육	기타	전체
전체	56 (29.8)	112 (59.6)	16 (8.5)	31 (16.5)	11 (5.9)	188 (100.0)

성별로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특히 남자의 경우 62.9%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여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48.9%). 한편 여자의 경우는 부가처분이 없는 비율이 35.6%로 남자의 28.0%에 비해 많았다. 또한 보호자교육과 상담교육도 각각 24.4%, 13.3%로

남자의 14.0%, 7.0%에 비해 높았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가처분으로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남자는 특히 야간외출제한명령이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부가처분이 없거나 보호자교육, 상담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45 성별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단위: 명, %)

	부가처분 없음	야간외출 제한명령	상담교육	보호자교육
남자	40 (28.0)	90 (62.9)	10 (7.0)	20 (14.0)
여자	16 (35.6)	22 (48.9)	6 (13.3)	11 (24.4)

이번 보호관찰에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을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 유무별로도 분석해 보았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비율이 각각 59.9%, 58.3%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이전 처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29.6%, 30.6%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상담교육도 이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 8.6%, 8.3%로 비슷하였다. 한편 보호자교육의 경우에는 이전에 처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7.8%로 이전에 처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의 11.1%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이전에 처분 받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부가적으로 받는 처분이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46 이전 처분경험유무별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단위: 명, %)

이전 처분 받은 경험유무	부가처분 없음	야간외출 제한명령	상담교육	보호자교육
있다	45 (29.6)	91 (59.9)	13 (8.6)	27 (17.8)
없다	11 (30.6)	21 (58.3)	3 (8.3)	4 (11.1)

연령별로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비율이 18세에서 64.2%로 가장 높았으며, 19세 이상은 59.7%, 15-17세 이하에서는 54.7%로 나타났다. 부가처분이 없는 경우는 15-17세 이하에서 34.0%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19세 이상은 29.9%, 18세는 25.4%로 나타났다.

표 Ⅲ-147 **연령별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복수 응답)** (단위: 명, %)

연령	부가처분 없음	야간외출 제한명령	상담교육	보호자교육
15세~17세 이하	18 (34.0)	29 (54.7)	6 (11.3)	10 (18.9)
18세	17 (25.4)	43 (64.2)	4 (6.0)	9 (13.4)
19세 이상	20 (29.9)	40 (59.7)	6 (9.0)	12 (17.9)

상담교육도 15-17세 이하에서 11.3%로 19세 이상의 9.0%, 18세의 6.0%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교육도 15-17세 이하가 18.9%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많았으며, 19세 이상과 18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17.9%, 13.4%로 나타났다.

2) 범죄행위의 특성

(1) 공범유무 및 공범자들 간의 관계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범죄행위 특성을 공범유무, 공범자들 간의 관계, 범죄동기, 범행당시 거주지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의 범죄행위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 더 나아가서는 재비행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번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 범죄와 관련하여 공범유무를 보면 65.8%는 다른 사람과 같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한 경우는 34.2%였다. 조사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범죄를 다른 사람과 같이 한 경우가 혼자서 한 경우보다 30% 정도 많은 것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친구의 영향이 큰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며, 재적응을 돕고 재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부정적 영향을

표 III-148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단위: 명, %)

나이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전체
	혼자서 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했다	
전체	65 (34.2)	125 (65.8)	190

표 III-149 성별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단위: 명, %)

나이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전체
	혼자서 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했다	
남자	50 (34.7)	94 (65.3)	144 (100.0)
여자	15 (32.6)	31 (67.4)	46 (100.0)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범유무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에 처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공범이 있는 비율이 73.0%로 이전에 처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의 64.1%에 비해 많았다. 반면 이전에 처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범의 비율이 35.9%로 이전 처분경험이 없는 경우의 27.0%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II-150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단위: 명, %)

이전 처분받은 경험유무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전체
	혼자서 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했다	
있다	55 (35.9)	98 (64.1)	153 (100.0)
없다	10 (27.0)	27 (73.0)	37 (100.0)

$$\chi^2 = 1.053 (df=1), *p<0.1 \quad **p<0.05 \quad ***p<0.01$$

이번에 보호처분을 받게 된 행위의 공범유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연령대에 관계없이 공범이 있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15-17세 이하의 경우 공범이 있는 비율이 70.9%로 18세의 65.7%, 19세 이상의 62.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범의 비율은 19세 이상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18세, 15-17세 이하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공범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151 연령별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단위: 명, %)

연령	이번 보호처분을 받은 행위의 공범 유무		전체
	혼자서 했다	다른 사람과 같이 했다	
15세~17세 이하	16 (29.1)	39 (70.9)	55 (100.0)
18세	23 (34.3)	44 (65.7)	67 (100.0)
19세 이상	25 (37.3)	42 (62.7)	67 (100.0)

$$\chi^2 = .922 (df=2), *p<0.1 \quad **p<0.05 \quad ***p<0.01$$

공범유무에 이어서 공범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친구가 6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친구와 선후배가 25.6%로 1/4 가량 되었다. 선후배는

표 III-152 공범자들 간의 관계 (단위: 명, %)

공범자들 간의 관계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남자와 여자 모두 친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은 친구와 선후배의 순이었다.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 친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친구	선후배	친구와 선후배	기타	전체
남자	56 (59.6)	11 (11.7)	24 (25.5)	3 (3.2)	94 (100.0)
여자	21 (67.7)	1 (3.2)	8 (25.8)	1 (3.2)	31 (100.0)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유무별로 공범자들 간의 관계를 보면, 이전 처분 유무에 관계없이 친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친구와 선후배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처분이 있는 경우에 비해 친구의 비율이 조금 높으며, 이전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처분이 없는 경우에 비해 친구와 선후배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그러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I-154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공범자들 간의 관계 (단위: 명, %)

이전 처분받은 경험유무	친구	선후배	친구와 선후배	기타	전체
있다	59 (60.2)	11 (11.2)	26 (26.5)	2 (2.0)	98 (100.0)
없다	18 (66.7)	1 (3.7)	6 (22.2)	2 (7.4)	27 (100.0)

$\chi^2 = 3.449(df=3)$, * $p<0.1$ ** $p<0.05$ *** $p<0.01$

연령별로 공범자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관계없이 친구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친구와 선후배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의 비율은 19세 이상에서 69.0%로 가장 높았으며 18세는 61.4%, 15-17세 이하는 53.8%로 나타났다.

표 III-155 연령별 공범자들 간의 관계 (단위: 명, %)

연령	친구	선후배	친구와 선후배	기타	전체
15세~17세 이하	21 (53.8)	3 (7.7)	14 (35.9)	1 (2.6)	39 (100.0)
18세	27 (61.4)	4 (9.1)	10 (22.7)	3 (6.8)	44 (100.0)
19세 이상	29 (69.0)	5 (11.9)	8 (19.0)	0 (0.0)	42 (100.0)

$\chi^2 = 6.806 (df=6)$ * $p<0.1$ ** $p<0.05$ *** $p<0.01$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친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친구와 선후배의 비율은 15-17세 이하에서 35.9%로 가장 높았으며, 18세는 22.7%, 19세 이상은 19.0%였다. 즉 연령대가 낮을수록 친구와 선후배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는 어린 연령대일수록 친구 이외에 선후배를 포함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2) 범행동기

보호관찰청소년들의 비행원인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된 행위의 가장 주된 이유를 알아보았다. 이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담당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이다.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에게는 범죄관련 내용을 직접 알아보지 않았으므로 범죄의 원인 또한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보호관찰관은 담당 청소년의 범죄 및 관련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범행동기를 파악해 보았다.

표 Ⅲ-156 보호관찰을 받게 된 행위의 가장 주된 이유 (단위: 명, %)

	화가 나서	심심풀이 나 재미로	호기심 으로	생계비가 필요해서	유혹비가 필요해서	친구가 하자고해 서	기타	전체
전체	23 (12.1)	15 (7.9)	26 (13.7)	14 (7.4)	46 (24.2)	32 (16.8)	34 (17.9)	190 (100.0)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유혹비가 필요해서’가 2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친구가 하자고 해서’가 16.8%, ‘호기심으로’가 13.7%, ‘화가 나서’가 12.1%, ‘심심풀이나 재미로’가 7.9%, ‘생계비가 필요해서’가 7.4%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의 범행동기를 보면, 생계비 마련이라는 절박한 이유보다는 유혹비 마련이나 친구의 유혹, 호기심이나 분노, 심심풀이 등의 동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유혹비가 필요해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남자의 경우 ‘친구가 하자고 해서’였으며, 여자는 ‘친구가 하자고 해서’와 ‘화가 나서’가 같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기타제외). 성별에 관계없이 유혹비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57 성별 보호관찰을 받게 된 행위의 가장 주된 이유 (단위: 명, %)

	화가 나서	심심풀이 나 재미로	호기심 으로	생계비가 필요해서	유혹비가 필요해서	친구가 하자고 해서	기타	전체
남자	16 (11.1)	15 (10.4)	20 (13.9)	10 (6.9)	35 (24.3)	25 (17.4)	23 (16.0)	144 (100.0)
여자	7 (15.2)	0 (0.0)	6 (13.0)	4 (8.7)	11 (23.9)	7 (15.2)	11 (23.9)	46 (100.0)

$\chi^2 = 6.766$ ($df=6$), * $p<0.1$ ** $p<0.05$ *** $p<0.01$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유무별로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이전 처분경험 유무에 따라 범행동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기타를 제외하고는 유혹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경우가 이전 처분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가장 많았지만, 이전 처분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37.8%로 이전 처분경험이 있는 경우의 20.9%에 비해 높았다. 또한 화가 나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경우도 이전 처분이 없는 경우에 각각 16.2%로 이전 처분이 있는 경우에 비해 높았다(이전 처분경험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각각 11.1%, 5.2%).

반면 이전 처분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친구가 하자고 해서’의 비율이 19.0%로 이전 처분이 없는 경우의 8.1%에 비해 높았다. 또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한 경우도 14.4%로 이전 처분경험이 없는 경우의 10.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 친구로부터의 유혹을 차단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표 Ⅲ-158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보호관찰을 받게 된 행위의 가장 주된 이유 (단위: 명, %)

	화가 나서	심심풀이 나 재미로	호기심 으로	생계비가 필요해서	유형비가 필요해서	친구가 하자고 해서	기타	전체
있다	17 (11.1)	12 (7.8)	22 (14.4)	8 (5.2)	32 (20.9)	29 (19.0)	33 (21.6)	153 (100.0)
없다	6 (16.2)	3 (8.1)	4 (10.8)	6 (16.2)	14 (37.8)	3 (8.1)	1 (2.7)	37 (100.0)

$$\chi^2 = 17.334^{***} (df=6), * p<0.1 \quad ** p<0.05 \quad *** p<0.01$$

연령별로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관계없이 유형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을 한 경우가 각각 20%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가 하자고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19세 이상보다는 18세, 15-17세 이하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별로 범행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Ⅲ-159 연령별 보호관찰을 받게 된 행위의 가장 주된 이유 (단위: 명, %)

연령	화가 나서	심심풀이 나 재미로	호기심 으로	생계비가 필요해서	유형비가 필요해서	친구가 하자고 해서	기타	전체
15세~ 17세이하	8 (14.5)	4 (7.3)	6 (10.9)	2 (3.6)	15 (27.3)	10 (18.2)	10 (18.2)	55 (100.0)
18세	6 (9.0)	3 (4.5)	10 (14.9)	8 (11.9)	15 (22.4)	13 (19.4)	12 (17.9)	67 (100.0)
19세 이상	9 (13.4)	8 (11.9)	9 (13.4)	4 (6.0)	16 (23.9)	9 (13.4)	12 (17.9)	67 (100.0)

$$\chi^2 = 7.862 (df=12), * p<0.1 \quad ** p<0.05 \quad *** p<0.01$$

(3) 범행당시 거주지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이번 보호관찰을 받게 된 범죄행위를 할 당시 거주지가

어디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76.3%는 범죄행위를 할 당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행위를 할 당시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한 경우는 15.9%, 친구나 선후배 집에서 생활한 경우는 6.3%, 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범죄행위를 할 당시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20%대는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보여 진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정구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구조화된 활동이 있지 않는 한 생활이 불규칙, 불안정해지기 쉬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거도 불안정하다면 이러한 일상생활은 범죄가해나 피해에 더 쉽게 노출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I-160 보호처분을 받을 행위를 할 당시의 거주지 (단위: 명, %)

연령	집	친구나 선후배 집	쉼터 등 보호시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	전체
전체	144 (76.2)	12 (6.3)	3 (1.6)	30 (15.9)	189 (100.0)

$\chi^2 = 3.537$ ($df=6$, $p=.739$), * $p<0.1$ ** $p<0.05$ *** $p<0.01$

성별로 범행당시 거주지를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집에서 거주하였던 비율이 가장 높지만 남자가 여자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반면 여자는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한 경우와 친구나 선후배 집에서 생활한 경우가 남자에 비해 많았다. 이는 여자 청소년이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여자청소년의 주거안정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표 III-161

성별 보호처분을 받을 행위를 할 당시의 거주지

(단위: 명, %)

	집	친구 집 또는 선후배 집	쉼터 등 보호시설	한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	전체
남자	116 (80.6)	7 (4.9)	2 (1.4)	19 (13.2)	114 (100.0)
여자	29 (63.0)	5 (10.9)	1 (2.2)	11 (23.9)	46 (100.0)

 $\chi^2 = 6.067$ ($df=3$), * $p<0.1$ ** $p<0.05$ *** $p<0.01$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로 범행당시 거주지를 살펴보면 이전 처분 유무에 관계없이 집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한 경우, 친구나 선후배 집의 순이었다.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은 이전 처분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II-162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보호처분을 받을 행위를 할 당시의 거주지 (단위: 명, %)

이전 처분받은 경험유무	집	친구집이나 선후배 집	쉼터 등 보호시설	한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	전체
있다	116 (75.8)	10 (6.5)	3 (2.0)	24 (15.7)	153 (100.0)
없다	29 (78.4)	2 (5.4)	0 (0.0)	6 (16.2)	37 (100.0)

 $\chi^2 = .817$ ($df=3$), * $p<0.1$ ** $p<0.05$ *** $p<0.01$

연령별로 범행당시 거주지를 보면,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과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집이 가장 많으며(각각 70%대) 다음은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한 경우(각각 10%대), 다음은 친구나 선후배 집의 순이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Ⅲ-163 보호처분을 받을 행위를 할 당시의 거주지 (단위: 명, %)

연령	집	친구나 선후배 집	쉼터 등 보호시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	전체
15세~17세 이하	42 (76.4)	2 (3.6)	1 (1.8)	10 (18.2)	55 (100.0)
18세	51 (76.1)	4 (6.0)	2 (3.0)	10 (14.9)	67 (100.0)
19세 이상	51 (76.1)	6 (9.0)	0 (0.0)	10 (14.9)	67 (100.0)

$\chi^2 = 3.537$ ($df=6$, $p=.739$), * $p<0.1$ ** $p<0.05$ *** $p<0.01$

3) 보호관찰 지원

(1) 지원내용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청소년들이 보호관찰소를 통해서 받고 있는 지원들을 살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에서 제시된 지원들 중에서 상담지원이 35.1%, 학업지원이 17.8%, 원호금, 장학금 지원이 13.0%, 직업훈련기관 연계, 알선이 12.4%, 취업지원이 5.4% 등으로 나타났다. 상담지원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상담지원이 이후 필요한 지원들과 연계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지원이나 원호금, 장학금 지원이 직업훈련기관 연계, 알선이나 취업지원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대상이 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취업보다는 학업과 관련된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 Ⅲ-164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 (단위: 명, %)

	직업훈련 기관연계, 알선	취업지원	학업지원	원호금, 장학금 지원	상담지원	기타	전체
전체	23 (12.4)	10 (5.4)	33 (17.8)	24 (13.0)	65 (35.1)	65 (35.1)	185 (100.0)

성별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을 살펴보면, 상담지원이 남자와 여자 각각 35.0%, 35.6%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업지원도 남녀 각각 17.9%, 17.8%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원호금, 장학금 지원은 남녀 각각 13.6%, 11.1%, 직업훈련기관 연계 및 알선이 남녀 각각 12.1%, 13.3% 등으로 나타났다.

표 Ⅲ-165 성별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복수 응답) (단위: 명, %)

	직업훈련기관연 계, 알선	취업지원	학업지원	원호금, 장학금 지원	상담지원
남자	17 (12.1)	8 (5.7)	25 (17.9)	19 (13.6)	49 (35.0)
여자	6 (13.3)	2 (4.4)	8 (17.8)	5 (11.1)	16 (35.6)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을 보면, 이전 처분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지원이 34.2%, 학업지원이 19.5%, 원호금, 장학금 지원이 11.4%, 직업훈련기관 연계, 알선이 10.1% 등으로 나타났다. 이전 처분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담지원이 38.9%, 직업훈련기관 알선, 연계가 22.2%, 원호금, 장학금 지원이 19.4%, 취업지원이 13.9%, 학업지원이 11.1%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결과를 보면, 이전 처분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상담지원이 가장 많지만, 처분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업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처분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기관연계, 알선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66 이전 처분경험 유무별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복수 응답) (단위: 명, %)

이전 처분받은 경험유무	직업훈련기관연 계, 알선	취업지원	학업지원	원호금, 장학금 지원	상담지원
있다	15 (10.1)	5 (3.4)	29 (19.5)	17 (11.4)	51 (34.2)
없다	8 (22.2)	5 (13.9)	4 (11.1)	7 (19.4)	14 (38.9)

연령별로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을 살펴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상담지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학업지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비율은 18세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15-17세 이하, 19세 이상의 순이었다. 직업훈련기관연계, 알선의 경우에도 18세와 15-17세 이하의 경우 각각 16.7%, 15.7%로 19세 이상의 6.0%에 비해 높았다. 이는 어린 연령대일수록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분야가 더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Ⅲ-167 연령별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복수 응답) (단위: 명, %)

연령	직업훈련기관 연계, 알선	취업지원	학업지원	원호금, 장학금 지원	상담지원
15세~17세 이하	8 (15.7)	2 (3.9)	9 (17.6)	5 (9.8)	21 (41.2)
18세	11 (16.7)	3 (4.5)	15 (22.7)	14 (21.2)	18 (27.3)
19세 이상	4 (6.0)	5 (7.5)	9 (13.4)	5 (7.5)	26 (38.8)

(2)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재적응을 위해서, 혹은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지지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보호관찰관은 긍정적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4가지 항목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보호관찰관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67.9%, 매우 그렇다가 27.9%로 나타났다. 즉, 이 항목에 대해 긍정하는 비율이 95.8%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가 3.7%, 전혀 그렇지 않다가 0.5%로 부정하는 비율은 4.2%에 불과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청소년들의 거의 대부분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호관찰관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려고 하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8.4%,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5.3%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93.7%가 이 항목에 대해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5.8%)와 전혀 그렇지 않다(0.5%)고 생각하는 사람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보호관찰관

선생님이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파악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우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60.5%,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35.8%로 나타났다. 즉 보호관찰 선생님이 자신을 잘 돕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6.3%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7%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없었다. 즉 조사대상이 된 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은 보호관찰관 선생님이 자신을 잘 돕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관찰 선생님에게 내 문제를 의논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62.1%와 27.4%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의 89.5%는 보호관찰 선생님과 자신의 문제를 의논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보호관찰 선생님과 의논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이 항목은 앞서 살펴 본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는 긍정화하는 비율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의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나 관계형성을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이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9%, 1.6%였다. 10.5%의 응답자는 보호관찰 선생님과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168 보호관찰관과의 관계

(단위: 명,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나의 문제점 파악에 노력하신다	1 (0.5)	7 (3.7)	129 (67.9)	53 (27.9)	190 (100.0)	3.23
내 고민이나 어려움을 알려고 하신다	1 (0.5)	11 (5.8)	130 (68.4)	48 (25.3)	190 (100.0)	3.18
나를 잘 도우신다	0 (0.0)	7 (3.7)	115 (60.5)	68 (35.8)	190 (100.0)	3.32
내 문제를 의논한다	3 (1.6)	17 (8.9)	118 (62.1)	52 (27.4)	190 (100.0)	3.15

7. 소결

학업을 중단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을 학업중단 현황,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과 인식, 심리·정서적 상태, 부모·친구관계·지역사회 특성, 일상 활동 및 미래에 대한 태도, 생애사건 경험, 문제행동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학업중단 현황과 관련하여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이 좀 더 이른 시기, 즉 중학교 시절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업중단의 형태에서도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주로 자발적 자퇴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는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주로 유예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나 진로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진로상담이나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주로 일자리 소개라든지 직업기술훈련에 대한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 복학경험에 있어서도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 복학한 경험이 적은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3분의 1가량이 복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과 복학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업중단 시 고민을 상담한 사람에 대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부모님이나 교사와 상의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일반보호관찰청소년은 친구나 선후배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아무와도 상담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 학업중단 시 이들에 대한 초기 상담이나 개입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검정고시나 직업기술, 취미나 동아리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러 다니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출팸과 함께 생활하는 비율도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이 후회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심리·정서적 측면에서는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우울감 등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다만, 자아탄력성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대안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생활 습관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좀 더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불규칙한 식사와 라면과 같은 인스턴트 식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친구들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들이 보다 비행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들과의 애착정도에 있어 차이는 없었다.

다섯째,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분석 결과, 집단따돌림 피해의 경우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보호관찰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이전에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더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에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피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이 오히려 집단따돌림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 외 성적인 놀림,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 빼앗기기, 심하게 얻어맞기, 성폭력 당하기 등 모든 피해경험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모두 학업중단 이전에 비해 학업중단 이후 피해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행의 경우는 양상이 조금 달랐다. 학업중단 이전에는 흡연, 음주,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등 여러 비행유형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 이전에 주로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업중단 이후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물론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경험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 보호관찰이 일종의 범죄통제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이후에도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서는 모든 유형에서 비행경험이 높게 나타나, 비행성향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섯째, 보호관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의 경험과 지원을 살펴본 결과, 이전에도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처음으로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으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 보호관찰위반, 교통범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주로 절도를, 여자의 경우 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이들이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은 대부분 가한외출제한명령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상당수는 혼자서 보다는 공범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처음 보호처분을 받을수록 공범과 함께 저지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범행 동기는 주로 유흥비가

필요해서 저질렀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 밖에 친구의 요청, 호기심, 분노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청소년과 보호관찰관의 관계는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상담을 통해 청소년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제 4 장

심층면접에 나타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1. 조사대상의 특성
2. 학업중단을 전후한 경험과 태도
3. 학업중단과 문제행동
4. 보호관찰청소년의 희망과
보호관찰의 기능
5. 소결

제 4 장

심층면접에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

1. 조사대상의 특성

1) 사례 개요

12명의 심층면접 대상자 중 남학생은 8명, 여학생은 4명이다. 이들은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일회 이상 학업을 중단한 사례는 총 3명이고, 이전에도 보호관찰을 받거나 소년원, 분류심사원 등을 거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총 8명으로 나타나 대상자들의 재비행률은 높은 편이었다.

표 IV-1 심층면접 조사대상자의 특성

사례	성별	연령	최종학업 중단시기	이전 학업 중단 유무	이번 처분의 죄명	처분력 (보호관찰, 소년원, 분류심사원 경력)
사례1	남	만 16세	중2학년	있음	폭행	1회
사례2	남	만 16세	중3학년	없음	성폭행(방조)	0회
사례3	여	만 18세	중3학년	없음	금품갈취	2회
사례4	남	만 18세	중3학년	없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공문서부정행사 공갈미수	2회
사례5	남	만 15세	고1학년	있음	절도	3회

사례6	남	만 19세	중1학년	있음	절도	3회
사례7	남	만 16세	중3학년	없음	절도	1회
사례8	남	만 18세	고1학년	없음	사기	2회
사례9	여	만 16세	중3학년	없음	성매매	0회
사례10	여	만 17세	고1학년	없음	강도상해	0회
사례11	여	만 18세	중3학년	없음	공문서 부정행사	0회
사례12	남	만 16세	고1학년	없음	집단폭행 오토바이무면허 운전	1회

사례 1

남학생. 현재 만 16세로 중2학년 무렵에 학교의 규율이나 공부가 싫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됨. 중학교 2학년에 두 번 학업유예를 하고 졸공 중단한 상태. 4살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 고모, 고모부와 같이 생활함. 고모가 엄마 같은 역할을 하고 친엄마와도 연락하면서 지냄. 체구가 자그마하고 날카로운 인상. 신경질적이고 분노 수준이 높아 보임. 그러나 학업중단과 보호관찰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힘들어 함. 교내 폭력, 갈취, 인터넷 도박, 휴대폰 절도 등 다양한 비행을 저질러 이전에도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음. 학교에서도 교사에 대한 폭행(욕설, 의자 집어던지기)으로 등교정지 등의 처벌을 받았음.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고 학업을 중단한 것을 후회함.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음. 휴일도 없이 청소년에게 일을 시키고, 술을 파는 업소의 성격상 청소년 노동법에 어긋나지만 월급이 많아 본인은 만족하고 있음. 고된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우울하면 친구들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하루 담배 10개비 정도를 피움. 아버지나 고모, 고모부와 관계가 나쁘지 않아 보이나 아버지가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낮에는 학원으로 저녁부터 밤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피면접자들에 비해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음. 장래 희망으로 연예인이나 판검사가 되고 싶다고 함

사례 2

남학생. 현재 만 16세로 중학교 1, 2학년에는 모범생이었지만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가출을 하게 되고 수업을 빠지게 됨. 가출해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와중에 성폭행 사건에 휘말려 방조죄로 분류심사원, 소년원을 거쳐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학업유예가 되었음.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귀는 사이였고 방조죄로 걸린 나머지 친구들이 당구를 치러간 사이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성폭행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함. 체격이 자그마하고 표정이 밝고 성격이 명랑함. 부모 모두 친부모이고, 누나, 부모와의 관계도 원만해 보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보컬학원도 다니고 비교적 착실히 자신의 장래 희망(연예인)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음. 방황의 원인이 공부만 강조하는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이었다고 이야기함.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며 다른 피면접자들에 비해 생활이 안정적인 듯하며 예대를 진학할 목표를 세우고 있음. 누나도 착실히 대학생살을 하고 있는 듯함.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다시는 학업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함.

사례 3

여학생. 만 18세, 명랑하고 수줍어하면서도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한 편임. 친부모, 언니와 살고 있음. 집안형편이 어렵지만 가족 간의 유대는 어느 정도 공고한 듯함. 학교에서 왕따 등의 문제가 있었음. 중학교 2학년까지는 결석 없이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3학년에 두 번 나가고 나가지 않으면서 유예됨. 중학교 진학하면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고 학교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임. 중학교 3학년 무렵에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서 본드 흡입, 금품갈취 등 다양한 비행을 저지르며 마지막 보호관찰을 받던 중 출석하지 않아 구인됨. 본인의 말로 자신을 왕따 시킨 친구들보다 '센' 친구와 어울리고 싶었다고 함. 막연히 연예인을 꿈꾸고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음. 오월에 검정고시를 치르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음. 밤낮이 뒤바뀐 채 하루 종일 집에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함. 자신은 학업을 중단했지만 주변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꿈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있음. 2년제 고교를 나와 돈을 벌고 싶다고 함.

사례 4

남학생, 만 18세, 중학교 3학년에 학업을 유예함. 중학교 2학년부터 학업일수가 부족했으나 담임선생님의 배려로 진급할 수 있었음. 중학교 3학년 선생님도 피면접자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임. 덩치가 매우 크고 팔에 커다란 문신이 있으며 한눈에도 의기소침해 보였음.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줄곧 타지에서 생활하고 할머니가 피면접자와

여동생을 양육했음. 아버지는 얼마 전에 재혼을 했는데, 피면접자와 동생은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란듯함. 집안환경이 매우 어려워 기초수급대상자이며 할머니의 건강도 매우 좋지 않음. 과도한 음주로 간이 나빠진 상태이고 자살시도가 두 번 있었음. 이전에도 절도, 폭행과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소년원에 갔다 왔고 현재는 특수절도, 차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공문서 부정행사, 공갈 미수로 분류심사원에 갔다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 학교를 그만두고는 낮에는 힘든 노동으로 밤에는 폭주생활을 즐겼다고 함. 힘든 노동으로 번 일당은 훔친 오토바이 기름 값과 용돈으로 주로 사용하면서 생활했음. 오토바이 폭주로 인해 여러 번 사고가 났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분노수준과 우울수준이 높아 보였음. 면접 당일에도 주먹에 붕대를 감고 있었음. 경찰이 공원에서 담배 피는 것을 제지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나무를 치다가 주먹에 핀을 박아 넣고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다고 함.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에 학업을 중단하고 자신과 비슷하게 아르바이트와 폭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살고 있다고 함.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동생도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것 같다고 걱정함. 현재는 굴삭기 운전기사가 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고,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각성도 있음.

사례 5

남학생, 만 15세, 마르고 유순한 인상임. 중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치른 후,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내 그만둠. 본인말로도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것은 초등학교뿐이었다고 함. 부모님이 헤어질 무렵인 중학교 1학년부턴 학교를 나가지 않게됨. 본인은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도 나중에 알았다고 함. 중학교 1학년에 오토바이 절도를 시작해서 핸드폰 절도 등 절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도중에 소년원, 분류심사원, 보호관찰 등의 다양한 경력이 있음. 절도는 가출하지 않았을 때도 저질렀지만 가출해서 숙박비와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고 함. 학교를 그만두고는 아르바이트도 학원도 다니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친구들이 학교를 마치면 어울려 피시방에서 밤늦도록 게임을 했다고 하는데 친한 친구들도 대부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자퇴했다고 함. 어머니, 누나와 같이 사며, 대학생인 누나도 학교를 잘 나가지 않는다고 함. 어머니는 피면접자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니나 치킨집을 운영하며 힘들게 생계를 꾸려가느라 자식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아버지는 한 달에 한번 만난다고 함. 보호관찰을 받으며 낮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밤새 게임하다가 아침 10시에 잠이 듦. 막연히 경찰관이 되고 싶어함.

사례6

남학생, 서글서글하고 대화에 적극적임. 만 18세로 피면접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음. 중학교 1학년을 두 번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최종적으로 학업을 중단함. 초등학교 때 소심한 성격으로 왕따였으며 성적도 매우 안 좋았고 학교도 잘 안 나갔다고 함.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나쁜 친구들이나 많이 사귀게 되어 왕따와 우울증은 벗어났지만 본격적으로 학교도 빠지고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함. 친부모님, 여동생 둘과 살고 있음. 중학교 1학년에 가출을 해서 주거침입·절도를 한 후로 절도를 반복하면서 단·장기 보호관찰을 세 번 받았다. 학교폭력을 휘두르다가 교내징계도 받고 본인의 말로는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데서 심한 체벌을 했다고 함. 이때 모멸감과 분노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함. 여동생 둘이 있는데, 첫째 동생도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일을 하고 있음. 부모님 두 분도 공장에 다니고 있으며 본인도 전기기사 자격증을 딴 후, 돈을 벌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 학업을 중단할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럽고 나이가 너무 많아 학교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후회된다고 함. 현재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나가는 것 이외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함. 학교를 그만두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막막하다고 함. 대부분의 친구들은 고등학교까지 졸업해서 대학을 다니거나 군대를 갔다고 함. 본인은 선생님이 자신을 무시하고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제재하지 않았다는 등, 주변 탓을 했지만 선생님은 대안학교 정보도 알려주고 학업중단을 말렸다고 함.

사례 7

남학생, 만 16세, 마른 체구를 하고 있으며 면접자와 교감이 전혀 되지 않았고 모든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응답함. 친부모님, 누나와 살고 있음. 아버지는 건축업자로 본인 말로는 빌라를 설계한다고 함.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돈이 필요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았다고 함.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해서 학교를 빠지기 시작하면서 유예가 됨. 가출해서 돌아다니며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 중개소도 털고 핸드폰도 훔침. 반복된 절도로 보호관찰도 받고 소년원에도 들어갔다 나옴. 사법기관에 포착되기 이전에도 학교에서 흡연, 교실에서 절도, 급우 폭행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부모님이 합의해서 넘어가기도 함. 복학하려고 여러 학교를 알아봤지만 어느 중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함. 누나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며 부모님은 피면접자에게 지속적으로 용돈을 주고 그 돈으로 피면접자는 술도 마시고 당구도 치고 친구들과 밤새 어울려 놀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잠이 들면 저녁 여섯시에 일어난다고 함. 피면접자는 비행을 이야기 할 때 어떤 스스럼도 없어 보이고 감정이나 표정도 없음. 주위 친구들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위장이 안 좋아졌다고 함.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 장래희망은 변호사.

사례 8

남학생, 만 18세, 명랑하고 솔직하게 면접에 응한 편임. 친부모님과 성실하게 대학생생활을 하는 형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임. 중학교 3학년에 공동 공갈(친구와 같이 다른 학생의 옷을 뺏음. 본인은 뺏지 않고 옆에만 있었다고 함)을 시작으로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오토바이 무면허, 오토바이 절도, 인터넷 결제 사기 등으로 보호관찰, 소년원을 거치고 소년원 퇴소후 보호관찰중임. 처음 보호관찰을 받을 때도 출석하지 않아 구인되어 추가로 1년을 더 받는 등,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질러 왔음. 아침마다 통학하기 힘들고, 교사의 무리한 처벌, 자신의 비행에 대해 교내 공고문이 붙은 것에 대한 수치심 등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 함. 교사에게 폭언, 교내흡연, 갈취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자 고등학교에서 퇴학대신에 자퇴를 권유하여 1학년 때 자퇴함. 3년을 먹고 자고 놀고 지루한 일상에 지쳐 학업을 그만둔 것을 후회함. 주변 친구들은 주로 정보고등학교를 다니며 보호관찰을 받는 친구들이 다수라고 함. 학업을 중단하고는 아는 형들의 신분증을 빌려서 피시방에서 새벽까지 놀곤 했는데 근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아버지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나 본인에게는 잔소리로 들린다고 함. 집에서 반동거리기 싫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는데 미성년이라는 나이 때문에 제대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고 토로함. 본인은 포크레인 기사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는데 아버지는 공부를 했으면 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심. 보호관찰을 받으며 검정고시 준비 중.

사례 9

여학생, 만16세, 통통하고 여드름이 많은 앓된 얼굴. 불우한 가정환경과 성매매 경험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우울하고 자존감이 다소 낮은 듯했음.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이내 마음을 열고 면접에 임함. 중학교 2학년부턴가 가출하다가 중학교 3학년에 학교를 완전히 나가지 않아 유예됨. 어머니와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에 이혼하시고 아버지, 오빠와 살았는데, 중학생 때부터 비행을 저지르자 2학년부턴가 엄마와 같이 살게. 아버지가 재혼을 하자 새엄마와의 갈등으로 가출을 함. 면접 에도 자주 거울을 보고, 이성에 집착함. 중학교 2학년 가출도 남자친구와 같이 있고 싶어서였다고 함. 첫 남자친구도 보호관찰을 받고 심터에 있다가 피면접자를 만난 것임. 피면접자를 만나 돌아다니면서 용돈이 궁해지지 펍치기를 하여 다시 소년원에 수감 중.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한 후, 같이 가출한 친구와 조건만남을 하면서 숙식을 해결하다 성인 오빠 두 명을 만나게 되었음. 친구와 피면접자는

각각 그들과 이성친구가 되었는데 친구가 도중에 떠나버림. 돈이 궁해지자 남자들이 피면접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압박하고 그 때문에 피면접자는 낙태, 성병감염 등의 피해를 당하게 됨. 마지막에는 미성년자에게 피면접자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금품갈취, 절도를 일삼다가 경찰에 잡혀 오빠들은 교도소로 감. 외롭고 잘해줘서 같이 있었는데 갈수록 싫어졌다고 함.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이 많고 친오빠도 학교를 잘 나가지 않아 징계를 받았다고 함. 부모가 피면접자에게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많아 외로운 듯, 현재도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다고 함. 교복을 입은 모습이 부러워 학교에 돌아가고 싶다고 함. 장래희망은 판사.

사례 10

여학생, 만 17세, 명랑하고 낙천적인 성격인 듯함. 고등학교 1학년에 학업을 그만둠. 중학교까지는 학교를 잘 다님. 친부모, 오빠, 큰아버지, 사촌오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는 대가족. 오빠도 학교를 잘 다니고 집안이나 피면접자에게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듯함.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비행을 저지른 적은 없고 단지 노는 것이 좋아서 학교를 빠지게 되었다고 함. 결석을 하는 동안 친구와 방을 얻어 집을 나가 살았음(이때는 부모가 방을 얻어주고 서로 연락했음). 자퇴 후 쉼터에 갔다가 완전히 부모와 연락을 끊고 친구와 떠돌아다니던 중 사건에 휘말림. 주위에도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본인도 노래를 좋아하지만 위험한 연예인보다는 보컬강사를 하고 싶다고 함. 부모님도 넉넉지 않은 환경 때문에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라고 하심. 교복은 입고 싶지만 학교에 미련은 없다고 함. 친구들과 가출해서 오빠 셋을 만났는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피인 후, 오빠가 상대 남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강도 상해 공범. 오빠들은 인터넷 판매사기로 도망 다니다가 이번 일로 체포됨. 성인 남성이나 오빠들과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고 함. 학교를 안다니는 친구들이 많지만 보호관찰을 받는 친구는 없고 야간전화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 밤낮이 뒤바뀌었지만 야간전화만 끝나면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함.

사례 11

여학생, 만 18세, 면접에 저항적이고 단답형의 응답만 해서 면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음. 초등학교 3학년에 부모가 이혼하시고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과 살고 있음.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시며 세 남매를 양육함. 중학교 3학년에 가출하고 결석하면서 유예됨. 사촌언니 신분증을 위조하여 모텔에 남자친구와 투숙했다가 둘이서 싸우며 소란한 바람에 들통 나서 잡힘. 공문서

부정행사. 중3때도 다른 학생을 때려 폭행으로 보호관찰을 받음.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중2부터 고1까지 아버지와 살았지만 아버지와도 불화하여 도로 엄마에게 돌아옴. 학업중단 후 남자친구와 어울려 놀러 다니거나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함. 학교를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과 동네를 쏘다니며 논다고 함. 친구들 중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과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함. 장래 희망이나 계획이 없음

사례 12

남학생, 만 16세. 포래에 비해 키가 매우 크고 몸집이 좋음. 면접에 매우 협조적이었음. 초등학교 때 축구선수, 중학교 때 부상으로 그만두었다고 함. 고등학교 때 다시 시작하고 싶었으나 선발되지 못했음. 운동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게 되었고 운동이외는 학교의 모든 것이 싫었다고 함. 고등학교 입학 후 한 달 만에 자퇴함. 다른 피면접지들에 비해 좋은 교사들을 많이 만난 듯. 고등학교 답임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받기를 권유하기도 하고, 학업숙려제, 대안학교 정보도 가르쳐주었음. 중학교 때도 유예될 뻔한 것을 답임이 울면서 피면접자에게 빌었고 그 때문에 학교를 다시 나갔다고 함. 폭행이 두 번, 중학교 2학년에 받은 보호관찰을 마치지 못하고 반복해서 폭행을 했고, 일주일전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잡혔음.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듯, 심각한 폭력을 휘둘렀는데 피해자도 비행청소년이라며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음. 엄마, 형과 같이 살고 아버지는 5살 때 이혼. 가족 간의 유대는 공고한 듯함.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고, 친밀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형도 좋아하는 듯. 아버지는 암에 걸려 투병 중으로 자주 병문안 감.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있었고 엄마의 남자관계를 의심해서 칼을 휘둘렀다고 함. 형은 광주에서 착실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보호관찰중인 담당 교사가 동네 비행친구들과 떼어놓기 위해 광주행을 권유, 형에게 가서 미용기술을 배울 계획이라고 함. 형도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을 진학. 학업중단 후, 나이를 속여서 주유소에서 잠깐 일했는데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둠. 중학교 때 ADHD, 우울증으로 치료받음. 한 달 전에 막연히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약을 한 움큼 먹었는데 말짱했다고 함. 친한 친구들도 대부분 고등학교를 자퇴했음.

2) 성장환경과 가족관계

(1) 부모의 이혼과 가난

열두명의 피면접자 중 여섯명이 부모가 어려서 이혼을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이나 결손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해서 반드시 비행이나 학업중단에 이르는 것은 아니나 가정의 울타리가 느슨해진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손가정에서 자란 여섯 명의 피면접자 중 사례4의 경우는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가 동생과 자신을 양육했다. 아버지는 돈을 벌기 위해 주로 타지에 나가 있었지만 가정형편도 매우 어려웠다. 결손 가정이라도 부모 중 어느 한쪽이마나 유대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건강했으나 사례 4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들을 방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성장한 탓에 심리적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면접자의 동생도 학교 이탈의 조짐을 보였다. 사례 9의 여학생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아버지는 오빠와 살고, 엄마와 피면접자가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고 우울수준도 높아 보였다.

Q: 부모님은?

A: 아빠 계세요.

Q: 어머니는 안계시고?

A: 새엄마.

Q: 그러면 아빠랑 새엄마랑 따로 사시고, oo는 여동생이랑 할머니랑 사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어머니는 혹시 돌아가셨는지…….

A: 아니요. 원래 어렸을 때 헤어졌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한번 봤어요.

Q: 어릴 때 헤어진 거면 몇 살 때 헤어졌어요?

A: 한 3, 4살 때 그렇게 하셨다고…….

Q: 아버님이 혼자서 oo이랑 여동생이랑 할머니랑 다 모시고 사시느라 힘드셨겠네.

A: 아니요. 할머니가 저희를(보살피시고)

Q: 보살펴주고, 아버님은 다른 데에 따로 사셨어요?

A: 네. 따로 데 사시고 가끔 가끔 연락하시고…….

Q: 할머니가 혼자서 그러면 어떻게?

A: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저희.. 기초생활수급자

Q: 아버님은 뭐하셨어요? 멀리 떨어져서?

A: 저기 일하셨는데, 철거 하시는 일…….

(중략)

Q: 밥 같은 건 어떻게 해요?

A: 할머니가 해주세요.

Q: 기초생활수급으로 해결하려면 힘들 텐데...

A: 네. 그렇죠. 힘들죠. 할머니가 동네에서 폐지 주우시면서..

(사례4)

Q: 음... 지금 누구랑 살아?

A: 엄마랑요

Q: 엄마랑만 살아? 다른 가족분들은 없어?

A: 있는데 다 따로 살아요

Q : 그 따로 산다는 분은 아버님?

A: 네 아빠랑 오빠

Q : 부모님 헤어지셨어?

A: 네

Q: 언제 헤어지셨어?

A: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사례9)

면접사례에 나타난 부모들은 사례 7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느라 맞벌이를 하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웠다. 결혼가정에서는 편부나 편모가 생계를 책임지며 동시에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자녀를 통제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A: 아 원래 어제 엄마랑 싸웠는데요 엄마가 어제 술먹고 들어왔거든요. 엄마가 술.. 회사에서 회식하고 왔어요 근데 막.. 아침에 제가 아팠는데 학원가기 싫었는데 가라고 해서 가서 (내가) 화가 나서 엄마가 올 때도 인사도 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뭐지? 뭐라면서 좋지? 너 용돈해 하고 2만원 주시는거예요 거기에 흑해가지고 화 풀려가지고 아 진짜(웃음)....

Q: 어머님은 자주 늦게 들어오셔?

A: 아니요 근데 일찍 오시고 싶어하시는데 요즘 회사가 바빠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더 좋아요

Q : 늦게 오는게?

A: 아 집에 10시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깐

(사례9)

Q: 그러면 아버님은?

A: 이혼했어요.

Q: 언제 이혼했어?

A: 저 5살 때 했을 거예요.

Q: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

A: 만나긴 만났는데 자주는 안 만나요. 연락은 자주해도.

Q: 어머니는 뭐하셔?

A: 미용사요.

Q: 미용사서? 그러면 어머니가 바쁘시겠네?

A: 아 절대 안 바빠요. 가게 갈 때마다 손님 없어가지고, 미용실 구석에 방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누워있더라고 갈 때마다....

(중략)

Q: 어머니가 혼자 기르시면서 집이 어려웠거나, 그랬었어?

A: 예. 아빠가 저 어렸을 때 도박했다고 들었거든요.

Q: 응

A: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빚진 거랑 도박이랑, 한참 빠졌을 때, 형 무릎 다쳐가지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나온 것 아빠가 먹고 도망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돈 어디에 갔냐니깐, 돈 들고, 아빠가 다 썼다 그랬데요. 그리고 엄마는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 때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회사 회식 때문에 늦었어요. 근데 엄마가 일부러 아빠한테 전화를 안했어요. 무서우니깐. 그날 전화 안하고 엄마가 그 때 열두시 열한시반? 열두시? 그 쯤 들어오니깐 아빠가 칼 들고 엄마한테 뛰어가는 거예요. 그니깐, 저는 그냥 누워 있다가 아빠가 일어나더니 칼 들고 냅다 뛰니깐, 뭐야 저거는 전 그냥 누워있었죠 일단. 근데 아빠가 바로 엄마를 끌고 방으로 오는 거예요. 눕히더니 올라가갖고 칼 들이밀며 뭐했냐고, 뭐하고 왔냐고, 그러니깐 그 때가 형이 중 3, 고 1이었나? 그 때 형이 칼 뺏어서 칼 밖으로 던지고 형이 아빠 말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아빠는 그냥 나가고...

(사례12)

(2) 부모자녀간의 불신과 불만

결손가정은 아니더라도 보호관찰청소년은 부모와의 유대가 공고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나 특히 보호관찰청소년은 부모자녀 상호간에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상태였다. 사례 2, 사례10의 경우는 이전의 비행력도 없으며 가족 간의 유대도 비교적 공고했다. 사례 12는 이전의 비행력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나 세 사례를 제외하고는 부모자녀간의 유대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였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른 연령부터 지속적으로 비행과 문제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에 훈육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엇나간 자녀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공감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하는 모든 말들이 잔소리로 들리고 대화는 이내 말다툼으로 변해 결국 서로 간에 단절을 가져온다.

Q : 아버님과 얘기 많이 해? 어머니하고 얘기 많이 해?

A : 전 둘 다 잘 안해요

Q : 왜 안해?

A : 얘기해봤자 좋을 거 없어요 서로 짜증나고 그러니깐 말 잘 안해요

Q : 어떤 게 अच्छ은데?

A : 얘기 하면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기울어요 집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 서로 쏘 인종이지 않아요
그러면 말 다시 바꾸고 말 잘 안하게 되요. 밥먹을 때 빼곤 얘기 안해요.

(사례 1)

Q : 포기하셨어?

A : 아니 그냥 포기까지는 아니고 어떻게든 관심 갖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거 싫어하니깐

Q : 어머니 아버지하고 얘기 많이 해?

A : 아뇨 그렇게 많이는 안해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엄마랑 아빠랑 근데 제가 자꾸 말썽 피우고 하니깐...지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렇게 까지 말은 많이 안해요. 할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 말하는거 똑똑 끊으니깐.... 아빠가 ‘밥 먹었어?’ 하면 ‘먹었어요’ 하면 ‘뭐하고 놀았나’ 하면 ‘친구들이랑 놀았어’ 이렇게 툭툭 끊거든요 말하면 말하는데 그제 안되요 아빠랑 말이 끝까지 이어가게 하는게 안돼요

Q : 왜 안돼?

A : 네? 그냥 제가 들으면 잔소리 같아요. 아빠가 앉아보라고 하면 싫다고 나중에 얘기 하라고 그냥... 제가 듣기에는 잔소리 같아요. 저는 뭐 하고 싶은데 제 뜻대로 안되니까 아빠는 뭐가 니 뜻대로 안되냐고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진짜 제 뜻대로 안되거든요 뭐 일을 할려고 해도 나이 때문에 잘 안되고...

(사례8)

Q: 근데 왜 가출하게 됐는지 이유가 있어?

A: 그 때요? 음.. 그냥 아빠가 싫어서 그랬나?

Q: 아빠가 왜 싫었어?

A: (볼멘 소리로) 아 자꾸 시비 걸잖아요

Q: 어떻게 시비 거시는데?

A: (약간 톤이 높아짐) 막 그냥 막 사소한거 트집잡고 그런 것 있잖아요. 아빠랑 나랑 단 둘이 산 것도 아니고 새엄마랑 같이 살아서 그 새엄마가 자꾸 시비걸어서...

(사례 9)

A: 아니요. 엄마랑 살다가 아빠한테 갔다가.

Q: 아빠랑도 잠깐 살았었어? 그게 언제데? 몇 살인데?

A: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

Q: 동생하고 다 같이 갔어?

A: 아니요. 혼자요.

Q: 혼자? 아빠가 보고 싶어서 그랬어?

A: 아니요. 그냥 엄마랑 안좋아서 사이가.

Q: 아빠랑 사는 건 어땠어?

A: 싫었어요.

Q: 어떤 점이 싫었어?

A: 그냥 엄마가 더 편해요.

(사례11)

사례 7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풍족한 용돈을 받아쓴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이며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상대적으로 유복한 가정임에도 피면접자의 반사회성은 매우 높아 보였다. 가족 간 친밀성도 낮았다. 겉으로 보이는 가정환경에 문제가 없음에도 대학생인 누나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피면접자도 절도와 폭행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질러 왔다. 피면접자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Q : 부모님 두 분 다 같이 사세요?

A : 네

Q : 또 누구랑 살아요?

A : 누나

Q : 누나랑 살아요? 누나는 몇살?

A : 스물 두살이요

Q : 누나는 뭐해?

A : 대학생이요

Q : 두분 다 친부모님이세요?

A : 네

Q : 부모님은 뭐하세요?

A : 엄마는 주부 아빠는 사.. 사업이요

Q : 무슨 사업이요?

A : 무슨 사업인지 까먹었어요

Q : 무슨 사업인지 몰라?

A : 네 예전엔 알았는데

Q : 대충 비슷한거.. 설명할 수 있어?

A : 사장인데...

Q : 사장?

A : 건설업계 같은거..

Q : 집을 지으세요?

A : 네 .. 빌라같은거... 설계

(중략)

Q : 누나랑 얘기 많이 해?

A : 아니요

Q : 이야기 잘 안해?

A : 네 집에 잘 안오니깐

Q : 누나? 왜 잘 안와?

A : 안들어와요

Q : 안들어오면 부모님이 뭐라 안하셔?

A : 그러는데 맨날 문자로만 잘한다고 해놓고 맨날 그래요

(사례7)

(3) 형제자매의 문제행동과 학업중단

가정해체의 문제를 안고 있는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는 형제들도 학업을 중단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행동으로 학교를 이탈 중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례 4는 할머니가 기초수급대상자로 어렵게 남매를 길렀다. 이혼한 부모는 남매를 방임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여동생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를 잘 다니지 않는다고 한다. 사례 6의 경우도 첫째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자퇴했으며 사례 9도 피면접자의 오빠가 중학교부터 학교를 잘 나가지 않아 한번 유예된 적이 있으며 고등학생인 지금도 잦은 결석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사례12도 결손가정에서 어렵게 성장했다. 엄마가 형제를 양육했는데 형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으나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간 후로 착실히 학교생활을 한다고 한다.

Q: 동생하고 잘 지내요?

A: 아니요. 동생도 친구 잘 못 만난 거 같고, 그래서 동생이 저한테도 안 좋은 말해서 그 뒤로 서로 말 잘 안해요.

Q: 동생도 학교 잘 안 나가고 그래요?

A: 그렇긴 했는데, 중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내기도 하고 말로 타이르기도 했는데 안듣더라구요.

(사례 4)

Q : 여동생들은 몇 살이지?

A : 첫째 동생은 열 여덟살이구요 올해 열여덟살이고, 막내동생은 올해 열 여섯 살이에요

Q : 그러면은 고등학생, 중학생인가?

A : 네 고등학교 중학생이요

Q : 동생들은 학교 잘 다녀?

A : 첫째동생은 17살에 고등학교 다니다가 자퇴했구요

Q : 왜?

A :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는데 계속 말을 안해주고 막내동생은 지금 중학교3학년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제가 다닐때는 체벌금지라는게 없었는데 지금은 있어서 학생 안때려요. 제 동생은 열심히 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첫째 동생은 지금 일하고 있구요

(사례 6)

Q : 오빠는 학교 그냥 잘 다닌다고 그랬지? 1년 유예되기 했지만?

A : 그냥 선도 몇 번 열렸는데. 애를 학교에서 내보내야 할지 있게 해야할지 징계같은거 있잖아요

Q : 오빠를 대상으로 그런게 열렸다고?

A : 네 많이 열렸어요

Q : 오빠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켜?

A : (문제를) 일으키는게 아니고 계속 안나가서....

(사례 9)

Q: 형은?

A: 형도 어차피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봐갖고 들어간 건데. 형이 자퇴하고 한 두 달 동안은 미친 양아치지 있잖아요. 양아치들, 개네들 따라다니면서(그러다가) 한 두 달 뒤에 질리니깐 공부를 한거죠 뭐.

(사례 12)

2. 학업중단의 경험과 심리

1) 학업중단의 이유

(1) 성적위주의 교육환경에 대한 부적응

교육의 모든 목표가 입시와 성적에 맞추어져 있는 한국 학교의 현실은 학생들에게 심대의 즐거움과 재미를 박탈했다. 왜 학업을 중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단순히 ‘놀이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것이 싫어서’ 이외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학생들이 많았다. 한국학교는 오직 공부와 성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므로 공부를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학생들은 학교 밖을 떠돌며 결석을 반복하게 되고 출석일수 미달로 학업이 ‘유예’되게 된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의 권고나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A : 갑자기 애들이랑 놀기 시작하면서 학교 가기 싫고 게임하고 노니깐 재밌는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안나가다보니깐 학교 들어가면 공부에 집중이 안되요 갑자기 그래서 맨날 점심시간에 밥먹고 바로 나오구요 밥만 먹고 바로 나온 다음에 바로 놀고 그러면서 학교 계속 안나가게 됐어요

Q : 그러니깐 학교 갔을 때 뚜렷하게 학교가 싫어졌다는지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가?

A : 솔직히 학교 공부하기 싫고 짜증나가지고 맨날 선생님이 뭐라 하면 짜증나가지고 욕하고 그랬거든요

(사례 1)

Q: 4월 10일? 혹시 보호관찰 받고 그러다 보니깐 학교 그만 둔거야?

A: 원래 예전에 그러니깐 솔직히 예전에 많이 방황하다보니 놀았어요. 놀다보니 학교 안가게 되고 못가다보니깐 수업일수가 안돼서

Q: 혹시 뭐 방황하고 그랬을 때 약간 뭐 우울하고 그랬었니?

A: 우울한건 없었구요 화가, 화가 나서 (학교)안갔던게 있었던 것 같아요

Q: 왜? 화가 나서 안갔어?

A: 그러니깐.... 너무 저희집 그거였어요... 공부 위주.

(사례2)

A: 친구들 만나서 방황했는데, 그 때가 막 시험인거 같아요.

Q: 친구들 만나서 방황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뭐 집이 싫다든지? 뭐 이런 거...

A: 그런 건 없었어요. 노는 게 그냥 좋았어요.

Q: 가출하진 않고 그냥 학교를 안 나갔어요?

A: 네.

Q: 3학년? 정확하게 관둔 때가 3학년 인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나갔다가 안 나갔다가...?

A: 네. 그렇게 하다가

Q: 하다가 3학년 때 얼마나 적게 나갔어요?

A: 한 달이요.(웃음)

Q: 한 달 나가다가 완전히 관둔 거예요?

A: 네.

(사례 4)

Q : 그니깐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건데 본인은 다른 잘못이 없었어요?

A : 예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고 제가 막 많이 소심하고 혼자 행동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다 보니깐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그러니깐 뭔가 기분이 좋고 그런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친구랑 어울리면서 학교도 빠지고 그러다보니깐 그런 게 재미가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례 6)

Q: 근데 학교를 못나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A: 친구들이랑 놀아서

Q: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A: 네

Q: 학교는 그냥 잘 다니고 있었는데?

A: 네. 근데 갑자기 친구들이랑 많이 노니깐 학교 안나갔어요

(사례7)

Q: 특별히 학교가 싫었거나, 학교 안 나간 이유가 있어요?

A: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게 좋아서요.

Q: 학교에서 어떻게 제일 싫었어?

A: 공부 시키는 거요.

(사례11)

Q: 학교를 왜 그만둔 거야?

A: 학교가 저랑 안 맞아요. 저얼대~

Q: 그래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다녔잖아?

A: 중학교도 억지로 다닌 거예요. 초등학교만 재밌어서 다니고 중학교 때부터 억지로 다닌 거예요.

Q: 어떤 점이 안 맞아?

A: 싸악 다 안 맞아요. 그냥 처음 그 입학할 때나 뭐 공부 애들 따라가는 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사례12)

(2) 왕따의 피해

교우관계에서의 갈등도 학생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사례 3의 경우는 여학생인데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왕따를 당했고, 왕따의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 ‘센’애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센’ 애들과 어울리다 보니 학교를 빠지게 되었고 결국은 학업중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Q : 학교에서 왕따? 가을 무렵에 학교를 관두게 될 무렵부터? 아니면 좀 그전부터 그랬어?

A: 중1때부터 몇 번 따돌림 당하긴 했는데, 학교 관두고 싶다는 생각은 왕따 때문에 들었는데, 계속 중3때 개들 딱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개들보다 더 위인 애들 만나야겠다 하고 마음먹고 개들보다 쯤 그냥 막 말하자면 썬 애들이랑 다녔어요. 일부 속하고... 그래서 그러다보니 애들하고 노는게 재밌고 애네들은 따르(학교) 애들이니깐 학교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사례 3)

버스카드 어찌고 저찌고 써 있는거예요 그거 떼고 또 떼가지고 갖다 버리고 솔직히 쪽팔리잖아요 그냥 대문짝만하게 게시판에 붙어 있는거예요 떼서 버리고 다음날 또 붙여져 있는거예요 또 떼서 버리고.... 진짜 막 막무가내로 나가가지고 찢리든지 말든지 찢릴 걸 아니깐 찢른다고 하면 내가 자퇴하면 되니깐 너무 철없을 때(였어요).. 지금은 안그러죠 조용히 다니죠 만약 학교 다니면 나이도 먹을만큼 먹었고 19살인데 성인인데 지금은.. 그 땐 너무 철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못참았어요 정말 1분 지각했는데 한달 청소시키니깐 너무한대 싶어가지고 막나갔죠.

(사례 8)

2)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한 상담실태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는 사법기관에 포착되기 이전에도 학교에서 크고 작은 문제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업중단을 말리거나 이들에게 대안학교, 검정고시, 재입학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의 경우는 의무교육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 이전에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예가 될 때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로 학교를 결석하는 경우가 많아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청소년 대부분이 상담이나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신들도 진지하게 학업중단을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누군가와 상담을 시도하지도 않았으며 주변에 고민을 나눌만한 어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5, 사례 6, 사례 12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에서 학교나 부모들은 청소년이 학업중단에 이르기까지 방관자였으며 결석과 문제행동이 잦은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해 교사들의 태도는 무관심이 대부분이었고 고등학생인 사례 8의 경우는 학교의 권고에 의해 자퇴하였다. 사례 12의 경우에서만 피면접자의 반복된 비행과 학교부적응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학업중단 숙려제 등에 관한 정보까지 세세히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Q : 만약 니가 학교 다시 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혹은 대안학교 같은거 정보 이야기 해준 분은 계셨어요?

A : 예

Q : 누가 얘기 해줬어요?

A : 학교 뭐 부장님인가? 그분이 언제 한번 너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지금 너는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께서 아니 선생님이 너를 이렇게 이번에만

지켜 보겠지만 니가 다시 학교 나오고 싶으면은 대안학교도 있고 그러니깐 대안학교 가서 농사도 배워보고 그러면 좋다 이러시다가 그러다가 아무튼 언제든 학교 오고 싶으면 다시 오라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례6)

Q : 그 학교 관둘 때 누가 oo씨한테 다시 학교 돌아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A : 아니요

Q : 혹시 어디 가서 검정고시 준비하라고 한다든지 대안학교 어디 있다든지 하는 (정보)없었어요?

A : 네

(사례7)

Q : 학교 관둘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말리는게 아니라 관두라 한거네?

A : 그러니깐 선생님도 못참았나봐요 제가 너무 그러니깐 원래 하면 안되는데 너무 화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욕했던 말이에요. 욕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생활부장 선생님들한테 다 말하고 또 막 수업하고 있는데 껌씹어 가지고 풍선불어서 터뜨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차피 찢릴거 선생님들한테 막무가내로 나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때 철없을 때 짓이었고 그랬구요

(사례8)

Q: 자퇴가 된 거지? 학교를 그만둔다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관두지마라, 말리고 상담을 해주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

A: 고등학교 때 담임 쌤은 말렸죠. 학교 계속 다녀보라고, 그러다가 제가 계속 싫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학교 그만둘 거라고, 그니깐, 선생님이 뭐, 뭐, 뭐라 했지? 아무튼 상담 받으라고 상담 받고 결정하라고, 그것도 됐다고 자퇴서 내고 나왔어요.

Q: 어디 가서 받으라고 했는데? 상담을

A: **중에 위센터에서 뭐 받으라는데..

Q: 복학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든지, 대안학교를 갈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든지, 검정고시를 보려면 이렇게 하라고 누가 정보를 주거나 그런 적 있어? 선생님이?

A: 예. 고등학교 담임 쌤이 복학하려면 2학기 때라도 들어오라는데, 복학은 됐고.

Q: 응. 다른 대안학교나 검정고시는?

A: 으~ 대안학교는 죽어도 가기 싫고, 학교라는 게 싫어요.

Q: 그러면 이야기는 해주셨어?

A: 네

Q: 그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건 알아?

A: 네

Q: 그것도 담임 쌤이 권하시던가?

A: 네. 그것도 권했는데 그것도 그냥 됐다고

(사례12)

3)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1) 무기력한 일상

학업을 중단한 이후 보호관찰청소년의 일상은 무기력하고 막막하기까지 하다. 이들 대부분은 가정환경이 유복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생계에 매달리느라 학업을 중단한 자녀의 생활과 장래를 위해 같이 고민할 여유가 없다.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청소년에게는 유용한 정보나 가용할 자원 등이 절대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공부외의 다른 활동이나 목표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들은 자연스럽게 술, 담배, 전자오락, 스마트폰에 빠지고 비행을 반복하게 된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복지관 등의 시설을 피면접자 대부분이 알지 못했으며 간혹 안다하더라도 이용해본 적은 없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을 위한 이러한 시설이 청소년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거나 이러한 활동이 가장 필요한 보호관찰청소년에게는 멀리 있는 듯했다. 청소년도 스스로의 생활이 지루하고 한심함을 알지만 어떤 다른 대안을 없었던 듯 하다. 그나마 보호관찰을 받는 현재는 보호관찰관의 권유에 따라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뭔가를 준비하기도 하고, 생활이 궁핍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결석하면서 학교를 이탈하는 과정에 있거나 막 학업유예를 했던 과거에는 밤낮이 뒤바뀐채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A : 학교 안갈때요? 밖에서 애들이랑 놀면서 게임... 애들 몇 명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나오라고 한 다음에 더 놀았어요

Q : 게임하고 뭐하고 놀았어?

A : 게임하고 당시엔 그거밖에 없었어요 게임 그리고 막 밥먹으러 가고

Q :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랬어?

A : 네 그건 다 했어요

(사례 1)

Q : 학교를 안가고 그러면 친구들과 뭐하고 그런거야?

A : 피씨방 가고 거기 있다가 피씨방 있다가 애들 학교 끝날 때 되면 나가 또 피씨방 가고...

Q : 피씨방 가고 또?

A : 그냥 놀이터에 앉아있거나...

Q : 놀이터에서 뭐하고 앉아 있었는데?

A : 그냥 얘기 하구요

(사례5)

Q : 학교를 완전히 그만두고 나서는 어떻게 지냈어?

A : 그냥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애들 학교 끝날 시간이니깐 가서 놀고 .. 밤엔 컴퓨터 하고.. 학원 다녔는데... 학원도 빠졌어

(중략)

Q : 이번엔 학교 안다닐때는 뭐하고 지냈니?

A : 그냥.. 놀고 그랬어요 집에서 자고 피씨방 갔다가...

Q : 가서 하루종일 게임 하는거야?

A : 네

(사례5)

Q : 학업 중단 되고나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A : 아르바이트 하거나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어요,

Q : 근데 아르바이트는 17살부터 했는데 아르바이트 안하면 학교 안다니면 뭐했어요?

A : 집에서 빈둥빈둥 있거나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거나 그랬었어요. 티비 보거나 컴퓨터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 너무 재밌어서 새벽까지 잠안자고 게임하고 그랬어요

(사례6)

Q : 근데 애들하고 어울리고 다니면 뭘해요?

A :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그냥 공원에서요 서로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놀거나 아니면 피씨방 주로 피씨방이나 노래방 가서 놀았어요

Q : 재밌었어요?

A : 네 그땐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도 어린 나이지만 이 나이 먹고 나서도 그러고 놀려면요 이젠 뭔가 막 재밌다는 그런 감정이 없구요 그냥 계속 심심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8월달부터 정기 기술학원 다녀요 그래서 학원 다녀서 자격증 따서 자격증 따놓고 군대 가서 군대 그거 갔다 오고 취업해서 먹고 살고 하다가 검정고시 할 생각이에요.

(사례6)

Q : 학교 안가고 나서는 어땠어? 생활이?

A : 밤낮 바뀌었는데요. 밤에는 나가고 낮에 자고

Q : 요새는 어때?

A : 요즘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학원 다니면서

Q : 어떤 학원?

A : 검정고시학원. 내년에 고등학교 가려구요

Q : 청소년 복지 센터나 그런데 다닌적 없어?

A : 네

(중략)

Q : 학교 관두고 그냥 낮밤이 뒤바뀌면 밤에 놀고 낮에 몇시에 일어나는데?

A : (오후)여섯시요

Q : 그 때 일어나서 뭐해?

A : 그냥 밥먹고 씻고 나가죠

Q : 나가서 뭐해?

A : 놀아요

Q : 뭐하고 놀아?

A : 돌아다니거나.....여러 가지.... 노래방 가거나 당구치거나 그런거 하다보니깐 집에 갈 시간..

Q : 그럼 돈은 어디서 나서? 부모님이 주셔?

A : 네

Q : 당구 잘 쳐?

A : 그렇게 잘 치진 않아요

Q : 노래는 좋아해?

A : 아니 그닥 좋아하지는(않아요)..

Q : 그러다가 밤에 몇시쯤 돌아오는데?

A : 아침 일곱시 여덟시?

(사례7)

Q : 그만두고 어떻게 지냈어?

A : 그만두고 집에 있다가 백수처럼 지냈어요

Q : (하루)생활이 어떻게 돼?

A : 낮엔 자고 밤엔 놀고

(사례8)

Q: 그렇구나. 그러면 또 아르바이트 말고, 어떤 혹시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던지, 대안학교를 가봤던지, 청소년 복지센터를 가본 적은 없어?

A: 한번도 없어요.

Q: 그런거 있는 줄은 알아?

A: 네.

(사례11)

(2) 고된 노동과 유흥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유복한 사례2과 사례7,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었던 사례 9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번 이상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교적 꾸준히 자신의 용돈을 벌고자 노력하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았다.

사례 1과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례 4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두번의 짧은 경험으로 끝난듯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자녀들이 일을 하기 보다는 미래를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원을 다니기 원한다. 또한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낮은 임금과 고된 육체노동인지라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다.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경력 축적 등의 미래 계획과 연관이 없으므로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할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비행 청소년의 대부분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가출해서 잠자리를 마련하는 등 유흥을 목적으로 돈을 벌었다. 청소년들은 유흥비로 쓸만큼만 돈을 벌었고 돈을 모두 소비하고 나면 다시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식으로 노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 닭강정집이거든요 (오후)네시부터 (밤)12시까지 일하는데 그 때까지 일하고 그 때 집에 가서 자요 놀 때도 있지만

Q : 얼마를 벌어요?

A : 한달 거의 백 벌거요? 백오십? 백사십? 그정도

Q : 무슨 일을 하는데?

A : 닭튀기고 자르고,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장갑도 많이 찢라먹고 짜르다 보면 장갑도 찢라져요 육도 만이 먹고 그랬는데 괜찮아졌어요 오래 하다보니깐

Q : 위험하진 않아? 다친적 없어?

A : 다친 적이요? 닭 닭 뭐지? 안뜨겁게 손장갑 토시같은거 다 끼거든요 뜨겁거나 그런건 없어요. 아르바이트 원래 판거 할려고 했는데 힘든거예요 돈벌이도 안되고 힘들기만 해가지고 옮긴거예요

Q : 전에 어디 다녔어?

A : 뷔페요 뷔페에서 그 뭐라 해야하지? 홀이란게 있잖아요 거기서 ○○동에 보면 ○○라는데가 있어요 거기 접시를 놔야해요. 사람들이 먹던 접시를 놔야하는데 그거 벅싱카라고 하거든요 접시 다 치우고 설거지 하는데 갖다 놓고 접시 계속 닦는거예요 거의 하루에 만개정도, 천개? 천개정도는 접시 닦아야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두달 일했는데 죽을 것 같은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Q : 그렇게 한달에 얼마 벌었는데?

A : 그건 별로 못벌었어요 한 60만원 벌었나?

(사례 1)

A : 그러다가 일해야 될 것 같아서 ○○매장에서 일하다가 한달 일하다가 관두고 그러고 또 그냥 횃집에서도 일해보고. 그냥 그러고 관두고 미용은 언니가 미용고 나오고 자격증 따고 그래서 언니가 가르쳐준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언니가 하는 거 보고 하는 거구 음..그게 다였는데...

Q : 다양한 경험을 했구나?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서 얼마 벌었어?

A : 칠십 팔? ○○에서 일할 땐 칠십팔정도 받았고 횃집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확히 기억이 안나요.

Q : 한달하고 관둔거는 힘들고 그래서 그런 거야?

A : 아뇨 그냥 월급 받고 보니깐 돈이 있다는 생각에(다니기 싫었어요)

(사례 3)

Q: 어디 아르바이트 했어요?

A: 물류센터요. 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서, 그걸로 일주일 지내고 그랬어요.

Q: 일당이 얼마나 되요?

A: 5만원에서 6만원

Q: 하루에 나가면 일은 얼마나 해요?

A: 9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 8시까지 상하차가 있는데, 택배 오는 거 있으면 실어드리고, 하차는 다시 빼주고 그런 거

Q: 돈 벌어가지고 뭐했어요?

A: 하루 이틀 나가서, 저한테 10만원이 있으니깐(생기니까), 몇 만원은 (오토바이) 기름 값에 그렇게 하고 5천원 넣으면 (오토바이) 하루 종일 타니깐, 기름 값 빼놓고 음료수 먹을 때 음료수 먹고 애들 먹을 때 같이 먹고 그랬던 거 같아요.

Q: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는 얼마나 했어요?

A: 두 달 세달 정도 했다가, 힘들어서 이제 안한 것 같아요.

Q: 또 무슨 아르바이트 했어요?

A: 그냥 하루 나가는 거 있어요. 노가다

Q: 노가다. 하루 나가면 얼마 줘요?

A: 그 때 6만 2천원 인가? 그거 밖에 안줬어요.

Q: 그러면 몇 시간이나 일해요?

A : 그 때는 아침 7시에 나가서 8시에 시작을 해요. 6시에 끝나요.

(사례4)

Q : 아르바이트는 뭐했는데요?

A : 아르바이트는 제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한게 17살때예요 17살 전부터는 계속 막 집에서 빈둥빈둥 놀거나 밖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고 그랬었구요 17살이 되고부터 돈 벌어서 나도 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나도 일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유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한달 정도 일하고 그만두고 그랬었어요. 그런거니깐 일하다보면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절제가 안됐나봐요. 그래 가지고 그만두게 돼서 그 받는 받은 돈으로 제가 사고싶은거 사고 부모님 용돈 .. 아 부모님 용돈도 좀 갖다 드리고 그랬었어요

Q : 얼마나 벌었는데요?

A : 그 때 90만원정도 17살 때

Q : 일은 몇시까지 하나?

A : 아침 아홉시에 나가서 저녁 10시에 퇴근하는걸로

(사례6)

Q : 친구랑? 뭐했어?

A : 그냥 페스트푸드점

Q : 맥도날드 이런데서? 얼마나 했는데?

A : 두달? 두달 했나?

Q : 월급 얼마나 받았어?

A : 저요? 한달에 5-60 받은 것 같았는데

(사례8)

Q : 학교 관두고 혹시 아르바이트 같은건 해본적 있어?

A : 네 고기집 서빙이랑 편의점이랑 주유소랑. 거의 한두달? 편의점은 조금 오래 했어요

Q : 얼마나 벌었어?

A : 오래 되서 기억이 안나는데

Q : 돈 좀 벌었어?

A : 네 고기집 서빙은 돈 좀 주니깐 편의점은 안주는데

Q : 고기집 서빙은 힘들었을텐데

A : 네 죽는 줄 알았어요

(중략)

Q : 돈을 벌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거야?

A : 네 그쵸 돈이 있어야 제가 먹고 자고 그런 걸 하죠

Q : 가출해서 한거야?

A : 네 집에 있을 때는..(안했어요)

(사례10)

Q: 어떤 아르바이트 했어?

A: 카페 같은데서 했었는데... 밥 먹고 그러는데요.

Q: 얼마나 받았어?

A: 별로 못 받는데. 시급, 최소한 그것만 받는데

Q: 얼마나 했어?

A: 그냥 잠깐 잠깐씩 밖에 안했어요.

Q: 관두고 이제 돈 모이면? 남자친구는 돈을 어디서 얻었어?

A: 일했죠.

Q: 어떤 일을 했어?

A: 전화 받는거 막 전화해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바꿔라.

Q: 그건 얼마나 벌어?

A: 그게 6천원이요.

Q: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 해본 적은 없어?

A: 같이 했었어요. 전화

(사례11)

이러한 노동과 유흥 때문에 이들은 벌써 몸이 망가지고 있다. 주유소의 유해공기는 매우 심각한데 사례 12는 그곳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다고 한다. 차사고를 당할뻔 하기도 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아킬레스건이 부어 결국 일을 그만두었다고 한다. 한편, 사례 4도는 과도한 음주로 간수치가 높은

상태이며 사례 7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위장을 버렸다고 한다.

Q: 혹시 학교 그만 다니면서, 시간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했든지 그런 적은 있어?

A: 네. 알바 했었죠. 주유소 알바요.

Q: 주유소, 얼마나 했었어?

A: 처음에 주유소 했던 데는 한 16일~17일 하다가, 거기가 그냥 12시간 근무예요. 아침부터 나가 가지고 저녁까지 있어야해요. 앉아있지도, 앉아있으면 몰라도 계속 서있으래요. 12시간 내내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그래 갖고 못 버티겠는 거예요. 돈은 많이 주는데 못 버티 갖고, 그만두고 집에서 이틀 있는데, 또 알바 한 번 뒤져보니깐 그 셀프주유소 있잖아요. 셀프주유소에서도 알바생 구한다고 해 갖고 거기서 한 10일 있다가, 그 때 제가 여자 친구랑 만나고 있던 거예요. 그 때, 여자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개가 나가지 말래요. 아니, 나가야 돈을 벌든 말든 하는데, 개가 하도 나가지 말라고 꼬드쳐가지고 안 나갔죠. 덕분에 잘렸어요. 그리고 또 그거 잘리고 한 이주일 있다가 또 **동에 주유소 하나 더 올라와 있길래 거기 갔거든요? 거기서 잠 들어 갖고 잘렸어요.

Q: 잠이 들어서 잘렸다는게 무슨 말이야?

A: 밤새고 일 나갔다가 앉아 있다가 잠들었어요.

Q: 냄새도 심하잖아.

A: 냄새는 둘째 치고 중노동이죠. 그거. 밥 먹는 것도 10분? 20분에 다 먹고 나오래요. 빨리 먹고 나가 갖고 계속 서있으니깐, 밥 먹는 시간도 거의 거기서 점심, 저녁밖에 안 먹었거든요. 점심, 저녁 둘이 같이 먹어야 한 30분, 30분만 앉아 있을수 있고 나머지는, 아 앉아있을 시간 또 있었다. 화장실가서 담배필 때, 그 때 1~2분 앉아 있다가 또 나가고, 거기가 바쁠 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차가 끝도 없이 들어와 갖고, 계속 서 있다가 뛰어 땡기다가 서 있다가 세차하다가 뛰어 땡기다가(한숨) 못 버텨요. 거기서. 거기서 일하다가 다리 잘릴 뻔 했는데. 차에 밟혀 갖고...그리고도 발목 뒤에 아킬레스 건 있잖아요. 거기가 무리가 가서 거기 끊어질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그 전에도 그만둘 생각 있었는데, 그 소리 듣고 그냥 힘들기도 하고 다니기도 싫고

Q: 아킬레스건은 너무 오래 서있어서?

A: 네. 완전 부었어요.

(사례12)

A: 이거요. 여기에 편 박혀 있어요. 어제 퇴원해서 그 전에는 저녁에 나갔다가요. 애들이랑 맨날 술 먹고 그날 아침에 들어가서 자고 4~5시쯤에 일어나서....

Q: 오후 4~5시?

A: 네. 또 나가고, 그냥 하루를 술로 살았어요.

Q: 몸이 많이 망가졌겠다?

A: 간수치가 평균 사람보다 2배가 높데요. 그래서 술을 안 먹고 있어요.

(사례 4)

A : 술 끊었어요

Q : 많이 마셔서?

A : 네

Q : 몸이 안좋아?

A : 네

Q : 벌써 몸이 안좋아?

A : 속아파요

(사례 7)

4) 주변 친구들의 학업중단 실태

비행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친구들은 향후 청소년의 탈비행 여부나 학업시작 여부와 중요한 연관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이전의 비행력이 없으며 가족환경이 안정적인 사례의 경우는 학업중단 혹은 비행친구들이 주위에 적은 편이었고 반대로 이전의 비행력도 많으며 가족환경도 불안정한 사례의 경우는 주위에 비행친구나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도 많았다. 사례2는 이전의 비행력이 없고 가족 간의 유대도 공고하며 본인도 고등학교 재입학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경우로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은 한명도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왕따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었으나 상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안정적인 사례3의 경우도 친구들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꿈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으며 보호관찰청소년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편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례4의 경우는 모든 친구들이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와 폭주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하층에 속하는 피면접자들과 주변 친구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간혹 아르바이트를 하고, 하루하루 하릴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고 있었다. 사례 9는 친한 친구들 대부분이 보호관찰 중이었으며, 사례 10은 아르바이트도 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를 '막장 인생'이라 부른다. 사례 12는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학교를 자퇴했으며 여자 친구도 대학에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Q : 친구들은 뭐 지금 사귀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학교 안다니고 그런 애들 많아?

A : 한명이요.

Q : 그럼 다른 학교 애들은 다 학교 다녀?

A : 다 다니는데....

(사례 2)

Q : 친구들은 뭐 친한 친구들은 뭐해? 뭐하고 있어?

A : 거의 ○○에는 별로 없는데 ○○에는 많거든요 저 왕따 시켰던 애들하고도 나중에 사과해서 저 따른 애들이랑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 땐 어려서 저 왕따시킨 애들한테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깐 개네도 이제 막 아 제가 달라지는거 느껴지고 그랬나봐요. 나중에 사과하고 그러는데 풀고 지금은 가끔 연락하는 사이이고 저랑 지금 다니는 애들은 거의 학교에 있는 애들이고 그냥 막 쫘 막 애들이 이름 쫘 날리는 애들 다 좋은 애들이던데 저처럼 들어갔다 나온 애들은 아니에요.

Q : 이름 날렸다는게 무슨말이야?

A : 그냥 쫘 아무리 잘 나가는 애들이라도 다 착하고

Q : 그러니깐 그 뭐라 말하나? 애들이 쫘 두려워하는 그런 애들이야?

A : 네

(사례 3)

Q: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나?

A: 다 안다니요.

Q: 대체로 언제 그만 뒀는데?

A: 다 중학교, 고1때.

Q: 관두고 친구들은 뭐했어?

A: 일 하고, 배달, 그냥 저랑 일상이 똑같았어요.

(사례4)

Q : 친구들은 학교들 잘 다녀?

A : 중학교 때는 잘 다니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깐 안다녀요.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요. 몇몇 애들 안다녀요

Q : 몇몇 애들? 안다니는 애들이 더 많아? 다니는 애들이 더 많아?

A : 지금 같이 노는 애들 중예요?

Q : 친한애들 중에

A : 안다니는 애들이 더 많아요

(사례5)

Q : 근데 쯤 전에 휘말린다고 그랬는데 주위에 그런애들이 많아?

A : 네 쯤 있어요 다 보호관찰 받고 있는 친구들이예요 몇 명 빼고..

Q : 몇 명 빼고는 다 보호관찰 받아?

A : 네 그냥 친구들이 다 그냥 보호관찰 받고 있어요

Q : 아 진짜? 학교 안다니는 친구들은 얼마나 돼?

A : 없어요

Q : 아 학교는 다 다녀?

A : 네 그러니깐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는 아니구요. 일주일에 한 두 번만 나와도 졸업시켜주는 학교예요, ○○동에 ○○고등학교라고 그 학교가 일주일에 두세번 한두번 나가도 별 얘기 안하고 청소만 시키고...

(사례8)

Q : 보호관찰 받으니까 어떻게 생활에 변화가 많아? 받기 전이랑?

A : 그냥 막 나쁜 짓 하는 것 보면은요 보호관찰 안받으면 나쁜 짓 하면 그냥 그러고 끝나는데 보호관찰 받으면 무섭죠 많이 무섭죠 휘말리면 안되니까 휘말리면 무섭게 커지니까 제가 안했어도 보호관찰 받고 있는 기간이니깐 그래서 쯤 쯤 조심스러워진다해야하나? 쯤 그래요

Q : 근데 쯤 전에 휘말린다고 그랬는데 주위에 그런애들이 많아?

A : 네 쯤 있어요 다 보호관찰 받고 있는 친구들이예요 몇 명 빼고..

Q : 몇 명 빼고는 다 보호관찰 받아?

A : 네 그냥 친구들이 다 그냥 보호관찰 받고 있어요

(중략)

Q : 근데 개네들 학교 관둔 애들도 많고 그런거야?

A : 네

Q : 개들 학교 관두고 뭐해?

A : 놀아요

Q :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검정고시 준비한다든지?

A : 그냥 그런 애들도 있는데... 거의 노는 애들만 ...

(사례9)

A : 안다니는 애들이 많죠

Q : 안다니면 뭐해? 친구들은?

A : 개네는 계속 알바하고 있을걸요? 알바하거나 자퇴가

Q : 알바? 어떤 알바?

A : 지금 개도 편의점.. 식당이랑 고기집이랑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한명은 막장 인생을 살고 있고

Q : 막장 인생은 어떤건데?

A : 아무것도 안해요 알바를 해야지 하고 구할라면 알바가 없고 한명은 피자집에서 일하고 피자집이랑 편의점에서 일하고 한명은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사례10)

A: 저 지금 애들이랑 연락 아예 안 해요. oo이랑 여자 친구랑 여자 친구랑 같이 사는 누나랑 전 여친이랑 밖에 연락을 안 해요.

Q: 그럼 oo이, 개는 학교는 다녀?

A: 개도, 개는 중학교 때 잘렸어요.

(중략)

Q: 전 여자 친구는 뭐해?

A: 백수

Q: 지금 여자 친구는 뭐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거야?

A: 아니, 애도 중학교 때 그만뒀대요. 그러고 검정고시 지금 다 보고, 대학교 갈 준비.... 지말로는 대학 간다는데 대학 갈 돈이 있어야겠죠?

Q: 여자 친구가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전에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은 다 학교를 안다니는 친구들이었어?

A: 네. 제가 먼저 자퇴했거든요. 애들 중에서. 제가 자퇴하니깐 애들 따라서 자퇴하더라고요.

Q: 근데 학교 안 다니면 뭘 하고 시간을 보내? 다른 애들은?

A: 저희 학교 안다니면 일다니는거 아니면 학교 안다니는 애들끼리 만나서 돌아다니다 돈 생기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나와 갖고 막 담배피고 시간보고 집 가는 거죠.

(사례12)

5) 학업중단이후의 느낌과 생각

(1) 후회와 동경사이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 계획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상담해서 나온 결론도 아니다. 이들의 학업중단은 대부분이 학업부진, 학교내 문제행동, 잦은 결석과 지각 같은 부적응의 결과이다. 이들은 충동적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그 후의 생활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나날이었다. 고등학교 진학을 확실히 계획하고 있는 사례2, 사례 3, 사례 7을 제외한 나머지 사례들은 재진학이 불확실하거나 연령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호관찰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당시는 좋았는데, 지나면서 점차로 후회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기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다. 무엇보다 학교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막연한 동경에 가까웠다. 이들은 학교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곳이었으며 공부하는 것이 맞지 않아 학업을 중단했다고 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크게 변한 것이 없으면서 이들이 후회를 느끼는 것은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하고 하루 하루를 허비하는데 따르는 막연한 불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교복 입은 학생이 부러운 것이며(사례 1), 예쁜 여자 친구를 사귀는 것이 부러울 뿐(사례 6)이다.

A : 막상 관렸을 때는요 안다녔을 때 좋아요 두달, 세달 좋아요 아침에 깨우는 사람도 없고

편하다 그러는데 오래 장시간 안다니잖아요 그럼 나도 학교 다니고 싶다 교복 입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요

Q : 후회돼 지금?

A : 지금은 많이 후회되요. 고등학교 교복 입는 사람 보면 부러워요

(사례 1)

Q : 너를 왕따시킨 애들도 좀 노는 애들이었어?

A : 아뇨. 개들은 학교에서만 뭉치는 애들이었고 더 억울한건 개네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잘 사는데 저는 혼자 개네 때문에 검정고시 봐야하고 그래서 조금 후회해요 다닐걸 하고

Q : 학교 그만두고 어떤 큰 변화라고 하면? 내 자신이 혹은 내 주변이?

A : 어.. 그냥 밤낮이 바뀌는거랑.. 그리고 엄마가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들 동창 사람들에게 네 딸은 어느 학교 썼어? 그럴 때 엄마가 거짓말 했어요. 친척이 있는데 개랑 저랑 동갑인데 너 어느학교 썼다매? 말하는데 엄마가 이모한테 말한게 티나서 했다고 말은 했는데, 개랑 저랑 메신저랑도 친구고..(엄마가 거짓말 한 게) 걸렸어요. 근데 쪽팔린건 당연한데, 그냥 후회됐어요 지금은 검정고시 따가지고 내년엔 학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땐 지금처럼 그런 애들한테 약자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례 3)

Q : 좀 후회되고 그랬나보죠?

A : 중단하고 나서요? 네 많이 지금 이 나이 때 생각해보면 많이 후회되죠

Q : 그 때는 후회 안됐고?

A : 그 때까지는 많이 안늦었다는 생각 때문에 후회도 안되고 그냥 그 나이 때는 그냥 뭐 어떤걸로 해도 다 재밌었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깐 차라리 조금만 더 참고 다녔었다면 지금 대학교에서 예쁜 여자친구 사귀고 막 그러면서 재밌게 엠티도 가고 그랬을 텐데 근데 지금 저는 현재 제 또래 친구들은 다 막 대학교를 가거나 군대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만 이러고 있으니까 많이 후회되고 그래요

(사례6)

A : 지금은 많이 후회되요 처음에 관둘 땐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처음엔 관두길 잘했다 그랬었는데

집에서 3년 쯤 노니깐... 할게 없어요 집에 있으면 그냥 밥먹고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 또 자고 너무 지루해요. 지금 그나마 학교라도 참고 다닐걸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 안남았는데.....

(사례8)

Q : 학교 관두고 나서 너한테 가장 큰 변화라고 해야하나? 뭐 그런거 있다면?

A : 그냥 아직도 다니고 싶거든요 애들 교복 입고 지나가는거 보면 나도 교복입고 싶은데 그러진 못하니깐....

(사례 9)

Q: 지금 혹시 뭐 학교를 다시 들어가고, 돌아가고 싶었던지 그런 생각은 없어?

A: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나이가.

(사례11)

(2) 미련 없는 학업중단

사례 10과 사례 12는 학교를 그만둔 것을 그다지 후회하지 않았으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례 4도 당장의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현실 때문에 학교에 대해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는 듯했다. 사례 4의 경우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심리적인 상처도 많은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란 사치에 지나지 않는지도 모른다. 또한 사례 10은 막연한 동경보다는 솔직하게 교복을 입고 싶을 뿐이라고 말하고, 사례 12도 학생이 누리는 혜택이 부러울 뿐이라고 말한다. 면접을 통해 나타난 사례 10과 사례 12의 태도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례들보다 장차의 계획이 뚜렷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후회나 비관도 없어보였다.

Q: 학교 그만두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A: 네.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Q: 어떻게 달라졌어요?

A: 그 때는 할머니 돈 버는 거 제가 돈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무슨 일 있어도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Q: 학교를 돌아가고 싶단 생각을 안 해봤어요?

A: 네

(사례4)

Q : 1년 안됐구나. 당시 학교 관둔 직후에는 어땠는데?

A : 좋았죠 해방된다는 기쁨에

Q : 근데 시간이 지나니깐 후회돼?

A : 네

Q : 그럼 이제 검정고시 같은거 쳐서 학교 돌아갈거야?

A : 아뇨 전 검정고시 쳐서 제가 하고 싶은거 할거예요 노래 할거예요

Q :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고?

A : 네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게 아니고 교복을 입고 싶을 뿐이에요.

(사례10)

Q: 학교 다니기 전하고 안 다니고 나서 크게 제일 이런 점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것 있어?

A: 달라진 것 없어요.

Q: 학업중단하고 나서 학교에 가고 싶다든지, 이런 생각든 적 없어?

A: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 딱 한 번 들었어요. 사고 쳤을 때

Q: 왜 사고 쳤을 때 학교 가고 싶었어?

A: 사고 쳤을 때 학교 안 다닌다고 그러면 더 불이익 있을 거 같아 가지고, 그 때 속으로 그냥 학교 다닐걸 그랬죠.

(사례12)

(3) 우울증과 자살시도

면접대상자 열두명중 다섯명이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신들도 학교를 나와 일탈을 반복하는 자신들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며 이것이 우울증과 자살시도로 나타나는 듯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가 싫어서 뛰쳐나왔지만 학교밖에서의 무의미한 하루하루와 일탈도 이들에게 괴로움을 주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부모와 단절된 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사례 4의 경우는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시도에서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다는데 적극적인 자살시도 이외 사례 4의 오토바이 폭주도 소극적인 자살시도라고 할 수 있다.

A : 우울할 때마다 친구한테 가가지고 저희는요 막 얼굴이 막 그렇게 뭐라해야되지? 애들이 술같은데가 술집 같은거 다 뚫린단(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니까 죽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막상 죽으려니깐 무서워요 그러다가 진짜 죽어볼까 생각했는데 막 죽으려고 할 때 갑자기 무서운거예요. 그래서 바로 났어요. 그냥 옷장 같은데 걸어서.... 죽을라 했는데 무서운거예요 막상 딱 의자 딱 떨어뜨리려니깐 너무 무서운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혼자서 울었어요

Q : 그 때가 언제데?

A : 그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안다닐 때

(사례 1)

A: 소년원 갔을 때도 그랬고, 중간에 애들이랑 있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삶에 희망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Q: 애들이 있다가 그랬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A: 놀 때가 아니고요.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만 왜 그러고 있지.

Q: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시간 죽이고 그럴 때?

A: 네. 작년쯤이었어요. 칼로 그냥 손 그었어요.

Q: 그 이전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A: 그 전에도 그랬어요.

Q: 언제요?

A: 술 먹고 소주병으로 제 머리 치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사례4)

A : 자해 몇 번 했었는데... 그 때 개...성매매 할 때

Q : 성매매 했을 때? 나와 버리지 왜 같이 있었어?

A : 나올 수 있었는데 그 땐 친한 친구도 있어서 남자도 쉽게 바꾸고 그랬는데, 막상 저 혼자 있고 나니깐 무섭고 그런거예요.

(사례9)

A : 그냥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스트레스가 팍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웬만하면 다 넘어 가는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것도 짜증이 겹쳤다가 한꺼번에 갑자기 겹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울고 싶고 소리지르고 싶고 숨이 안쉬어져요 그저께 그랬어요. 몇 달에 한번씩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Q : 니가 생각하기엔 왜 그런 것 같애?

A : 모르겠어요 제가 좀 참는 성격이에요 A형이라서 한번에 확 터지는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몇 달에 한번씩 그래요 이것도 쌓이고 쌓이고 계속 쌓이는거예요 스트레스가 제가 애들이랑 좀 심하게 놀아요 욕하면서 놀아요 근데 그건 아무렇지 않은데 엄마가 잔소리를 한다든지 다 참아요 아 네 아 네 이려고 다 참아요 그 하나가 쌓이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또 사고 치면 그것도 쌓이고 싸우면 또 쌓이고 그러니깐...

(사례10)

Q: 근데 그런 과정속에서 우울하다 그런 생각 든 적은 없어?

A: 어휴, 없으면 아니죠.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요새도 그래요. 가끔. 저 원래 중학교 땐가? 중학교 1~2학년 때, ADHD랑 우울증, 병원에서 판정받았거든요. 약 한 1년 먹었나? 그리고 약발이 안나요. 처음 먹을 때 나다가 그래서 약 안 먹고 있어요. 병원도 안가고. 그 땐 제가 이렇게 앉아있지 못했어요. 지금도 살짝씩 움직이긴 해요.

Q: 우울증은 좀 어때?

A: 그것도 요새 괜찮아지고 있어요. 막 비오는 날이나 그럴 때 좀 더 그러죠. 한 달 전쯤? 살기 싫어 갇구...

Q: 어떤 점이 특히 힘들었어?

A: 그 때가 일이 다 터졌거든요. 애들끼리 싸우고, 애들이 제 뒤통수치고 배신하고 그니깐 애들이 저를 뒤통수 친 애들이, 지금 제 여자 친구 동생이거든요. 전 여자친구. 참다 참다 못 참아갓고 개한테 욕하고 막, 그니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그니깐 근데 저는 개가 막 약 먹었을 때는 막 어지럽고 토나오고 장난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무 이상도 없던데. 머리도 안 아프고 안 어지럽고. 근데 막 약 먹어갓고 반응 나타나면 괜히 엄마 돈 버리는 거잖아요. 엄마도 가뜰이나 아빠 때문에 빚 있어 갓고 돈 벌면 다 빠져나가는데, 그니깐, 그 있잖아요. 병원비로 엄마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것 때문에 약이고 나발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사례12)

3. 학업중단과 문제행동

1) 학교에서의 문제행동

(1) 교사에 대한 반항과 폭력

보호관찰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부터 크고 작은 문제행동을 저지르며 이로 인해 교사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폭행이나 갈취 등 다른 급우들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교사들의 훈육에도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르게 된다.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질린 교사들은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결석하거나 학교를 그만두게 될 때도 적극적으로 이들을 설득하지 않으며 정보를 주는데도 무심하게 된다.

Q : 선생님한테 대놓고 욕했어?

A : 네

Q : 학교에서 처벌 같은거 받았겠네?

A : 네 등교정지로 끝났어요. 20일.

Q : 학교 다닐 때 등교정지 20일 말고는 다른 규칙 어겨서 (처벌)받거나 그런적 없어?

A : 그냥 교내봉사 그런거 밖에 안받았어요

Q : 교내봉사 라는거는 뭘 잘못해서 받은거야?

A : 선생님한테 거의 뭐라고 하지? 선생님하고 싸워서..치고 박고 싸운게 아니라 제가 화나니깐 의자 같은거 던지면서 나 신경좀 쓰지 말라고. (내가)자고 있는데.. 체벌 금지라고 하잖아요. 요즘은(안 그러는데)... 때려버리니깐 저도 화가 나가지고 때리지 말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래 가지고... 봉사하고 그랬어요

(사례 1)

Q : 무슨 말썽 피웠어?

A :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한테 욕했어요

Q : 왜 그랬어?

A : 제가 선생님이 애들하고 1분 지각했는데 한달 청소를 시키는거예요 이걸 약간 아니다 싫어가지고 마음대로 나가고 수업시간 안들어가고, 퇴학 처리 시킬라고 했는데 퇴학 처리 하는 것 보다 아빠한테 말해 내가 자퇴하겠다고 그냥 자퇴했어요

(사례 8)

(2) 교내 폭행과 갈취

급우들에 대한 폭행과 갈취, 절도 등은 비행 청소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문제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4도 자신이 급우를 폭행한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했으며 사례7은 심각한 폭행으로 피해학생이 입원했으며 부모가 합의하여 사건을 무마시켰다. 그러나 본인은 그 사실을 말하며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사례 11의 여학생도 폭행 사실에 대해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 ‘짜증나서’ ‘짜증나게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교내에서 일으킨 문제행동들은 학생들의 결석으로 이어지고 학업중단과도 관련성을 가진다.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연속해서 학교를 나가지 않다보면 학교이탈이 가속화된다고 할 수도 있다(사례 6 참조).

Q: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A: 네

Q: 어떤 일로?

A: 애들 때려가지고

Q: 뭐 받았어요?

A: 학교 끝나면 청소하는 거 그런 것들, 화장실 청소요.

Q: 왜 때렸어?

A: 덩고 짜증나고 하니깐 급식실 가는 길에 장난을 걸어서, 하지 말랬는데 자꾸 해서 때렸어요.

Q: 어떻게 때렸어요?

A: 주먹으로 얼굴 몇 대 치고 차고 배 차구 그랬어요.

(사례4)

Q :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거예요?

A : 아뇨 제가 했죠 옛날에는... 동갑 친구들이나 후배들 그러다가 막... 그러다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경찰서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많이 고쳤구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학교를 안다니다 보면 그런 재미 들어서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다보니깐 그러다가 아주 아침에 막 학교 갈려고 일어나면은요 가기 싫어지고 그러다가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사례6)

Q : 무슨 사고 쳐서 보호관찰 받는 것 때문에?

A : 그거 하고 학교에서도 사고를 쳐서

Q :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쳐서?

A : 흡연이랑 절도랑 폭행이랑

Q : 절도는 학교에서 무슨 절도를 했어요?

A : 반 털었어요

Q : 반 애들?

A : 가방이요

Q : 애들은 왜 때렸어?

A :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짜증나서

Q : 왜 짜증났는데?

A : 별거 아닌데 화내고 그래 가지고

Q : 얼마나 때렸어?

A : 모르겠어요

Q : 개 입원했어?

A : 네

Q : 그래서 올해 복학이 안돼?

A : 네. 중학교 3학년 때 복학하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해가지고

Q : 중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런거야?

A : 예. 따른 학교 다 가봤어요

Q : 근데 다 안받아주는거야?

A : 네

Q : 학교에서 받은 처벌은?

A : 징계랑 사회 봉사요

Q : 학교 안에서만 징계 받은 거예요? 보호관찰 말고

A : 네 학교에서 때린거예요 학교에서

Q : 그럼 어떻게 처리됐어요?

A : 아 그냥 끝났는데요

Q : 어떻게 끝났어요? 합의?

A : 네

(사례7)

Q: 중 3때 수강명령 받았을 때, 이때도 학교 다니고 있었어?

A: 다닌 거 같아요.

Q: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거?

A: 네. 몇 일 동안 수업 안하고 껌 떼러 다녔어요.

(사례11)

(3) 결석과 지각

사례 5의 남학생은 부모가 중학교 1학년때 이혼했는데, 본인도 그 무렵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검정고시를 치른 후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내 자퇴했는데 무단으로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않고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것은 초등학교뿐이라고 한다. 실질적인 학업중단은 공식적인 서류처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각, 결석, 무단조퇴 등을 반복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뚜렷한 이유없이 학교에 늦게 가거나 학교를 안가거나 학교를 빠져나가는 것은 학업중단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Q : 학교 다닐 땐 잘 다녔냐?

A : 아니요

Q : 지각이나 그런거 많이 했어?

A : 네. 초등학교만 잘 다녔어요

(사례5)

Q : 그전에는 그런 적 없었어?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적?

A :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도 솔직히 좀 만나갔거든요? (집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그냥 밥먹고 집 갔다가 집 있다가 학교 끝날 때쯤 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징계 받았단 말이에요

Q : 무슨 징계를 받았어?

A : 등교정지요. 학교 밥먹고 맨날 나가고 교문 지키는 선생님 있는데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 무시하고 나가고 또... 막 좀 어.. 그러니깐 수업시간에 계속 자고 어쩔 땐 수업 안들어가고 반에서 자고 있고 그래 가지고, 중학교 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이) 친구한테 (학교)나오게 부탁해달라고 그래서 졸업은 했어요 어떻게...

(사례8)

A: 고등학교, 명단에 올라온 것은 한두 달 되는데 나간 건 세 번? 그것밖에 없어요.

Q: 그니깐 입학을 하고 나서 한 서너 번 나갔다고?

A: 네

(중략)

Q: 학교 관두기 전에, 출석정지나 그런거 받은 적이 있어?

A: 고등학교 때는 없는데, 중학교 때는 여러 번 있죠.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리고, 학교를 제가 계속 지각을 했거든요. 가도, 지각 일수만 백 몇 번 될 거예요. 그래 갖고 선생님이 처음에 경고를 했죠. 너 한 번만 지각하면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됐다고, 그냥 계속 지각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차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 진짜 마지막이라고. 그것도 계속 씹고 계속 지각하니깐, 그것 갖다 출석정지 10일 먹었나? 7일 먹었나? 중 2때도 한 번 있었다.

Q: 중 2때는 무슨 일로?

A: 중 2때도 아마 학교 빠져선가, 밖에서 사고치고 다니니깐 출석정지 시켰나? 모르겠어요.

(중략)

Q: 왜 지각한 거야?

A: 늦게 잔 것도 있고, 일찍 가기가 싫어요. 일찍 가면 어차피 선생이 앞에서 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야 되고 아흐...

(사례12)

2) 유흥과 문제행동

보호관찰청소년이 학교에 결석하게 되면서 시간이 남게 되고 남아도는 시간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당구 치고, 게임을 하는 등, 주로 유흥을 위해 소비하게 된다. 보호관찰청소년과의 면접결과, 비행을 저지르는 강력한 동기는 유흥에 쓰이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더라도 용돈이 부족(사례 1)하다고 느끼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사례 5). 돈으로 옷을 사고 신발을 사기도 하며(사례 7) 돈 이외에도 폭주를 즐기기 위해 오토바이를 훔치기도 한다(사례 4). 유흥을 위해 인터넷 사기로 수천 만원을 벌게 되자 경찰이 집으로 들어 닥칠까봐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은 사례도 있다(사례 8).

Q : 돈 생기면 뭐하려고 그랬어?

A : 막상 생기면은 하고 싶은건 많은데 많으니깐 할게 없더라구요 옷사는거 그런거

Q : 아버지가 용돈 안주거나 특별히 돈이 궁했던건 아니야?

A : 아니요 용돈 주시는데요. 저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한거죠 애들은 쉽게 쉽게 돈 버는데 나혼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쓰는게 싫어가지고 애들한테 솔깃해가지고 같이 하고 그랬어요
(사례 1)

Q: 애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뭐 했어요? 학교 안가고?

A: 일단,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Q: 어떤 짓?

A: 오토바이 훔쳐서도 타구요. 그 때 막 폭주 이런 것도 좀하고. 그냥 항상 그랬어요. 오토바이 훔쳐서 타다가 저녁 되면 애들이랑 폭주 뛰고 그 날 아침 되면 친구들이랑 자고 또 일어나서 끼니를 쫓 때우다가 시간 나면 아침에는 놀고 그래요. 저녁 되면 폭주 뛰고 그랬어요.

(사례4)

Q : 왜 자꾸 훔치는지 물어봐도 되냐? 돈이 필요해서 그래?

A : 네

Q : 어디 쓸려구?

A : 그냥 놀고..

Q : 집에 있으면 용돈 주셔?

A : 네

Q : 집에 있을 때 용돈 받는데 왜 흠뻑어?

A : 또 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깐 .. 자주 사고 쳤었는데 그 때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사고 쳐서.....

Q : 애들이 하자 해서 따라 간거야?

A : 아뇨 대부분 제가 하자고 했었는데

Q : 집에서 용돈 줬는데 애들 만나서 흠뻑야겠다고 생각한거야?

A : 돈... 더 많으면 좋잖아요

(사례5)

Q : 근데 왜 그렇게 중계소를 털었어? 돈 때문에?

A : 네

Q : 돈 벌어서 뭐할려구?

A : 놀라고

Q : 뭐하고 놀건데?

A : 옷사고 신발 사고 자고 놀고....

(사례7)

Q : 근데 인터넷 사기는 왜 한거야? 돈이 필요했어?

A : 아뇨 딱히 필요는 안하는데요 아 친구가 대구에서 놀러.. 대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요 대구에 사는 친구가 자기는 20만원 30만원씩 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죠. 나중에 서울 오면 알려 준대요 뭐 그냥 하는거 보여달라고 했는데 20만원 30만원 버는거예요 그래서 저도 했죠

Q : 개는 안잡혔어?

A : 잡혔죠 저하고 사우나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찾아서 잡아갔어요

Q : 그걸로 돈 얼마 벌었냐?

A : 저요? 저 저 혼자 하면 ... 친구끼리 같이 했거든요 .. 총 합쳐서 몇천만원했거든요

Q : 그 돈 어떻게 했어?

A : 다 친구랑 나눠 썼죠

Q : 뭐하는데 썼어?

A : 제가 이거 하면서 집 나왔었거든요. 제가 집 들어가면 막 경찰들 찾아오고 그럴까봐 그래 가지고 유흥비로 썼어요 생활비로.. 모텔... 이랑 밥먹고 어디 놀러가고

(사례8)

3) 가출과 문제행동

보호관찰청소년이 저지른 문제행동의 상당 부분이 가출기간에 이루어진다. 집에 있을 때도 비행이 있었으나 가출이 이들의 비행 행동을 증폭시킨다고 할 수 있다. 가출기간이 길든 짧든 가출을 하게 되면 일단 숙식을 위한 돈이 필요하고, 유흥이나 소비에 더욱 몰두하게 되므로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남학생들은 빈집털이 등 보다 대담하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는 범죄에 손을 대게 되며 여학생들은 자신들보다 연상의 남성들과 엮이게 된다. 여학생들로서는 조건 만남 등의 청소년 성매매가 가장 손쉽게 숙식을 해결하고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성인남성과 만나 숙식을 해결하거나(사례 9) ‘오빠’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범죄에 휩쓸리게 된다(사례 10). 사례 2의 경우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서 가출을 했는데 친구가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는 일에 휘말려 성폭행 방조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다.

A: 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게 좀 그런데 친구들끼리 이렇게 저희 나이 때 술을 먹다가요 술 먹다가 (어)이렇게 막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싸움까지는 아니구요 들어서 싸우는데 말리지도 않았고, 또 사건이 어떤 여자애 사건도 있었어요.

Q: 여자애가 왜?

A: 여자애가 저희가 없었을 때 저희가 술 먹고 싸웠을 때에 남자에 한명이(랑) 사귀었는데 걔 둘이 성관계를 한거죠. 근데 저희가 몰랐는데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그 여자애도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그런줄 알고 거기서 잤죠. 잤는데 이제 그 여자가 신고한거예요 남자를...

(사례 2)

Q : 그럼 처음에 무슨 일로 들어오게 된거예요?

A : 친구랑 아 그 때 친구랑요 가출하면서 막 뭐였지? 주거침입 있잖아요 주거침입 해가지고

절도 이런거 저금통 이런거 절도 한결로 경찰서에(갔어요)

Q : 빈집에?

A : 예 그래가지고 주거침입죄랑 특수절도죄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다가 검찰청에서 한번 봐주시겠다고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어요 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을 때는 완벽하게 끝마무리 지었었는데 그 다음에는 한 중학교 3학년? 그 때 아마 또 다시 제가 그 때 많이 사춘기때라 방황할 때라 오토바이 절도를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무면허에다가 오토바이 절도까지 해서 재판받아서 보호관찰 받게 된 경력이 있구요 그 이후에는 계속 절도죄로 그렇게 된거예요

(중략)

Q : 가출은 언제 했는데?

A : 10월 달부터 했을걸요?

Q : 집에 있으면서 훔치는게 아니고?

A : 집에 있을 때도 훔쳤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가출했을 때죠

Q : 그러면 돈 생기면은 숙소 여관 가고 또 뭐에 써?

A : 옷사고

Q : 옷사고 또?

A : 놀았죠 남은돈 생활비로.. 놀고 먹고

(사례5)

Q : 그럼 얼마 안되서 사고 쳤다는게 어떤 사고 쳤다는거예요?

A : 얼마 안되서 오토바이 절도하고 얼마 안되서 사고친거는 그 때 생각이 잘.. 잘 안나는데요 아무튼 일단 뭐를 훔쳤었어요. 저는요 훔칠 때 금품이나 이런거 안훔쳤구요 집에 돈 있으면 돈만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생활하는데 먹을거나 잠잘 것에 썼었어요

Q : 그럼 중 1 때 남에 집에 들어 갔을 때, 쓸 돈이 없어서 들어갔던거예요?

A : 예 예 그 따른 사람 따른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나 누나들 못만날 때마다 빈집 들어가서 절도했던 기억이 나요

(사례6)

Q : 중3때 가출해서 어디로 갔어?

A : 다 막 채팅으로 남자 만나고

Q : 남자? 어떤 남자? 너 나이 또래?

A : 아뇨. 성인

Q : 아저씨들 만나서 용돈 받고 그랬어?

A : 아뇨 그냥 하루밤 자고 말았는데.. 그냥 하루밤 놀고 끝난건데

(중략)

A :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가 아까 같이 있던 친구랑 있다가 어떤 남자 두명 만났는데 개랑 그 오빠랑 사귀거예요. 그런데 개(오빠)가 저희보다 좀 어린애들 있잖아요. 개들(어린애들)한테 성관계 해준다고 꼬셔가지고 그거 뭘 재미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 해가지고

Q : 너를 소개해 준다고?

A : 네. 개네들이 직접 말해요 언제 언제 집 빈다고, 그럼 제가 먼저 올라가서 부모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문을 열어줘요 어디 나갔다 온다하면서.. 그 오빠가 문 앞에서 대기 타고 있거든요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문을 열어주면 개가 제 친오빠인 척을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저랑 그 남자애랑 화장실에 가두고 가방 다 뒤지고 그랬어요. 금 나오면 나오고 나서 화장실 열어주고 그 남자애 데리고 집밑에까지 간 다음에 저희 택시 타고 나서 보내주고 그랬는데

Q : 몇 번이나 그랬어?

A : 여섯 일곱번?

(중략)

Q : 그 오빠는 몇 살이야?

A : 스물 네 살이요 개가 막 좀 돈 다 떨어지니깐 뭐지? 개(오빠)가 원래 천오백만원 있었는데 그게 원래 저랑 저희 만나기 전에 사귄던 여자애한테 사기친 돈이에요. 저희도 그건 몰랐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제 친구랑 제 친구 사귀는 오빠 나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개(오빠) 핸드폰 전화가 계속 오는거예요. 왜 전화 안받냐 하니깐 (여자애한테 사기친)얘기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꺼냐니깐 짜제요. 그래서 원래 수원 있었는데 익산으로 도망갔거든요? 도망 갔는데 돈 다 떨어졌잖아요 일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하나 했어요. 분위기를 막 저를 막 돈 벌게 할려고 막 그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매매 하다가...

Q : 너한테?

A : 네 그게 계속 가다보니깐 제가 성병 걸린거예요. 제가 수술도 받고 나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니깐 개가 그 범행 저지르자 한거예요

(사례 9)

Q : 근데 oo는 왜 학교 집이 답답하고 싫었어?

A : 그때는 그냥 노는게 좋았어요 저희 집이 외박을 한번도 못하게 했어요 친구네 집에서 잔다거나 못하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통금시간 10시까지였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놀고 싶잖아요 제 주위 애들은 거의 다 일주일에 몇 번씩 부모님 합의를 봐서 외박을 한다던가 친구네집에서 잔다거나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한번도 없으니깐 저도 한번 밤새 놀고 싶은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출 아니 처음에는 내일 들어가야지 이라고서는 나갔다가 막상 내일 들어가기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놀자

Q : 무섭다는게 엄마한테 야단맞을까봐?

A : 네

(중략)

A : 가출했다가 그냥 모르는 오빠들 만났다가 같이 사고를 쳐서 왔어요

Q : 무슨 사고 쳤어?

A : 강도상해요 옆에 있어.. 공범으로

Q : 오빠들 어떻게 만났는데?

A : 인터넷으로, 며칠 같이 지내다가 사고를 쳤죠 만나서 3일 있었나? 3일 있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Q : 3일 동안 뭐했어?

A : 놀았는데... 차타고 바닷가 갔다가

Q : 차가 있었어?

A : 그 한 오빠가 3명이 성인인데 한명은 자기차가 있고 한명은 랜트카를 빌려가지고 차가 두 대가 있어 가지고 나눠 탔어요. 그래 가지고 바닷가 갔다 오고 해수욕장 갔다 오고.... 그 중에서 차있는 오빠가 친동생이라고 가정하고 니가 내 친동생 몸 건드렸다 뭐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오빠들이 그 아저씨를 때렸어요 근데 외상이 없어요. 다친게 없어요 옷만 찢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병원가니깐 1주가 나온거예요 그것 갖다가 상해라고..

(사례10)

4. 보호관찰청소년의 희망과 보호관찰의 기능

1) 보호관찰청소년의 희망과 꿈

보호관찰청소년 중 몇몇 사례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 직업과 희망 사항을 찾았다. 사례 2는 이전부터 꿈이었던 가수 데뷔를 위해 보컬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했다. 사례 4는 굴삭기 기사가 되어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사례 6도 전기기술사가 되어 돈을 벌고 싶다고 응답했다. 사례 2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환경이 청소년에게 꿈을 위해 노력할 발판을 만들어주는 경우이고 사례 4는 반대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청소년이 일찍 현실에 눈을 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0은 노래를 잘하지만 가수보다는 현실적으로 보컬학원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 사례 12도 미용기술을 배워 미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에 노력하고 있었으며 향후의 세부 계획도 서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사례들은 장래 계획이나 꿈이 막연했다. 멋져 보인다는 이유로, 그냥 막연한 꿈으로 경찰, 연예인, 판사가 되고 싶다고 응답했다. 사례 8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부모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적성을 찾지 못하는데는 학력 중심의 사회풍토도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다.

Q : 앞으로 혹시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이런 희망사항 같은 거 있어?

A : 제가 좀 잘해가지고 되고 싶은건 연예인이나 가수예요. 근데 공부좀 잘했다면 변호사나 검사가 되고 싶어요. 막 멋있어 보이는거예요 영화로 보면 멋있어 보이는거예요

(사례 1)

A : 아르바이트 아니고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음악학원 다녔어요.

Q : 음악 중에 뭐해?

A : 실용음악 보컬하고 피아노 화성악이요

Q : 노래 잘하나보네?

A : 그냥 어느 정도...

Q : 인제 보컬학원 다녀가지고 가수 데뷔하고 싶어?

A : 예, 예술도 하고 예술 대학 하려고 원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했어요.

(사례 2)

Q : 혹시 계획 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A : 일단 졸업장 따고 그 학교 2년제로 들어가요 2년제로 3년 다 다니기에는 그 때 되면 스물 한살 스물 두 살 일텐데 그냥 그럴 것 같고 2년제 라는게 있는데 2년만 다니면 졸업장을 줘요

Q : 그럼 고등학교 나오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있어?

A : 그냥 가수 꿈만 꾸는거고 졸업하면 아니 학교 다닐 때라도 그냥 일하면서 돈 벌면 돈 버는게...

(사례 3)

Q: 그전에 되고 싶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있었어요?

A: 아니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Q: 지금 혹시 내가 되고 싶다, 희망이나 이런 것 있어요?

A: 그런 건 없는데요. 제가 돈 벌어서 가족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된다면 좋은 것 같아요.

(중략)

Q: 대부분 학생들이 취업패키지 많이 하던데?

A: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Q: 그 중에서 뭘 해?

A: 전 굴삭기요

Q: 그럼 앞으로 직업을 그런 쪽으로 가질 수 있겠네?

A: 네

Q: 검정고시 같은 거는?

A: 일단 나중에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취업하고 자리 좀 잡게 되면 그 때.

(사례4)

Q : 앞으로 oo이 뭐하고 싶어?

A : 저요? 경찰이요

Q : 진짜 원해?

A : 그냥 꿈이 경찰이예요 되고 싶어요. 다른 마땅히 할만한 것도 없고

(사례5)

A : 저는 좀 더 목표를 높이 세웠었어요 아니 높이 세웠어요 전기 기능사라고 있어요 처음에 전기 기능사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격증을 높이 떠나갈라고 하는데요 전기기능장이나 전기기술사가 있어요 그게 연봉 오천정도 벌어서 저는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되기도 하고 그니깐 이제 경력 쌓아서 취직 할려구요

(사례6)

Q : 그럼 oo이 뭐가 되고 싶어?

A : 변호사요

Q : 왜?

A : 그냥요

Q : 무슨 계기가 있어?

A : 아니요

(사례7)

A : 한명은 저한테 이야기 했어요. 그 친구 아버지가 중장비 뭐라 하지? 건설업하는거 있잖아요 포크레인 같은거 사장님이신데 밑에서 일한다고. 포크레인 자격증 따가지고 거기서 일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 있는데요. 부모님한테 말해봤는데 좀 아니래요

Q : 왜?

A : 모르겠어요 좀 아니라고 하는데 따른 일 해보라고....

Q : 왜 위험하데?

A : 솔직히 위험한건 없어요 포크레인 앉아 있다가 퍼주고 그러는건데 모르겠어요 하지 말래요

Q : 그냥 부모님은 너가 공부하기를 원하시는거야?

A : 지금 그런 마음도 있긴 있죠 형은 대학 다니는데 저만 이러고 있으니깐 따른 가족들은 다 대학교 다니고 다 졸업했는데 저혼자만 이러거든요 지금....

(사례8)

Q : oo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단든지 그런거 없어?

답 변 : 판사 될거예요

(사례9)

Q : 그래서 보컬학원에 가서 데뷔하는게 꿈이야?

A : 아뇨 저는 선생님 할거예요. 가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몸매를 가꿔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어서

Q : 근데 사람들이 다 유명해지고 싶고 그래서..

A : 힘들잖아요. 자살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저는 자살하고 싶진 않아요

(사례10)

Q: 응. 근데 미용사는 원래 관심이 있었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A: 네

Q: 잘됐네.

A: 미용사 할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자격증 따고 잘하는 것 같으면 유학보내준대요. 그래서 할라고 해요.

Q: 미용사가 되는 길로 진로를 바꿨구나. 운동선수에서.

A: 운동은 그래도 취미로는 할라구요.

(사례12)

2) 보호관찰의 기능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보호관찰청소년의 일상도 약간은 규칙성을 유지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미래와 관련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심층면접의 성격상 협조적인 피면접자들로만 면접이 진행되어 편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보호관찰이 무질서했던 이들의 생활에 질서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다. 사례 3과 사례 5는 근래 특별히 하는 일없이 지낸다고 하지만 사례 3은 5월에 검정고시를 본 상태였고 사례 5는 집에서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했다.

Q : 개들은 그럼 고등학교? 그치? 그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 다니든 안다니든?

A : 아니 옛날에는 많이 놀아가지고 초반까지는 많이 놀았거든요?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근데 후반되면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없어서 잘 안만나요

Q : 열두시까지 일하니깐 일주일 내내 나가는거야? 아르바이트를?

A : 네 일주일 내내 가요 아홉시부터 한시까지는 또 학원을 가야해요 네시부터 열두시까지를 일을 가야하는데 놀 시간이 없어서 잘 안나가요

(사례 1)

Q : 그럼 하루 어떻게 보내니?

A : 학원 갔다 오면 11시 반 12시? 그럼 씻구 바로 자면 되요

Q : 그 학원이 보컬학원이야? 아님 입시?

A : 아뇨 실용음악학원 다 피아노 다 있는

Q : 그럼 검정고시는 혼자서 준비한거야?

A : 네 혼자서

Q : 아침 몇시에 일어나?

A : 어.. 보컬학원은 아침요? 아침엔 10시 11시...

Q : 그럼 낮에는 뭐하는데 몇시 학원가는데?

A : 낮에는 특히 숙제가 좀 많아서요 좀 하다가 게임도 좀 하다가 그러다가 한 네시쯤에 가는 편이에요.

(사례 2)

A : 학교를 안가니깐 애들 학교 가는 시간에 나는 자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괜히 안자고 있다가 아침에 자는 것 같아요

Q : 집에서 근데 뭘 하고 지내?

A :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시간 다 가던데

Q : 아침 몇시에 일어나는데?

A : 거의 이 시간대(오후 1시경)에 일어나요

Q : 그럼 낮에는 뭐하면서 보내?

A : TV 보거나 미용에 좀 관심이 있어서 메니큐어 혼자서 바르거나 그냥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Q : 새벽에 몇 시에 자는거야?

A : 네 시쯤에

(사례 3)

A : 요즘예요? 요즘에는 아침에 자서 밤에 일어나요

Q : 어 아침에 몇시에 자는데?

A : (오전) 10시, 10시 반?

Q : 그럼 언제 일어나?

A : (저녁) 일곱시?

(사례 5)

A : 아침엔 거의 7시나 8시에 일어나요. 그 때 일어나서 씻고서 밥먹고 그러면서 이제 뉴스 보잖아요 아침에 뉴스 봤다가 그 세상 돌아가는거 보다가 막 그냥 책 같은거 읽거나요 그 그러다가 어느새 보면 점심이에요. 점심 때 밥을 잘 안먹어요. 점심 때 그 그냥 컴퓨터로 그 뭐 막 인터넷 보거나 그러다가 그러다 보면 또 어느새 초저녁 즈음이에요 그럼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한테 연락 오면 연락하다가 그러다보면 또 저녁이어서 집에 들어와서 씻고서 밥먹고 밤에 티비 살짝 보다가 막 네....

Q : 특별히 하는 일이 없네?

A : 특별히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제가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1단계 2단계3단계 이렇게... 1단계는 상담이라고 있는데요 상담선생님을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저에게 맞는 일을 찾아 주시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해요 지금 1단계가 끝났는데요 그럼 2단계를 들어가야 하는데 2단계는 학원을 다녀야 해요 제가 다닐 학원을 알아보기도 해야 하고 8월달 동안, 8월1일에 그 학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할게 없어서 지금 이려고 있어요

(사례 6)

Q : 요새는 어떻게 살어?

A : 한 열두시만 되면 자고 여덟시..

Q : 밤 열두시?

A : 아침 여덟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학원 가고 끝나고 와서 놀고 열시쯤에 들어오고 또 열두시쯤에 자고 그렇게... 요즘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학원 다니면서

Q : 어떤 학원?

A : 점정고시 학원

(사례 7)

Q : 요새는 10시 일어나서 뭐해?

A : 음.. 그냥 집에서 준비하고 친구들 기다렸다가 또 피씨방 갔다가

Q : 피씨방에 몇시에 가는데?

A : 세시? 세시쯤?

Q : 세시에 가서?

A : 10시(들어와요).... 그 이후로 할게 없거든요 10시 지나면

(사례 8)

Q : 그럼 몇시부터 몇시까지 다녀?

A : 아침 아홉시 사십분부터 한시 십분까지

Q : 어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네?

A : 네. 일곱시나 일곱시 반

(사례 9)

A : 저요 야간전화 받으면 두시에 끝나요. 두시부터 잠이 안와요 제가 원래 12시부터 2시 사이에 잠이 오거든요 근데 12시부터 2시 사이에 전화가 와요 못자요 그럼 2시 때부터 잠 다 깨요 핸드폰하나로 빼기면은 핸드폰을 계속 하다보면 어찌다보면 밤을 새게 되요

Q : 핸드폰 한다는건 게임한다는거야?

A : 아노 카카오 애들이랑 놀아요 애들이 안자요 애들이 다 야행성이어 가지고 학교를 안다니니깐 밤을 새고 아침에 잔단 말이에요 저도 야간전화 때문에 밤낮이 바뀌었어요 지금 졸려 무지 죽을 것 같은데.... 핸드폰 하고 자야지 이러면 다섯시 반 여섯시 이래요 모두가 일어날 시간에 저는 자야 되는거예요 애들이 단체로 저까지 세명이서 카톡을 하거든요. 애들 학교갈 시간에 일어나지 일어나면 저희 세명은 자요 그 시간에...

Q : 그러니깐 밤새 안자고 있다가 일곱시에 잔다는거지?

A : 네 그리고 자다가 저는 일곱시까지 학원을 가야 해서 4시에 일어나요

Q : 오후 네시?

A : 네시 반이나 그 때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밥먹고 다섯시 30분에 나와요 학원에 가야.... 제가 일부로 시간타임을 그렇게 잡았어요 못일어나니깐

(사례 10)

A: 한 시 열두시? 그 쯤 일어나서 그냥 집에 있다가 오후, 저녁때 친구 잠깐 만나고 들어와서 야간전화 받고, 컴퓨터 하면서 새벽에 있다가 자는데

Q: 낮에 집에 있을 때는 뭘하는 거야?

A: 티비 봐요.

Q: 친구 만나면 뭐해?

A: 그냥 얘기해요.

(사례 11)

Q: 근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거야?

A: 저요? 맨날 바뀌어요. 어느 날은 일찍 일어나고, 어느 날은 한 두시쯤 일어나고, 어느 날은 아예 안자고 나가 놀다가 잠들면 못 일어나고 그래요.

Q: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 대충?

A: 그냥 집에만 계속 있죠. 일어나서 씻고 담배 피고 컴퓨터 쯤 하다가 누워서 카톡 하다가 담배 피고 밥먹고 자고 싶으면 잤다가 날 괜찮으면 운동하러 나갔다가 저녁 되면 저녁밥 먹고 엄마 오는거 보고 엄마랑 얘기 좀 하다가 카톡 하고 자는 거죠.

(사례 12)

비행을 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일상적이고 좋은 경험은 아니나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보호관찰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처럼 보였다. 보호관찰중인 현재에는 보호관찰관들의 영향력이 교사나 부모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보호관찰관들은 검정고시나 취업패키지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검정고시를 보도록 격려한다. 또한 보호관찰소를 통해 학원비를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보호관찰청소년에게는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도 보호관찰관이 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진심으로 이를 고마워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보호관찰소는 적어도 사고는 안치게 하는 곳(사례 1), 격려 받을 수 있는 곳(사례 4), 각종 정보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사례 2, 사례 12)이다.

A : 사고는 안치게 해요 사고 치면 야간외출전화 준다고, 저는 야간외출, 전에 좀 싫어해가지고 사고 안치고 그래요. 그냥 끝났는데 또 받는게 싫어가지고

(사례 1)

A : 처음엔 당연히 솔직히 죄명이 좀 있으니깐 솔직히 선생님이 저를 좋게 보시진 않으셨겠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음악 한다고 하고 검정고시 학원 다니면서 음악도 따라가야 하잖아요 공부 안한 기간이 있으니 따라가야 해서 학원에서 선생님이 알아봐주시고 보호관찰에서 써주면 반값으로 할인된다고 그러면서 또 법원에서 뭐 행사 어디도 가고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Q : 서로 고민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래?

A : 네

(사례2)

A : 지금 보호관찰 선생님이요? 전에 보호관찰 선생님이 좀 착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만만하게 본게 있었어요. 그때도 야간전화 받았는데 안받고 그러다가 결국 제가 만만하게 본 선생님한테 구인되서 잡혀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그냥 잘 만난 것 같아 되게 무서워요.

(사례 3)

Q: 보호관찰선생님은 어때요?

A: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힘들다 싶으면, 힘내라고 한 마디씩 해주시고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요.

Q: 신경 써준다는게 어떤?

A: 어... 보호관찰소에서요. 모여서 단체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라고 한 번해보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사례4)

A : 처음에는 제가 좀 말썽 피워가지고 저한테 나쁘게 대해.. 나쁘기 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나쁘게 대해줬는데요. 지금 검정고시 접수도 하고 그러니깐 좀 믿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례8)

A: 되게 착한 것 같은데.... 저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건 다 지원해주려고 노력하세요. 쌤이. 취업(패키지).... 그것도 선생님 해주시고, 그거 말고도, 몇 개 더 받았었거든요. 장학금 받고 그랬었는

데. 장학금이랑 생각나는 건 두 개 밖에 없는데, 지원해준 건 되게 많을 거예요. 치매 걸린 것 같아서 더 생각이 안나요.

(사례12)

5. 소결

심층면접 대상자는 모두 열두 명이다. 이중 남학생이 여덟명이고 여학생이 네 명이다. 이들 중 세명을 제외한 아홉명은 이전에도 비행력이 있으며 다섯명의 청소년들은 2회 이상의 비행력을 가지고 있었다. 열두명중 세명의 청소년들은 학업중단경험이 2회이다. 면접대상자들은 서너명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며 절반의 피면접자들이 결손가정의 청소년이다.

면접결과는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에 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주었다. 첫째, 청소년의 비행과 학업중단은 가정환경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제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환경도 중요하였다. 즉 가난과 결손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핍도 청소년의 비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 자녀 간 유대감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에도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부모자녀간의 친밀성이나 유대감은 낮았다. 부모자녀간의 불신이 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본인뿐 아니라 형제자매들도 학업중단과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의 비행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피면접자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보였다.

둘째, 정규학교로의 재입학은 보호관찰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면접을 통해 학업중단 이전에도 비행은 있었으며 학업을 중단한 이후 재비행이 촉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이 학교를 이탈하는 것은 서류상의 학업유예나 자퇴 시점이 아니라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면접에 입한 보호관찰청소년은 대부분 중학생 때부터 학교이탈현상을 보인다.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결국은 고등학교에서 자퇴함으로써 완전히 학업을 중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학교들은 공부와 성적, 상급학교 진학 이외의 길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주지 못할 뿐 아니라 학업이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배려도 하지 않는다. 때문에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는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정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생들을 부러워하고 자신만 뒤쳐졌다는 열패감으로 괴로워하지만 이들의 후회와 막연한

동경은 현실을 인식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듯했다. 즉 학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확고하게 정한 청소년들은 내적갈등 없이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지만, 학업중단을 후회하는 청소년들의 경우는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우울수준도 높았다.

셋째, 보호관찰청소년은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거나 정신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 면접에서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거나, 우울증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례들은 다섯 명 뿐이었으나 면접대상자들이 들려주는 일상생활은 이들이 심각한 무기력증에 빠져있음을 알려준다. 학업을 중단한 보호관찰청소년은 밤과 낮이 뒤바뀐 채 게임에만 몰두하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일상을 반복한다. 희망이나 꿈을 상실한 청소년들은 자신들도 스스로를 한심하다고 여기지만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다. 특히 집안이 어렵고 부모의 관심이 적은 청소년일수록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청소년에게 보호관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보호관찰관의 관심과 격려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도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직업교육을 받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은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고자 했으며 이것은 일정부분 비행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면접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학교 체제는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교사의 역할도 제한적으로 이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좌절한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멘토들이 필요하다. 즉 상급학교 진학이나 졸업장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인생과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을 그만둘 때나 학업을 그만둔 이후에도 보호관찰소이외에서는 정보적 지지나 상담을 받을 수 없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실제 이들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줄만한 기관들이 없으며 소수 존재하는 기관들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면접결과에서도 보호관찰청소년은 청소년 상담센터나 수련관 등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안다 하더라도 이용해보지는 없다고 응답했다. 때문에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이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동네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며 기관의 활동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둘째, 보호관찰청소년 중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보호자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사례들의 경우는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보호관찰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이 직업교육을 마친 경우, 정부가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앞선해주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의 설문에 나타난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는 초·중학교 43.2%, 고등학교 56.8%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보다 초·중학교때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비행을 보면 남학생들은 절도가 여학생들은 폭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80%가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3회 이상의 처분력을 가진 대상자가 약 17%였다.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으로는 절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력, 보호관찰위반, 교통범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 65%의 대상자들은 공범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범행 동기는 주로 유흥비가 필요해서 저질렀다는 응답이 많았고, 그 밖에 친구의 요청, 호기심, 분노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학업중단의 원인과 실태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과 학업중단의 이면에는 이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간의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보호관찰청소년은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 모두 없는 가정의 비율이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경제수준도 하층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못지않게 보호관찰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심층면접을 보면 한부모 혹은 맞벌이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느라 자녀들에 대한 충분한 보살핌이 결여된 경우도 많았고, 양부모가 있는 중산층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과 신체적 학대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적절한 정서적 지지와 보살핌을 주지 못했으며 자녀가 어린 나이부터 지속적으로 비행을 저질러 자녀에 대한 신뢰와 훈육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둘 간의 불신과 불화가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과 학업중단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둘째,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나 보호관찰청소년이나 학업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보다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학업중단을 택한다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결석과 비행을 반복하다가 학업유예로 혹은 학교의 자퇴권고로 인해 떠밀리듯 학교를 나간다. 때문에 설문조사결과 이들이 학업중단을 후회하는 비율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층면접결과를 보면 이러한 후회는 정상성을 이탈한데서 오는 열폐감일 뿐 학업중심인 현실학교로의 회귀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를 보면 보호관찰청소년의 삼분의 일이 복학경험이 있었다. 즉 보호관찰 청소년은 학업중단이후 재입학 하는 비율도 높지만 재이탈을 반복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적극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므로 학업을 중단할 때까지 부모나 교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지도 못했으며 학업중단 숙려제나 진로 및 직업훈련 등의 정보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결과 대상자의 대부분이 상담을 권고 받은 적도 학업중단 숙려제, 대안학교, 직업교육, 재입학 정보 등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였다.

넷째, 학업을 중단하기까지 마음의 준비나 정보가 부족했으므로 보호관찰청소년의 학업이후 생활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크게 달랐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이 검정고시준비, 대안학교, 직업훈련,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하고 보다 생산적인 경험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보호관찰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을 하거나 무위도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유일하게 아르바이트에서만 일반학업중단 청소년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많다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심층면접결과를 보면 저축이나 학원비 등 건전한 방향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유흥비로 탕진되었으며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대부분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므로 단기간으로 끝나는 듯했다.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에게 특히 직업진로와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설문에서도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은 진로상담이나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보호관찰청소년은 주로 일자리 소개라든지 직업기술훈련에 대한 정보를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보호관찰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다른 원인에서 기인한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 간에 자아존중감, 자아통제력, 우울감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치열한 입시경쟁속에서 한국청소년 일반이 심리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보호관찰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는 그 원인을 달리한다고 한다.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하루 일과, 보호관찰을 받게 된 현재의 상황, 불투명한 미래와 어려운 집안환경 등이 이들로 하여금 우울증과 자살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사례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우울증이나 자살시도경험을 이야기 했으며 알코올 의존증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여섯째,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친구들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친구들이 보다 비행성향이 높았다. 보호관찰청소년의 경우는 주변 친구나 형제자매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문제행동을 저지른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비행과 학업복귀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일곱째,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의 피해경험과 문제행동을 보면, 집단따돌림(왕따) 피해를 제외하고 피해 경험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간에 학업중단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비행경험에 있어서는 집단 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흡연, 음주,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빼앗기 등 여러 비행유형에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보호관찰청소년의 비행률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청소년은 물론 일반학업중단청소년도 음주를 제외한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이 줄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이후 보호관찰청소년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서는 모든 비행유형에서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학업중단이 비행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나 보호관찰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편향의 결과일수도 있다. 즉 보호관찰소를 통해 설문을 받는 조사방식의 특성상 대상자들이 솔직하게 답을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보호관찰을 받으며 근신 중인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한 결과일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의 경험과 지원을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청소년과 보호관찰관의 관계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상자들은 보호관찰소를 통해 상담지원, 학업지원, 원호금 지원, 직업훈련 등 다양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결과 양쪽 모두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의 보호관찰관에 대한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소의 지원도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도 보호관찰소에 있는 동안은 최소한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교사와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정서적 정보적 지원자로서 인식되었다.

2. 결론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방안

학업중단이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막아야 될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 학업중단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기서는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학업중단 이전의 무단결석에 대한 적절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보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시기가 빠른 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학교 때 중단한 비율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다. 또한 학업중단 이전 무단결석 빈도를 보면, 주1-2회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67.4%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36.7%에 비해 30% 정도 높았다. 이와 관련하여 학업중단의 형태도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유예가 20%대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5%대에 비해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무단결석 등이 이어지다가 유예의 형태로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경향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많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업중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무단결석 발생 시에 적절한 조기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담임교사의 가정방문과 상담교사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일 이상의 결석 시 가정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지침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무단결석 학생이 있을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구축을 통해 무단결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하여 상담과 필요한 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무단결석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이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시 고민을 상담한 사람으로 부모의 비율이 60%대이긴 하지만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80% 가량에 비해서는 적었다. 반면 상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비율은 17.4%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7.8%에 비해 높았다. 이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의논할 사람이

적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에서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80% 정도였지만,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절반도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비율이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70%대로 일반학업중단 청소년의 40%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특히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상담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위기학생들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등이 체계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경우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여 외부 기관과 연계해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업중단 후 학교에 복귀하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보면, 학업중단 후 복학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30%정도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10%에 비해 3배 가량 많았다. 복학이유를 보면 두 집단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를 고려하면 학업중단 후 학교에 복귀하는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비행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와 떨어져 있던 공백기, 비행으로 인한 교사나 친구의 낙인, 주변 비행친구로부터의 유혹, 가정적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상태에서 학교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 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부모, 학교, 지역사회 기관이 연계하여 학교에 복귀한 학생들의 적응을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여기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 지원체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살시도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전문적 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 주위 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는 항목에 대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각각 66.3%, 58.4%가 그렇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미성숙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부정적 시선을 받는 것은 성인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과 더불어 비행으로 인해 주변의 시선이 더 부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상 확립을 도와주고,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가 중요할 것이다. 참고로 소년사법기관에 오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개입 시 청소년들의 순응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논의된다(Bouffard and Bergseth, 2008: 298). 이를 고려하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이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서 자살시도나 우울증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모두 우울감을 측정하는 4점 척도의 10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각각 2점 이상을 보였다. 또한 자살시도가 두 집단 모두 학업중단 이후 감소하긴 하였지만,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학업중단청소년 각각 학업중단이후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8%, 7.2%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연계시켜 주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 적이 있다는 비율이 91.1%로 일반학업중단청소년의 63.7%에 비해 많았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각자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정적 또래관계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행청소년으로 하여금 비-범죄적 또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재범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논의된다(Mulder, Bran Bullen andarle, 2011: 130).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비행친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친구의 영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정적 또래관계를 차단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를 다니지 않고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행친구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대안을 찾고 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비행친구의 압력이나 유혹이 있을 경우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가족 개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역할 기술은 청소년의 재범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논의된다(Mulder, Brand, Bullen and Marle, 2011: 130). 또한 소년범죄자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긍정적 행동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가족을 지속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해야 한다고 본다(Quinn and Van Dyke, 2004: 195). 이 연구의 조사결과를 보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학업중단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방임이나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에 대해 올바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자녀의 재비행 예방은 물론 사회적응, 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한 가족안정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에 대한 개입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방문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별도로 마련할 수도 있지만, 현재 드림스타트와 같은 사업을 확대해서 청소년기이지만 고위험군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매뉴얼 개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필요시 외부 기관에 연계시켜 주기 위해서는 매뉴얼이 개발되고,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앞서 살펴 본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비행 가해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비행 가해나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감소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호관찰 중이라는 상황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비행 가해나 피해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행 가해나 피해가능성이 있을 경우, 혹은 비행 가해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전문가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보호기관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 간 연계가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단계의 청소년을 예로 들면,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단계에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외부 지원체계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방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도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담당하는 대상자수가 많으며, 특화된 지원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외부 지원기관과 연계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찰소와 연계될 수 있는 기관들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관찰을 종료한 이후의 학업중단 비행청소년들, 소년원에서 퇴원한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 대해서는 사례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나 지역사회가 이들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을 관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년보호기관과 지역사회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다양화되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학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할 경우 외부 기관에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 이를 파악하는 기관은 해당 학생을 상담, 관리(필요한 경우 방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 상담기관,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 등에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된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을 보면, 학업중단 이후 진로상담자가 보호관찰관이라는 응답이 61.3%였다. 이는 보호관찰관의 역할이 중요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다른 지역사회 내 상담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관들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서, 지원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통계. 충북: 질병관리본부.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14(1), 299-317.
- 금명자, 권해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 (2004). 학교밖 청소년 종합지원체제구축운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9).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금명자, 권해수,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 (2004). 학교밖청소년 욕구조사, 학교밖청소년 길찾기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50). 21-44
- 금명자, 주영아, 이자영, 김태성, 김상수, 신현수 (2005). 학교밖청소년 평가도구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11).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범구 (2012). 연구논문: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성곤 (2005). 비행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환경·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8, 165-217.
- 김순규 (2002).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논집, 28(3), 21-39.
- 김준호, 이동원, 박미성 (1993). 중퇴와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구보고서 91-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선, 홍영오 (20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연구총서 11-2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영 (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류한구, 김양분, 현주, 김일혁, 강상진, 김현철, 박성호 (2008).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Ⅳ) : 예비조사 보고서 (연구보고 RR 2005-1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민인철, 이용교 (2011). 광주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보고서. 광주: 광주광역시.

- 법무연수원 (2013). 2012 범죄백서. 경기: 법무연수원.
- 송순용, 양철호 (2009). 보호관찰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연구, 17, 61-82.
- 안현의 (2002).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15-27.
- 양종국, 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1.
- 윤여각, 박창남, 잔병유, 진미석 (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김영지, 유성렬, 강명숙 (2013). 학업중단학생 중단정책 연구. 경기도교육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 (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연구보고 10-R3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김기현, 임희진 (2007).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연구보고 07-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백혜정 (200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III (연구보고 05-1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KCYPs) 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서정아, 배상률, 성은모, 김지영, 강현철 (201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KCYPs) I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2-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병환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방안. 한국교육, 29(1), 175-196.
- 이숙영, 남상인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이희길 (2006). 범죄성의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가출경험

-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2.
- 전영실, 노성훈 (2011).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연구총서 11-12).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영실, 신동준 (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피해 및 가해에 관한 연구 (연구총서 12-AA-01).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희, 이현진, 황수진 (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 표갑수 (1993). 중·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중퇴자와 재학자의 비교. 청소년학연구, 1(1), 127-147.
- 최옥채, 이정미 (2006).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연구, 33, 143-167.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2-R1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kers, R.L. & Sellers, C.S. (2004). *Criminological Theories: 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한국어판: 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각 공역, 범죄학 이론, 나남출판, 2005)
- Alika, H. I. (2012). Bullying as a Correlate of Dropout from School among Adolescents in Delta State: Implication for Counselling. *Education*, 132(3), 523-531.
- Beauvais, F., Chavez, E. L., Oetting, E. R., Deffenbacher, J. L., & Cornell, G. R. (1996). Drug use, violence, and victimization among White American, Mexican American, and American Indian dropouts, students with academic problems, and students in good academic stand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3), 292.
- Bouffard, J. A., & Bergseth, K. J. (2008). The impact of reentry services on juvenile offenders' recidivism.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6(3), 295-318.

- Dryfoos, J. G. (1990). *Adolescents at risk—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Ensminger, M. E., & Slusarcick, A. L. (1992). Paths to high school graduation or dropout: A longitudinal study of a first grade cohort. *sociology of Education*, 65, 95–113.
- Franklin, C. (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s. *social work*, 37(4), 338–344.
-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ck, R. J., & Arm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enry, K. L., Knight, K. E., & Thornberry, T. P. (2012). School disengagement as a predictor of dropout, delinquency, and problem substance use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1, 156–166.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nosz, M., LeBlanc, M., Boulerice, B., & Tremblay, E. R. (1997). Disentangling the weighting of school dropout predictors; A test on two longitudinal sampl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6), 733–762.
- Katsiyannis, A., Ryan, J., Zhang, D., & Spann, A. (2008). Juvenile delinquency and recidivism: The impact of academic achievement, *Reading and Writing Quarterly*, 24(2), 177–196.
- Kokko, K., Tremblay, R. E., Lacourse, E., Nagin, D. S., & Vitaro, F. (2006). Trajectories of prosocial behavior and physical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Links to adolescent school dropout and physical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6(3), 403–428.
- McHale, S. M., Crouter, A. C., & Tucker, C. J. (2001). Free-time activities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2(6), 1764–1778.
- Mulder, E., Brand, E., Bullens, R., & Van Marle, H. (2011). Risk factors for

- overall recidivism and severity of recidivism in serious juvenile offen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5(1), 118–135.
- Quinn, W. H., & Van Dyke, D. J. (2004). A multiple family group intervention for first-time juvenile offenders: Comparisons with probation and dropouts on recidivism,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2(2), 177–200.
- Rumberger, W.R. (2012). *Dropping out: Why students drop out of high school and what can be done about it*, Harvard University Press.

부 록

1.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설문지 및 보호관찰관련 조사용
별지
2.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심층면접 질문지

부 록

1.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설문지 및 보호관찰관련 조사용 별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2013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는 향후 3개년 간 계속되는 연구로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의해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2013년 6월

조사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번지
신성현 수석부장(02-3014-0087)
박선경 대리(02-3014-1016)

조사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14번지
윤철경 박사(02-2188-8804)
전영실 박사(02-3460-5122)

패널ID (기록하지 마세요)					
성별	1. 남자 2. 여자				생년월일 년 월 (예: 98년 3월 출생 시 98년 03월)

1. 학업중단 현황

※ 지금부터 응답하는 모든 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응답 기준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학업을 중단했을 때(유예, 면제, 자퇴, 퇴학 등으로 인해)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문 1. 최근 학교를 그만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 ① 중학교 때 ② 일반계 고등학교 때 ③ 전문계 고등학교(현행 특성화고) 때

문 1-1. 몇 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였습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중학교 졸업이후 진학하지 않음

문 2. 학교를 그만 둔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 2012년 7월에 그만둔 경우 2012년 07월)

20 년 월

문 3.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이유부터 순서대로 세 가지를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③ 가정불화 때문에	④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⑤ 공부하기 싫어서	⑥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⑦ 친구들이 싫어서	⑧ 학교의 규칙이 엄해서	
⑨ 학교를 그만 둔 친구를 따라 놀고 싶어서	⑩ 선생님이 싫어서	
⑪ 검정고시를 하려고	⑫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⑬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⑭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⑮ 기타(_____)		

문 4. 학교를 그만둘 당시 처리 형태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자발적 자퇴(내가 그만 둔 것) ② 권고 자퇴(내 생각보다는 학교의 권고로 자퇴)
 ③ 정계로서의 퇴학 ④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포기
 ⑤ 유예 ⑥ 면제
 ⑦ 기타 (_____)

문 5. 학교를 그만 둘 당시 학교성적은 어느 정도였나요?

최하위권	하위권	중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최상위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6.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모두 몇 번의 학업중단 경험이 있었습니까?

'학업중단 경험'이란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자퇴 등으로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_____)번

문 7. 학업중단 이후 학교에 복귀한 경험이 있습니까?

- 문 7-1. 최초 학업중단 시기는 언제였습니까?예 : 2012년 7월에 그만둔 경우 2012년07월)

문 7-2. 최초 학업중단 후 얼마 만에 학교에 복귀했습니까?

문 7-3. 최초 학업중단 후 학교복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 7-4. 여러분이 복귀한 학교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문 7-5. 전에 다녔던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 7-6. 여러분이 복귀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1) 학교명	() (중학교/고등학교)
2) 학교소재지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문 8. 최근 학교를 그만 둘 무렵,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논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부모님
- ② 형제자매
- ③ 학교교사
- ④ 학교 내 상담교사
- ⑤ 상담기관(상담사, 인터넷 상담 등)
- ⑥ 친구나 선후배
- ⑦ 아무도 없었다
- ⑧ 기타(_____)

문 9. 학업중단 시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제공받은 경험이...	
1) 학교에 복귀하는 절차	① 없다	② 있다
2) 대안학교 등 대안교육기관	① 없다	② 있다
3)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	① 없다	② 있다
4)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	① 없다	② 있다
5) 진로나 직업교육훈련 관련 시설(예: 고용지원센터)	① 없다	② 있다
6)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설명 (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결정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	① 없다	② 있다

문 10. 여러분이 학교를 그만둘 당시 필요했던 도움은 어떤 것이었나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
- ② 심리상담
- ③ 진로상담
- ④ 대안교육
- ⑤ 직업기술훈련
- ⑥ 일자리 소개
- ⑦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활동
- ⑧ 경제적 지원
- ⑨ 기타(_____)

문 11.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안된다고 하셨다
- ②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 ③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 ④ 학업을 중단하려는 것을 모르셨다
- ⑤ 기타(_____)

문 12.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① 안된다고 하셨다
- ②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셨다
- ③ 별 다른 반응이 없었다
- ④ 학업을 중단하려는 것을 모르셨다
- ⑤ 기타(_____)

문 13. 학업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가졌습니까?

- ① 예 - 「문 13-1」로
 ② 아니오 - 다음페이지 「문 14」로

문 13-1. 2주 동안 학업중단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II. 학업중단 당시 학교생활 회고

문 14.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4-1」로
② 없다 ➡ 「문 15」로

문 14-1.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기 시작한 일은 언제 처음 있었습니까?

- ① 초등학교 저학년 ② 초등학교 고학년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문 14-2.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게 된 최초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를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① 공부하기 싫어서 ② 친구들이 괴롭혀서 ③ 선생님께 혼나서
④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⑤ 기타()

문 15. 최근 학교를 그만두기 전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4)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①	②	③	④
5)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①	②	③	④
7)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①	②	③	④
8)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9)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0)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①	②	③	④

문 16. 여러분은 최근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1) 지각	①	②	③	④	⑤
2)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를 말함)	①	②	③	④	⑤
3) 두발·복장 등 규정위반	①	②	③	④	⑤
4) 숙제를 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5) 수업을 몰래 빼 먹음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①	②	③	④	⑤
7)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①	②	③	④	⑤

III. 학업중단 이후 경험과 인식

※ 다음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 현재까지 여러분의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업중단을 여러 번 한 경우 가장 최근 학업중단 이후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세요.

※ 학업중단 월을 기준으로 빠지는 기간 없이 응답하여 주세요.

예를 들어, 2012년 8월에 학업을 중단하였다면 201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야 합니다.

2013년 3월~7월에 복학하여 학교에 다녔다면

☞ 문1)의 보기 ⑨ 2013년 3월 ~ ⑬ 2013년 7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2012년 9월~10월에 병원에 입원했다면

☞ 문9)의 보기 ③ 2012년 9월과 ④ 2012년 10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나머지 기간인 2012년 9월~10월 및 2013년 3월~7월에는 특별한 일 없이 지냈다면

☞ 문6)의 보기 ⑤ 2012년 5월 ~ ⑧ 2013년 2월에 모두 동그라미 합니다.

	2012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자녀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 나의 학업중단 기간 →

문 17. 학업중단 이후 아래 각각의 일을 경험한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2012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2) 대안학교에 다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검정고시 공부를 함 (검정고시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직업기술을 배움 (직업학교나 학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5)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6)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자녀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7)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8)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9)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18. 학업중단 이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지낸 경우가 있다면 해당하는 달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2012년						20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함과 함께 생활함 (가출함: 가출한 친구들 끼리 모여 함께 사는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2)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 쉼터 등)에서 지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3) 보호관찰을 받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소년분류심사원: 비행 청소년들을 상담하여 원인을 밝히고 분류 심사하는 기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문 19.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 19-1」로
② 아니오 → 다음페이지 「문 20」으로

문 19-1. 지금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한 가지만 골라 체크해주세요.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가 2개 이상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하는 아르바이트 기준'입니다.

- | | |
|-------------------------------|--------------------------|
| ① 전단지 돌리기(스티커 부착) | ② 신문 및 우유배달 |
| ③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 ④ 24시간 편의점 직원 |
| ⑤ 일반상점 판매원 | ⑥ 비디오 대여점 카운터 및 서빙 |
| ⑦ 비디오방 카운터 및 서빙 | ⑧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
| ⑨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 ⑩ 전화방 카운터 및 서빙 |
| ⑪ 만화방 카운터 및 서빙 | ⑫ 여관 카운터 및 서빙 |
| ⑬ 피자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 ⑭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
| ⑮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삐끼), 서빙 및 접대 | ⑯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
| ⑰ 주유소 주유원 | ⑱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
| ⑲ 건설현장 노동 | ⑳ 공장노동 |
| ㉑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 ㉒ 아기, 노인 돌보기 |
| ㉓ 기타(_____) | |

문 19-2.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에서 응답한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_____)일
2)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약 (_____)시간
3) 한 시간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약 (_____)원

문 20. 학교를 그만 둔 이후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기관을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원, 문화의 집 등)
- ②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 ③ 보호시설(자립생활관, 청소년쉼터 등)
- ④ 상담기관(청소년상담소 등)
- ⑤ 보호관찰소
- ⑥ 직업훈련기관(직업전문학교, 취업사관학교)
- ⑦ 종교기관(교회, 성당, 절 등)
- ⑧ 학원
- ⑨ 병원 등 치료시설
- ⑩ 대안교육기관
- ⑪ 기타(_____)

문 21. 학교를 그만 둔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①	②	③	④
2) 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①	②	③	④
3) 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문 22. 여러분은 향후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만일 이미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하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 ② 학교를 다니거나 검정고시 준비
- ③ 취업
- ④ 취업과 학업(검정고시) 병행
- ⑤ 취업과 학업(혹은 검정고시 준비)은 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만 계속
- ⑥ 기타(_____)

문 23. 다음은 학교를 그만 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북학했다면,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의 심정으로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가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3) 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었)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하(했)다.	①	②	③	④
5)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하(했)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었)다.	①	②	③	④

IV. 개인의 심리·정서 상황

문 24.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으니 각 항목에 대해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①	②	③	④

문 25. 여러분의 평소 기분과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울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①	②	③	④
7)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문 26. 여러분이 최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자주 해 보았는지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①	②	③	④
2)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①	②	③	④
3)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①	②	③	④
4)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5)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6)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7)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8)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V. 부모·친구관계·동네주변 환경

문 27. 다음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보호자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보호자란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다른 가족, 친척 등이 부모님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단, 시설 및 기관의 보호자는 제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고민을 들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5)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문 28.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을 되살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일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3)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①	②	③	④
4)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5) 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①	②	③	④
6)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①	②	③	④
7)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①	②	③	④
8)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를 들어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의 말)	①	②	③	④

문 29. 현재 친한 친구가 몇 명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로 예전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

문 29-1. 그 중에 학업중단 이후 새롭게 사귀 친구는 몇 명입니까?

()명

문 29-2. 친한 친구 중에 학업 중단한 친구는 몇 명입니까?

()명

문 30. 여러분의 친구(선후배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4)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5)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①	②	③	④
6)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①	②	③	④

문 31. 여러분이 학업중단 시에 살았던 동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학업중단 이후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을 경우는 학업중단 시에 살았던 동네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3)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았다.	①	②	③	④
6)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7)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9) 우리 동네에는 여가문화시설(청소년시설, 문화센터, 도서관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 이용하기 편리했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동네는 산, 공원, 하천 둔치 등이 있어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았다.	①	②	③	④

VI. 일상생활 및 가치관

문 32. 다음은 여러분이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생활 영역별로 해당 여부를 응답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기입해 주세요.

		해당여부	평일에는	휴일에는
수면 시간	1) 나는 하루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이 대략...		()시간이다.	()시간이다.
공부나 일하는 시간	2)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3) 나는 하루 24시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취업해서 일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여가 시간	4)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5)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 ※ 숙제나 공부 때문에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 제외함	① 해당 없음	()시간이다.	()시간이다.
		② 해당 있음 →		
	6)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7)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 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① 해당 없음 ② 해당 있음 →	()시간이다.	()시간이다.

문 33. 다음은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유나 주스만을 마신 것은 식사에서 제외하며 빵, 선식,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는 포함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1) 최근 7일 동안 나는 아침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2) 최근 7일 동안 나는 점심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3) 최근 7일 동안 나는 저녁식사를 많아야 2번 먹었다.	①	②
4) 최근 7일 동안 나는 라면이나 컵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었다.	①	②

문 34. 다음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여러분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VII. 생애사건 경험

※ 말씀해 주시는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연구목적의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35. 다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을 수도 있는 "나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제시된 '사건' 가운데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지,
1) 발생여부와 2) 그 사건이 "처음" 일어난 때가 언제였는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사 건	발생 여부	처음 일어난 때 (예) 취학 전 · 초 · 중 · 고
1) 친아버지가 돌아가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2) 친어머니가 돌아가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3) 친부모님의 별거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4) 친부모님의 이혼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5) 친아버지의 재혼(또는 새어머니가 들어오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6) 친어머니의 재혼(또는 새아버지가 들어오심)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7) 친아버지의 가출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8) 친어머니의 가출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9) 친아버지의 사업실패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0) 친어머니의 사업실패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사 건	발생 여부	처음 일어난 때 (예) 취학 전 · 초 · 중 · 고
11) 친아버지의 실직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2) 친어머니의 실직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3) 친아버지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4) 친어머니의 오랜 병상생활(질병, 교통사고 등)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5) 기억에 남을 만한 심한 친부모님의 부부싸움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6) 친아버지가 친어머니를 심하게 때림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7) 친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음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8) 친어머니로부터 심하게 맞음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19) 학교선생님으로부터의 치욕적인 대우나 구타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20) 이사 등으로 전학함	① 없음	취학 전 · 초 · 중 · 고
	② 있음 →	

VIII. 문제행동 경험

※ 말씀해 주시는 응답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연구목적의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36. 다음은 여러분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천히 기억을 되살려 최근 학업중단 이전에 혹은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이전에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1) 집단 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2) 성적인 놀림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3)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4)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상납)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5) 심하게 언어맞기(폭행)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6) 성폭력 당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문 37. 다음은 여러분이 최근 학업중단 이전에 혹은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	
1) 담배 피우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2) 술 마시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3)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5)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6)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을 보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7) 돈내기 도박 해보기(인터넷 포함)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8) 자살 시도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9)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① 없다	② 있다	① 없다	② 있다

문 38. 보호관찰소에서 만나고 있는 선생님(보호관찰관)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각 항목별로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호관찰관 선생님은 나의 문제점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2) 보호관찰 선생님은 내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 알고려 하신다.	①	②	③	④
3) 보호관찰 선생님은 나를 잘 도와신다.	①	②	③	④
4) 보호관찰 선생님께서 내 문제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IX. 배경요인

문 39.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친아버지 ② 친어머니 ③ 새아버지 ④ 새어머니
 ⑤ (외)할아버지 ⑥ (외)할머니 ⑦ 형제,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40. 친부모님의 결혼상태는?

- ① 결혼 ② 재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부모님이 안 계심

문 41. 현재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중 외국출신하신 분이 계십니까?

- ① 외국출신 분이 안 계심 ③ 어머니가 외국출신 ④ 두 분 모두 외국출신
 ② 아버지가 외국출신 ⑤ 부모님이 안 계심

문 4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안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 43.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 현재까지 이사를 몇 번 했습니까?

(_____)번

문 44.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 참여 의향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앞으로 연구 패널로서 매년 1번의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귀하가 앞으로 1년에 1시간 정도씩만 시간을 내셔서 조사에 응해주시면 한국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얻게 될 인적사항을 포함한 개인적인 사항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종단 조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본 조사의 패널로서 조사에 계속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름: _____ 서명(싸인): _____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뜻으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가 매년 조사에 참여하실 때마다 감사의 뜻으로 사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연구 및 정책수립에 기여하고 계신 귀하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또는 보호자께도 패널조사에 대해 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 수령확인을 위해 이름과 조사일시, 서명을 자필로 쓰시고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패널인 나 (이름)_____ 는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에

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사례품(문화상품권 3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내년 조사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서명(싸인): _____

♣ 조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자 정보

※ 여기서부터는 담당 보호관찰관께서 작성하여 주세요.

패널ID (기록하지 마세요)						패널 이름		
휴대폰 번호		- -			이메일 주소		@	
사는 곳 주소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부모님 주소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 _____						
집 전화번호		- -			부모님 집 전화번호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경우에만 기록 - -	
아버지	성명				형제· 자매 또는 친척	성명	해당란에 O 표시 형제·자매·친척	
	휴대폰 번호	- -				휴대폰 번호	- -	
어머니	성명				친한 친구	성명		
	휴대폰 번호	- -				휴대폰 번호	- -	

보호관찰 관련

문 1. 이번 보호관찰 받기 이전에 처분 받은 경험 유무

- ① 없다 → 「문 2」로
 ② 있다(이번을 제외하고 _____회) → 「문 1-1」로

문 1-1.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처분내용을 모두 적어 주십시오.

발생연도	죄명	처분내용(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① 1호처분 ② 2호처분 ③ 3호처분 ④ 4호처분 ⑤ 5호처분 ⑥ 6호처분 ⑦ 7호처분 ⑧ 8호처분 ⑨ 9호처분 ⑩ 10호처분 ⑪ 기타(_____)
		① 1호처분 ② 2호처분 ③ 3호처분 ④ 4호처분 ⑤ 5호처분 ⑥ 6호처분 ⑦ 7호처분 ⑧ 8호처분 ⑨ 9호처분 ⑩ 10호처분 ⑪ 기타(_____)
		① 1호처분 ② 2호처분 ③ 3호처분 ④ 4호처분 ⑤ 5호처분 ⑥ 6호처분 ⑦ 7호처분 ⑧ 8호처분 ⑨ 9호처분 ⑩ 10호처분 ⑪ 기타(_____)
		① 1호처분 ② 2호처분 ③ 3호처분 ④ 4호처분 ⑤ 5호처분 ⑥ 6호처분 ⑦ 7호처분 ⑧ 8호처분 ⑨ 9호처분 ⑩ 10호처분 ⑪ 기타(_____)

문 2. 이번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 죄명(해당되는 것 모두 표시)

- ① 폭력 ② 절도 ③ 강도 ④ 약물 ⑤ 교통범죄
 ⑥ 기타(_____)

문 3. 이번에 받게 된 처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처분) ② 수강명령 ③ 사회봉사명령
 ④ 단기보호관찰 ⑤ 장기보호관찰 ⑥ 8호처분
 ⑦ 보호관찰위반 ⑧ 기타(_____)

문 4. 부가적으로 받은 처분

- ① 부가처분 없음 ② 야간의출제한명령
 ③ 상담교육 ④ 보호자교육
 ⑤ 기타(_____)

문 5. 보호관찰소를 통해 받고 있는 지원

- ① 직업훈련기관 연계, 알선 ② 취업지원 ③ 학업지원
 ④ 원호금, 장학금 지원 ⑤ 상담지원
 ⑥ 기타(_____)

※ 다음은 위의 문 2의 행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 6. 공범유무

- ① 혼자서 했다 → 「문 7」로
② 다른 사람과 같이 했다(본인을 제외하고 _____명) → 「문 6-1」로

문 6-1. 공범자들 간의 관계

- ① 친구 ② 선후배 ③ 친구와 선후배 ④ 기타(_____)

문 7. 위의 행위를 한 가장 주된 이유

- ① 화가 나서 ② 심심풀이나 재미로 ③ 호기심으로
④ 생계비가 필요해서 ⑤ 유흥비가 필요해서 ⑥ 친구가 하자고 해서
⑦ 기타(_____)

문 8. 위의 행위를 할 당시 거주지

- ① 집 ② 친구나 선후배 집 ③ 쉼터 등 보호시설
④ 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생활

문 9. 보호관찰 종료일 201□년 □□월

문 10. 보호관찰 사건번호 □□-□□□□-□□□□-□□□□□□

문 11. 보호관찰 담당선생님 성함 (_____)

2. 보호관찰대상 학업중단 청소년용 심층면접 질문지

성명		출생년도	
----	--	------	--

1. 가족관계

- 거주지
- 현재 동거가족과 형제관계
- 친부모와의 동거여부
-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 형제자매와의 관계는?
- 부모님의 직업은?

2. 학교생활경험

- 학교성적은?
- 지각이나 무단결석 등 교칙 어기기
- 학교에서 벌칙은 받은 경험은?

3. 학업중단경험

-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언제, 몇 학년?
- 자퇴 or 권고 or 퇴학
-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 이전의 학업중단 경험은?
- 학업중단 당시 부모님이나 어른들과 상의한 적은 없는지? 했다면 누구와 상의했나?
- 학업을 중단하기 전 전문기관에서 상담 받으며 2주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제도숙려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혹시 숙려제도를 가졌다면 도움이 되었는지?

4. 보호관찰경험

- 이번 보호관찰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 이전의 보호관찰 경험은?

5. 학업중단이후의 경험

- 학업중단 이후에는 어떻게 지냈는지?(검정고시/대안학교/수련관/직업교육 등 등/아르바이트 경험)
-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는?
- 검정고시에 응시한 적은 있는지?

6. 가출경험

- 혹시 그동안 가출한 적은 있는지?
가출경험이 있다면) 언제? 가출기간은 얼마나?
가출경험이 있다면) 어디서 잤는지?

7. 친구관계

- 친구들은 많은지?
- 친구들은 주로 학교를 다니는지? 아님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많은지?

8. 하루일과와 심리적 문제

-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주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아침, 점심, 저녁
- 우울한 기분을 자주 느끼는지?

9. 장래희망과 보호관찰소에 대한 인식

- 향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 보호관찰 선생님과 관계는?
- 보호관찰소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 특히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좋은지?
-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혹시 다른 사고 난 적은 없는지?

전화번호		담당 선생님	보호관찰소 /
------	--	--------	---------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 · 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 · 임희진 · 정효진 · 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전명기
- 13-R10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윤옥경 · 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배상률 · 성은모 · 이혜연 · 김균희 · 이용교 · 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이혜연 · 배상률 · 성은모 · 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 · 오현석 · 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 · 김경준 · 김지혜 · 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 · 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경준
- 13-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과와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중 단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분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운 (자체번호 13-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자체번호 13-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토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리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3-37-02
연구보고 13-R18-1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9-11-5654-005-2 94330

ISBN 978-89-7816-999-8 (세트)